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2004년도 환경 교육 지원 사업 보고서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 놀이터 프로그램



중 앙 유 아 탐 구 연 구 회

연구책임자 :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목 차

《이론편》

I.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 놀이터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3
II.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 놀이터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4
2. 프로그램의 내용	5
3. 교수- 학습 방법	6

《실제편》 -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 놀이터 프로그램의 실제 -

1) 돌놀이터	11
2) 산책길	30
3) 미니 정원	56
4) 하늘바라기 뜰	79
5) 지렁이 농장	104

참고문헌	125
------------	-----

이 론 편

I.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 놀이터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자연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과 자연은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다. 말하자면 사람은 한순간도 자연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으며, 삶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과 사람과의 불가분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력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양이 된다. 유아는 천성적으로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편견 없이 세상을 탐색하고 바라보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유아들의 특성은 성인에 비해 자연을 온전히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고, 자연에서 삶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자연 친화 교육은 유아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기에 자연 친화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형성한 자연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이후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주며, 유아기의 직접적인 체험이 편견 없는 자연에 대한 가치 인식과 생태적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Chawla, 1994; Palmer, 1993; Ternner, 1980). 자연은 유아에게 지식 뿐 아니라 놀라움과 즐거움의 감각, 창의적인 상상력을 제공한다(Cobb, 1977; Raglon, 1993).

이러한 유아기 자연 친화 교육이 줄 수 있는 본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풍요로운 자연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자연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Humphryes, 2000; Wilson, 1996).

양옥승 (2001)은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 교육은 다음의 원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연의 '보존'이 아닌 '보전'의 의미에서 자연활용의 개념을 구축하여 생태학적 생활방식을 갖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일회적이고 행사위주가 아닌 일상적인 삶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즉 체험을 강조하여 유아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자연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자연 친화 교육은 일상적, 지속적 경험이 되어야 하며, 자연 속에서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화된 유아들의 생활환경이나 교육환경은 자연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오늘날의 세계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연은 일상적 생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며,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일상적 자연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유정선, 임정애, 2004). 따라서, 체험 중심의 자연 친화 교육을 위해서는 자연을 교실로 끌어들이거나 자연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Boyer(1991)는 건조한 교육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자연 친화 교육의 방안으로 유아들에게 자연을 접해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재창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Moore(1997)는 미국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생태적 공간으로 바꾸어 조성하는 과정을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교육활동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여 건조한 환경에서 자연 친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자연 환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장에 점차 구성해 감으로써 건조한 환경이 자연 친화적 환경으로 변모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과학적, 생태학적 지식을 학습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이 자연 친화 교육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보고 Boyer와 Moore가 제시한 자연환경 구성을 통한 자연 친화 교육의 방안이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유아들이 자연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관련한 자연 환경을 교실외부에 구성하는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유아들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관련 지식을 넓혀가며, 자연이 들어선 환경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자연놀이터라고 개념화 하고자 한다. 자연놀이터란 유아들이 자연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즐기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 내에 자연물을 활용하여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유아와 교사가 함께 구성하는 자연중심의 공간을 말한다. 자연 놀이터는 단순히 자연을 지식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유아들의 본능적 욕구인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자연과의 공존적 삶의 가치인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 하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드는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제한된 공간과 환경 내에서 자연 친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 놀이터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연에 대한 과학적, 생태학적 이해,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표1>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자연에 대한 태도	자연에 대한 지식 이해	자연친화적 문제해결능력
1.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한다. 2. 자연물과 친숙하게 놀이한다. 3. 자연물의 생명을 존중한다. 4.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5.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자연의 가치를 인식한다. 6. 자연과의 놀이를 즐긴다. 7. 자연이 있는 공간에 대해 애착을 갖는다. 8. 자연을 돌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	1. 사람과 자연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한다. 2. 동물의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3. 식물의 성장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4. 무생물 자연물의 과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5. 동, 식물을 잘 기르고 가꾸는 방법을 이해한다. 6. 자연물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이해한다. 7. 자연의 유용성에 대해 이해한다.	1. 인간의 생활을 위해 자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 2.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3.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있어 옳고 그른 것을 변별할 수 있다. 4.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고 실천한다. 5.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놀이터는 유아들의 관심을 기초로 하여 주변에서 놀이터 구성에 필요한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유아들의 생활경험과 직접 연관성이 있으며, 자연의 다양성과 생태학적 이해를 돕기에 적합한 자연물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교사는 각 주제별로 가능한 활동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활동이 진행되면서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고 상황을 고려한 결과 사전 계획안과는 다른 활동내용이 진행되었다. 각 주제별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활 동 내 용
미니 정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정원을 산책해요. · 여울반 미니 정원을 만들어요 · '오소리네 집 꽃밭'을 읽고 정원만들기를 토의해요 · 유치원에서 정원 만들 장소를 탐색해요 · 미니 정원 주제망을 구성해요 · 미니 정원 설계도를 그려요 · 미니 정원을 만들어요 · '향기나는 정원'에서 놀아요 · '향기나는 정원'을 소개해요 · 미니정원에 문제를 해결해요
산책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길에서 만난 자연물과 놀이해요 · 유치원에 산책길을 만들어요 · 우리가 만든 산책길에서 무엇을 할까요? · 오감이 있는 산책길을 꾸며요 · 걸으면 행복해지는 산책길을 알려요 · 행복해지는 산책길에 유치원 식구들을 초대해서 놀이해요 · 행복해지는 산책길을 관리하고 놀아요.
하늘 바라기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은 이런 느낌을 주어요 · 하늘 공원을 다녀왔어요 ·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어요 · 비오는 날에도 하늘을 관찰하려면? · 하늘바라기 뜰을 멋지게 꾸며요 · 하늘바라기 뜰에서 놀이해요 · 하늘바라기 뜰을 관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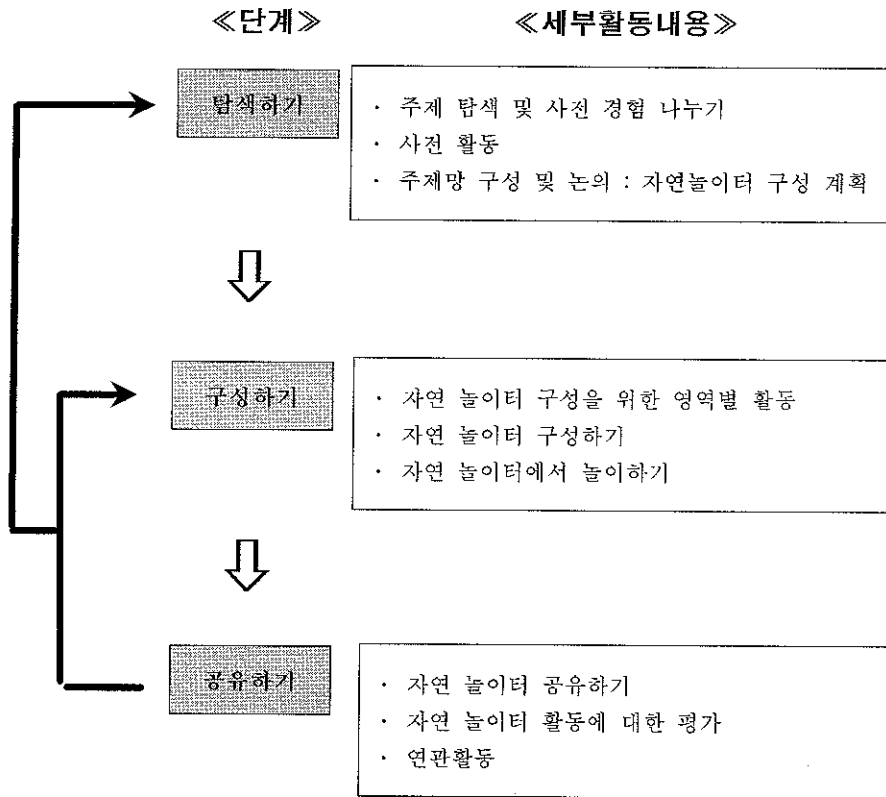
주제	활 동 내 용
지렁이 농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렁이가 궁금해요 · 지렁이 사육장을 방문해요 · 신나는 지렁이 놀이들 · 산책에서 만난 지렁이 · 지렁이를 찾아요 · 신나는 지렁이 놀이들 · 지렁이 농장을 만들려면? · 지렁이 집 모형을 만들어요 · 지렁이 집 만들기를 허락받아요 · 지렁이 집에 필요한 것들은? · 지렁이 농장 구성하기 · 지렁이 전시회를 열어요
돌 놀이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청공원에서 돌을 주웠어요 · 돌을 탐색해요 ·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 돌로 놀이해요 · 어떻게 만들까요? · ‘돌 놀이터’를 구성해요 · ‘돌 놀이터’를 알려요 · ‘새암반 돌 놀이터’ 전시회를 열어요 · 돌놀이터에서 함께 놀이해요 · 돌 놀이터를 관리해요

3. 교수- 학습 방법

아이들이 만드는 자연 놀이터 활동의 운영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을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경험의 확장과 명료화를 위한 기록화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담임교사, 원장 및 유아교육전문가와와의 협의를 통해, B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형식과 Moore(1997)가 제시한 자연환경구성활동을 위한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교사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제를 정하고 전개해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 스스로 자기 주변을 탐색하여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갖는 동시에, 주제를 직접 체험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짐으로서, 정신을 몰입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Chard & Katz, 1995).

Moore(1997)의 자연환경구성활동은 탐색하기, 발견하기, 기록하기, 표현하기, 적용하기, 옮기기 등의 6단계로 이루어져, 유아와 교사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참여와 협동, 표현이 가능한 방법이다. 프로젝트 접근법과 Moore가 제시한 자연환경구성활동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구안한 '자연환경구성활동'의 진행 방법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아이들과 만드는 자연 놀이터 교수 - 학습 방법

아이들이 만든 자연놀이터 운영의 1단계(탐색하기)에서는 대집단 시간을 통해 이야기나누기, 동화, 수수께끼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구성활동 주제에 대한 사전경험을 나눈다. 이를 통해 주제망을 구성하고, 질문목록을 작성하여 활동을 계획하는 주제탐색의 단계이다. 2단계(구성하기)에서는 자유선택활동과 대집단활동, 소그룹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놀이터 구성하기 및 놀이 활동을 전개한다. 3단계(공유하기)는 결과 공유의 단계로, 유아들이 자연환경구성활동을 통해 얻은 느낌의 발표 및 서술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전개단계에서 이루어진 유아들의 활동내용을 전시회나 발표회 등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고 자연 놀이터를 개방하여 다른 반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실 제 편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자연 놀이터 프로그램의 실제

- 1 돌놀이터
- 2 산책길
- 3 미니 정원 만들기
- 4 하늘바라기 뜰
- 5 지렁이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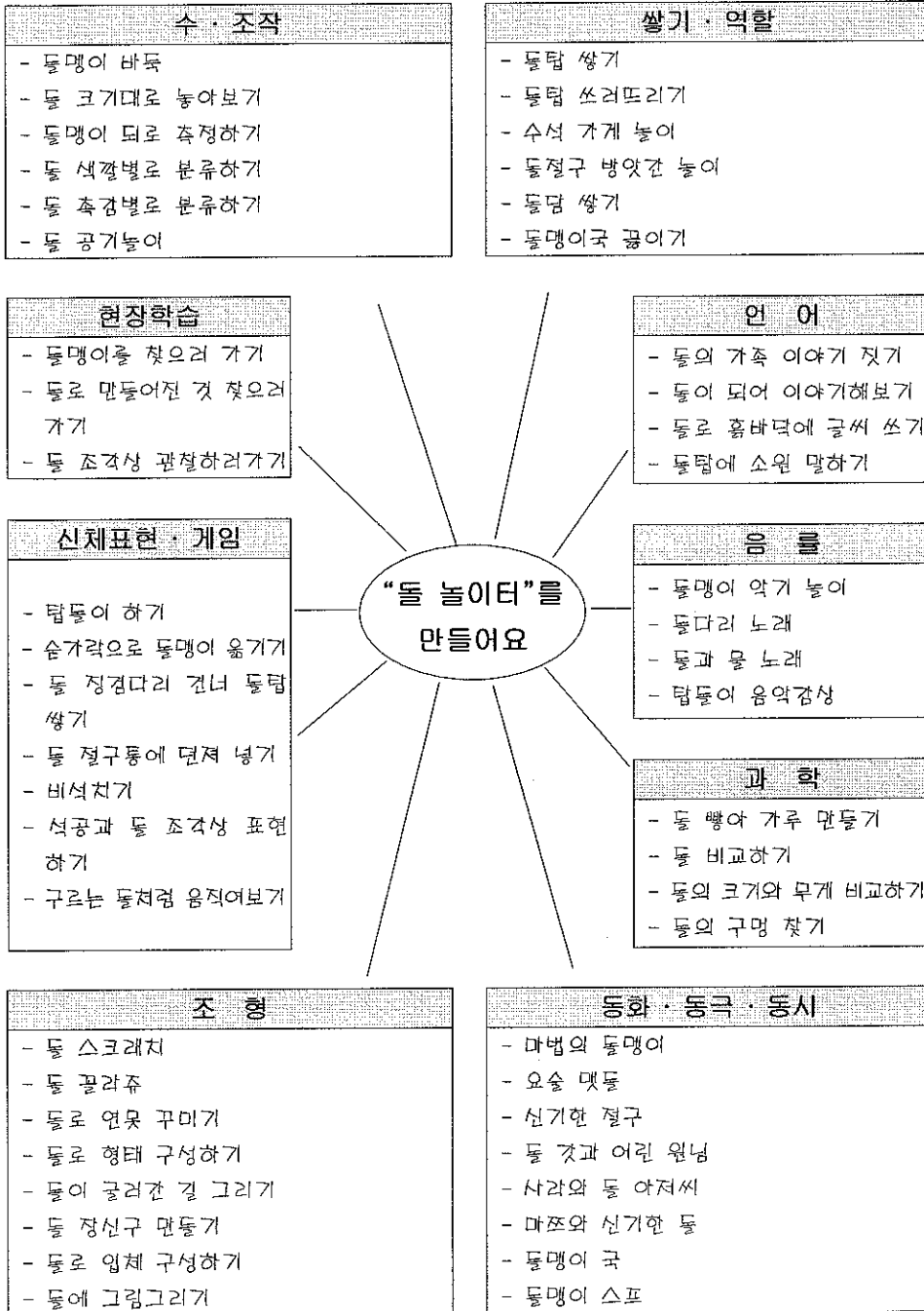
활동의 실제

1) 돌놀이터

(1) 활동진행과정

단 계	활 동 내 용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청공원에서 돌을 주웠어요 · 돌을 탐색해요 ·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 돌로 놀이해요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놀이터에 돌 놀이터를 만들어요 · 어떻게 만들까요? · ‘돌 놀이터’ 설계도를 구성해요 · ‘돌 놀이터’를 구성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맹이 국 끓이기 - 돌맹이 던지기 놀이 - 돌 탐쌍기 놀이 - 돌 분류하기 놀이 - 벽돌 빵기 놀이 - 코끼리 공기놀이 - 돌 악기연주 놀이 - 물로 돌판에 그림그리기 - 흙바닥에 돌로 그림그리기 - 돌 징검다리 건너기 - 돌 지압판 놀이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 놀이터’를 알려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 놀이터 알리는 노래 만들기 - 돌 놀이터를 알리는 편지 보내기 - 돌 놀이터 포스터와 표지판 만들기 · ‘새암반 돌 놀이터’ 전시회를 열어요 · 돌놀이터에서 함께 놀이해요 · 돌 놀이터를 관리해요

(2) 돌놀이터 만들기 연관활동안



(3) 돌놀이터 만들기 활동의 실제

탐색하기

1. 삼청공원에서 돌을 주웠어요.

돌에 관한 주제를 시작하기 전 유아들과 함께 유치원 근처에 있는 삼청공원으로 산책을 가서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가져온 것들을 살펴보면서 산책 경험을 회상하고 여러 자연물들을 탐색하였다. 수집된 자연물에는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뭇잎, 지난 겨울동안 썩지 않은 낙엽, 꽃, 풀, 흙, 돌멩이 등이 있었다. 많은 자연물들 중에서 유아들이 제일 많이 수집한 것은 돌멩이였다. 돌멩이를 보며, 유아들은 "나도 돌 많이 찾았는데.." 하면서 자신이 찾았던 돌멩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보였다.

"돌"에 대한 경험과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큰 돌, 작은 돌, 돌멩이"라는 간단한 대답과 "형하고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앞에 돌이 많아서 돌을 던지고 받는 놀이를 했어요. 돌을 받으면 이기는 거고, 못 받으면 지는 거예요" 정도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삼청 공원 산책과 관련하여 유치원 안에서도 돌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유아들은 바깥놀이터에서 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유아들과 정말 바깥놀이터에만 돌멩이가 있는 지 찾아보기로 하였다. 실제로 유아들은 유치원안의 다른 여러 곳에서 돌을 찾을 수 있었다.

< 유아들이 돌멩이를 찾은 곳 >

- 새암반의 화분 속
- 복도 정식품 속
- 로비의 양동이 속
- 물레방아 앞
- 바깥놀이



< 유치원에서 돌멩이 찾기 >

내일은 유아들과 함께 많은 돌을 접해보기 위해 돌을 직접 찾으러 밖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2. 돌맹이를 찾으러 가요.

돌맹이를 찾으러 떠나기 전 어떤 돌맹이들이 있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직접 찾아 유치원으로 가지고 오기로 했다. 안산에 도착하여 유아들과 함께 어떤 돌맹이들이 있는 지 살펴보았다. 바닥의 돌길과 시가 직혀 있는 큰 돌 등을 발견하였다.

- 교사 : 어떤 모양의 돌맹이들이 있니?
- 유아 : 여기 큰 돌이 있어요.
- 유아 : 날 이빨 같은 돌맹이를 찾았어요.
- 유아 : 뽕죽한 돌이다.
- 유아 : 반짝이는 돌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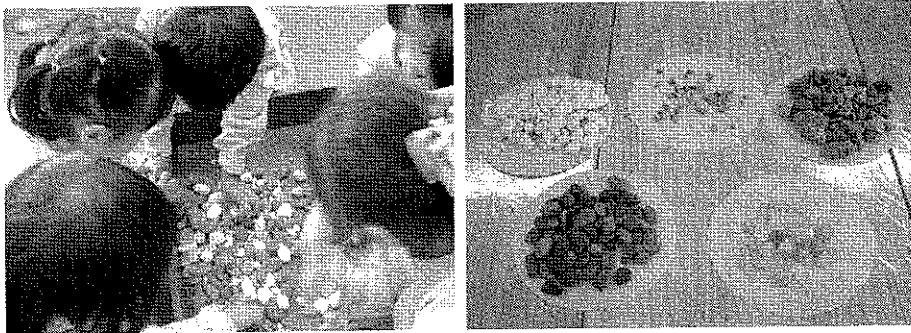
3. 우리가 찾은 돌맹이는 어떤 느낌인가요?

유아들과 함께 찾은 돌맹이를 상자 속에 숨긴 후 천으로 덮고, 다양한 방법으로 느낌을 느껴보았다. 하나씩 꺼내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돌끼리 부딪히 소리도 들어보면서, "돌 냄새가 난다" "돌 같다" "여기 끝이 뽕죽하다" "내건 이빨 같다" "이건 칼 같다" 등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탐색했다.

4. 돌맹이를 나누어 보아요.

찾아온 돌맹이들을 교실의 자연물영역에 내어주고 자유롭게 더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분류하기가 시작되었다. 돌맹이들을 2개씩 꺼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울퉁불퉁한 것과 매끄럽게 동글동글한 것으로 나누기, 작은 돌과 큰 돌로 나누기, 색깔별로 나누기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책상위에 등그란 부직포로 분류할 공간을 구분하여 주었을 때, 유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분류하기를 즐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돌맹이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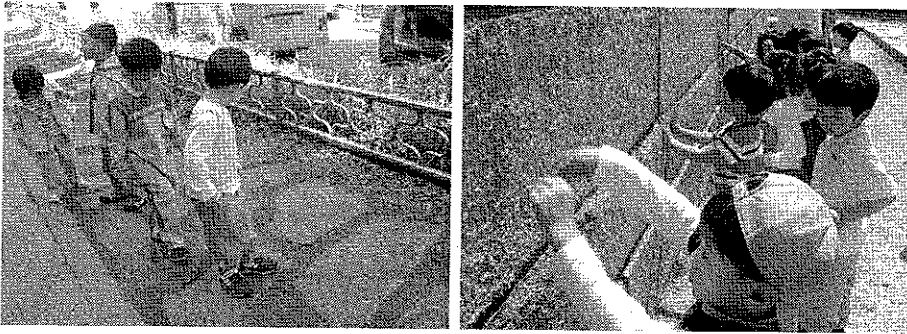
<돌맹이 탐색하고 나누기>

5. 돌로 만들어 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돌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유아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발견했던 돌길과 시가 적혔던 큰 돌 등을 회상하며 우리생활에서 돌이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다시 돌로 만들어진 것을 찾아 산책을 가기로 하고, 서오릉으로 갔다. 서오릉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길, 돌계단, 돌 벽, 돌기둥, 돌 조각상, 돌 비석 등을 탐색하며 돌의 존재를 느껴보았다. 서오릉 산책은 생활주변의 돌 찾기에 새로운 자극이 되어 유아들이 돌술, 돌 그릇, 돌 장식품 등 돌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건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유아 각자가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가져온 돌맹이를 소개하고 돌맹이의 모양과 크기, 색깔 등을 살펴보고, 찾아 온 돌맹이의 수를 함께 세어 보기도 하였다.

교사도 이야기 거리로 벽돌을 가져와 유아들과 함께 벽돌의 모양과 쓰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유아들과 함께 새암반 만의 벽돌을 만들기로 하여, 옹기토와 돌맹이, 여러 가지 조개, 소라를 이용한 벽돌을 만들어 보았다.



<돌로 만든 것 찾기>

6. 돌을 이용한 놀이를 해요.

유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돌맹이를 찾아보고, 돌을 탐색해보면서 돌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책 속에 나와 있는 돌을 이용한 놀이를 알아보고, 또 교사나 엄마, 아빠 어린 시절의 돌맹이를 이용한 놀이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돌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유아들이 직접 돌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보았다.



벽돌 빚기 놀이

돌 무게재기

돌로 꾸미기

돌 케이크



돌로 모양구성하기

돌 판에 그림 그리기

돌 지압판 만들기

물에 돌 넣어보기

<여러 가지 돌 놀이>

구성하기

1. 돌 놀이터를 만들기로 해요.

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돌을 이용한 놀이를 한 후,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돌 놀이에 대해 회상해본 후 돌 놀이를 해본 기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유아들은 돌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였다. 이렇게 재미있는 돌 놀이를 유치원의 다른 형님반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를 할 수 있는 돌 놀이터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돌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적당한 장소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유치원의 모든 반이 자유롭게 와서 놀이할 수 있도록 돌 놀이터를 바깥놀이에 만들기로 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바깥놀이에 직접 나가 둘러보면서 돌 놀이터를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았다.

- 교사 : 자. 바깥놀이를 둘러보자. 어떤 곳에 돌 놀이터를 만들면 좋을까?
- 유아 : 이 곳이에요~
- 유아 : 아니. 이 곳이에요~
- 교사 : 이 곳은 형님들이 무엇을 만든 곳이니? 우리가 형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돌 놀이터를 만들면 형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 유아 : 속상해요.
- 유아 : 슬퍼요.
- 유아 : 싫어해요.
- 교사 : 그럼, 형님들이 속상해하지 않고, 다른 바깥놀이를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 유아 : 여기요, 여기에 만들어요!
(하늘바라기 돌 옆에 보인다.)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터를 만들기로 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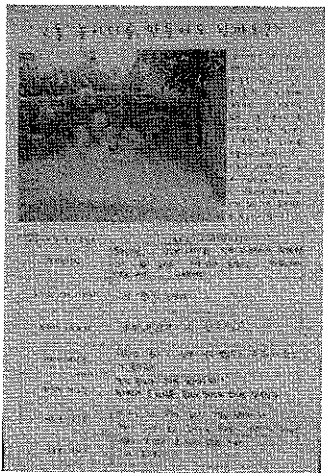
2. 유치원 가족에게 “돌 놀이터 만들기” 허락을 받아요.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터를 만들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바깥 놀이터에 돌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새암반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상명 유치원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허락 받는 방법은 돌 놀이터 만들 장소의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고 “이 곳에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될까요?”하고 물어보아, 답을 듣기로 하였는데 다행히 상명 유치원의 모든 가족들이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었고, 많은 격려도 해주었다.

- 교사 : 우리끼리 정한 장소에 우리 마음대로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될까?
누구한테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할까?
- 유아 : 형님들한테요.
- 교사 : 형님들한테는 왜 물어봐야 할까?
- 유아 : 놀이하는데 방해될지도 모르니까.
- 교사 : 어떤 형님들에게 물어봐야 할까?
- 유아 : 바다반, 거름반, 시내반, 여울반 형님들도요.
- 교사 : 형님들에게만 물어보면 될까?
- 유아 :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봐야 해요.
- 교사 : 그럼, 형님들과 선생님들에게만 물어 보면 될까?
- 유아 : 해님차, 달님차 아저씨께도 물어봐야 해요.
- 교사 : 아저씨들께는 왜 물어봐야 할까?
- 유아 : 아저씨들도 바깥놀이에서 일하시니까요.
- 유아 : 야채한테 물 적어야하니까요.
- 유아 : 조리사 아주머니한테도 물어봐요.
- 교사 : 조리사 아주머니께는 왜 물어봐야 할까?
- 유아 : 야채 따라하니까요.
- 교사 : 그래, 아주머니께도 여쭙보자.
- 유아 : 원장선생님한테도 물어봐요.
- 교사 : 원장선생님께는 왜 여쭙봐야 할까?
- 유아 : ...
- 교사 : 우리 유치원의 제일 어른은 누구시니? 원장선생님이시지? 그러니까 원장선생님께도 정말 여쭙봐야 겠다. 그럼 우리 유치원 가족들에게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주시는지 잘 들어보기로 하자.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될까요?



<유치원 식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암반입니다. 새암반에서 돌을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바깥 놀이터의 하늘바라기 옆에 "돌 놀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에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형님들이 놀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원장님, 아주머니, 아저씨들께도 불편을 드리지 않는다면 돌놀이터를 만들어도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주셨나요?

원장선생님

물론이지요. 새암반 어린이들이 만든 돌 놀이터에 원장선생님도 가서 놀고 싶어요. 아주 멋지고, 튼튼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대할게요.

유치원 기사
아 저 씨

그럼 만들어도 된단다.

조리사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잘 만드세요.

바다반
형님들

만들어도 좋아. 그런데 우리 형님들도 돌 놀이터 만드는 거 도와줄게.

가람반
형님들

정말 좋겠다. 우리도 놀리가도 되지? 돌 계단다 돌 미끄럼틀, 돌 시소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시내반
형님들

어, 해도 돼. 만들다 줘으면 산책길 넘어와도 돼. 우리가 무거운 돌도 들어줄게. 산책길에도 놀러와!

여울반
형님들

예쁘게 잘 만들어. 돌계단도 만들면 좋겠다. 우리도 놀러 갈게.

3. 돌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까요?

유치원 식구들에게 돌 놀이터를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후 돌 놀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돌 놀이터에 어떤 놀이들을 준비해 주면 좋을지, 또한 돌 놀이터와 바깥놀이터의 구분은 어떻게 해줄지, 돌 놀이터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필요한 재료들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등이었다.

유아들은 그 동안 새암반에서 놀이했던 여러 놀이들을 회상하면서 돌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들을 제시하였고,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셨던, 들계단, 돌 시소, 돌 미끄럼틀 등을 첨가하기로 하였다.

돌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돌과 큰 돌 등이 필요하다는 유아들의 이야기에 새암반 친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에서 구하기로 하고, 구하기 힘든 큰 돌은 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돌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삽 등도 필요하다고 하여 삽 등도 준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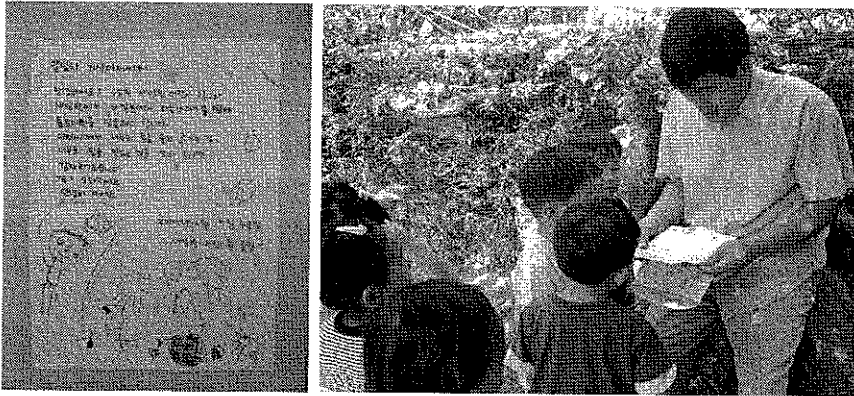
돌 놀이터의 울타리는 유아들이 벽돌, 종이, 나무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으나, 종이는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탈락 되었고, 벽돌과 나무 중 더 많은 유아들이 지지한 나무로 만들기로 하였다.

4.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유아들과 돌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지 회상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 때와 무거운 돌을 옮길 때 새암반 친구들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목공일을 잘 하시는 달님 차, 해님 차 아저씨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아저씨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새암반의 마음을 아저씨께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의논을 하다가 한 유아가 편지를 쓰자는 의견이 나왔고, 아저씨께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

달님차 기사아저씨께	해님차 기사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우리는 새암반	안녕하세요? 우리는 새암반이에요.
어린이입니다. 새암반에서 바깥놀이터	바깥놀이터 하늘바라기뜰 옆에
하늘바라기뜰 옆에 돌놀이터를	돌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무거운
만들려고 합니다. 아저씨께서 나무와	나무랑 돌을 들어서 옮겨 주세요.
돌을 들고 옮기는 것. 나무로 담을	땅을 파서 나무로 담을 세우는 것도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꼭! 꼭! 꼭! 꼭! 꼭!
감사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2005년 6월 15일 수요일
2005년 6월 15일 수요일	- 새암반 어린이들 올림 -
- 새암반 어린이들 올림 -	

- 유아들이 아저씨께 쓴 편지 -



(어저씨께 편지로 도움 청하기)

5. 돌 놀이터 설계도를 구성해요.

돌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고, 유아들과 함께 설계도를 구성해보기로 하였다. 어울반 형님들이 “향기 나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그렸던 설계도를 보며, 설계도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다.

먼저,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터에 준비하기로 한 놀이감들의 사진(돌맹이국 끓이기, 돌 징검다리 건너기, 돌 지압판 놀이, 돌 던지기, 돌탑 쌓기, 돌 악기 연주하기, 코끼리 공기놀이, 돌로 그림 그리기, 돌에 그림 그리기)을 보고, 돌 놀이터를 만들기로 한 장소 사진 위에 배치해보았다. 어떤 곳에서 어떤 놀이를 할 지 정하여 사진을 붙이고, 매직을 이용하여 그 놀이를 하려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지 표시를 하였다. 놀이영역을 모두 표시한 후 울타리, 문, 간판의 위치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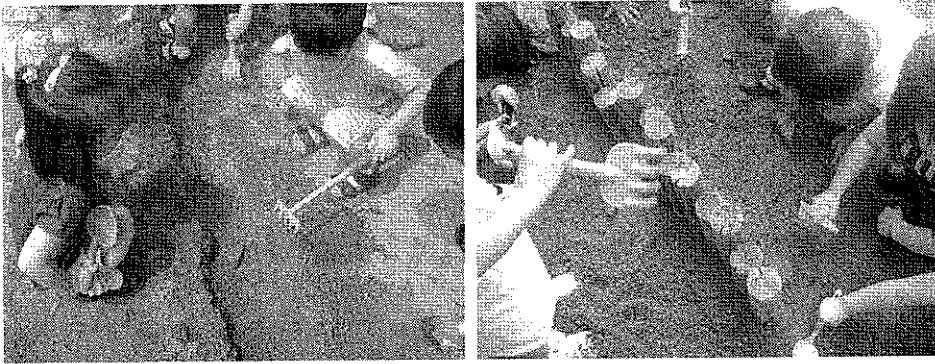
(돌 놀이터 설계도 만들기)

6. 돌 놀이터 크기를 정하고 울타리를 세워요.

돌 놀이터 설계도를 완성한 후, 유아들과 함께 직접 바깥놀이터에 나가 돌 놀이터의 크기를 측정해보았다. 설계도 속의 돌 놀이터를 만들려면 얼마만한 크기의 땅이 필요할지 가늠해보고 막대기를 이용하여 땅에 선을 그어 보았다. 처음에는 유아들이 자신이 서있는 주위의 땅 위에만 선을 작게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선을 보고, 그 속에 우리들이 계획한 모든 놀잇감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자, 유아들은 더 큰 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알맞은 크기의 땅을 정한 후, 드나들 수 있게 가운데 부분만 남기고, 양쪽으로 울타리를 세우기로 하였다.

울타리를 만들 나무는 유치원 정자 밑에 있는 사과 상자 나무 또는 아저씨와 원장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유치원에 있던 둥근 나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사과 상자 나무와 둥근 나무를 보며 유아들은 사과 상자의 나무는 가시가 많아 찔릴 수도 있고, 못도 뒹어 나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과 상자의 나무보다는 둥근 나무가 다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둥근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울타리를 세우기로 한 곳의 땅을 삽으로 파고, 울타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흙으로 덮어 주었다. 다 세운 후에도 손으로 흔들어 보고, 다음 날 바깥놀이터에 나가서도 흔들어 보면서 "선생님, 울타리가 흔들려요"하면서 울타리 주변을 발로 눌러 밟아 주었다.



〈돌놀이터 울타리 만들기〉

7. 돌 놀이터 놀잇감을 준비해요.

유아들과 울타리를 세운 후, 돌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었다. 유아들은 돌 놀잇감을 먼저 준비해야한다고 하여, 놀잇감을 준비하기로 하고 누가 어떤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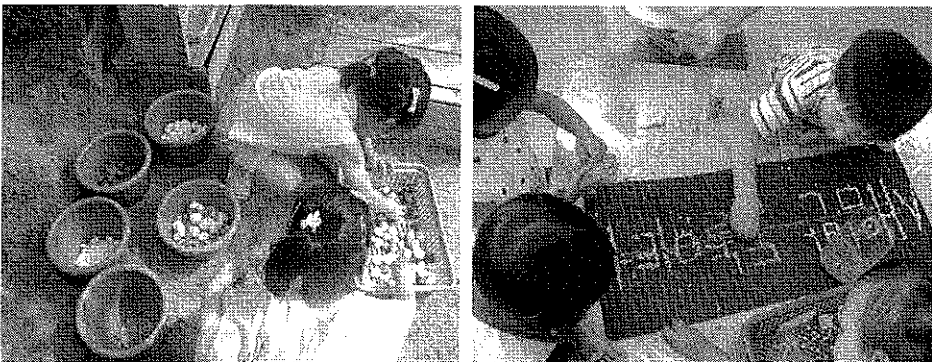
잇감을 준비하기로 할지 정해보았다. 놀잇감 준비 담당을 정한 후, 놀이시간에 그룹별로 놀잇감을 준비하여 놓고, 다 모여진 놀잇감을 다시 한번 유아들과 살펴본 후, 모두 돌 놀이터로 옮겼다.

옮겨 놓은 놀잇감을 설계도에 맞게 돌 놀이터에 구성해보았다. 놀잇감을 구성하다가 놀이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놀이영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놀잇감이 구성된 돌 놀이터를 보면서 그다음으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간판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간판을 만든 다음에는 형님들도 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놀이를 하는 곳인지 영역별로 놀이제목을 써주기로 하였다.

8. 돌 놀이터 간판을 만들어요.

유아들과 돌 놀이터 놀잇감을 준비한 후, 돌 놀이터 간판을 만들기로 하였다. 돌 놀이터 간판을 만들기 위해 유아들과 돌 놀이터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보았다. 어떤 이름으로 지으면 좋을지 유아들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정하기로 하였다. 유아들이 제안한 돌 놀이터 이름으로 "새엄마 돌 놀이터" "형님들과 함께 놀이하는 놀이터" "돌 놀이터" "상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는 놀이터" 등의 의견을 이야기 하였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유아들이 원하는 "새엄마 돌 놀이터"로 이름이 정해졌다. 간판은 돌 놀이터기 때문에 돌을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 큰 돌은 부겨워서 간판을 달기 어려우므로 작은 돌을 이용하여 간판의 글씨를 만들기로 하였다. 설계도를 보며, 완성된 간판을 어디에 달지 이야기를 나누고, 아저씨외 도움을 받아 간판을 달기로 하였다. 아저씨께서 유아들이 만든 간판에 낚시줄을 연결하여 나무에 묶어 주었고, 유아들은 아저씨께서 간판을 다는 모습을 보며 간판의 알맞은 높이를 아저씨께 알려드렸다.



<돌 놀이터 간판 만들기>

9. 돌 놀이터를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돌 놀이터가 거의 완성되어 가면서 유아들이 만든 돌 놀이터에 형님들이 많이 와서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돌 놀이터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다. "돌 놀이터를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자, 가람반 형님들이 지렁이 농장을 알리기 위해 만든 포스터와 지렁이 노래처럼 "돌 놀이터 포스터"와 "돌 놀이터 노래"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돌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지판"을 만들어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유아들과 함께 그룹을 나누어, 돌 놀이터를 알리기 위해 유아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편지, 포스터, 노래, 표지판을 만들었다.

10. 돌 놀이터가 완성되었어요.

돌 놀이터의 놀이감들을 이용하여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형님들이 알 수 있도록 놀이 이름과 놀이방법이 적힌 꽃말을 만들어, 놀이하는 곳에 꽃아 주었다. 또한 아지씨께서 돌 놀이터 울타리 앞에 돌 놀이터를 열심히 만든 새암반을 위하여 예쁜 꽃을 심어 주었다. 이에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터 앞에 꽃을 하나 더 심고, 소라와 나무토막으로 더 멋지게 꾸며 주었다. 또한 형님들과 놀이할 수 있도록 돌 놀이터를 깨끗이 청소하였다. 그 동안 비가 많이 와서 흙물이 많이 튀긴 놀이감과 화분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가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과 쓰레기를 주웠다.



새암반 돌 놀이터

돌맹이 던지기

돌탑 쌓기

돌 나누기



벽돌쌓기

코끼리 공기놀이

돌 악기 연주하기

돌에 그림그리기



돌로 그림 그리기

돌 징검다리

돌지압판 놀이

돌맹이 국끓이기

<완성된 새암반 돌 놀이터>

공유하기

1. 돌 놀이터를 알려요.

돌 놀이터가 완성되고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터를 알리기 위해, 원장선생님이 계신 교무실과 각 반을 방문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만든 편지와 포스터를 각 반에 가지고가 형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유아들이 개사하여 만든 돌 놀이터 노래를 형님들에게 불러 주기로 하였다. 또한 돌 놀이터로 가는 표지판을 유치원에 붙여 형님들이 돌 놀이터를 잘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새암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 놀이터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원장선생님과 각 반에 보낸 편지

안녕하세요?

돌 놀이터 표시 보고 놀러 오세요.

다음에도 표시보고 또 놀러 오세요.

계속 놀러 오세요.

돌 놀이터에 오면, 벽돌 쌓기, 돌 던지기, 돌 악기 연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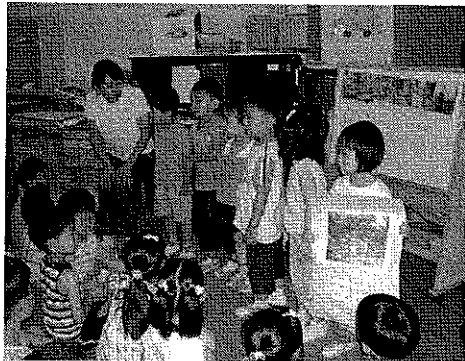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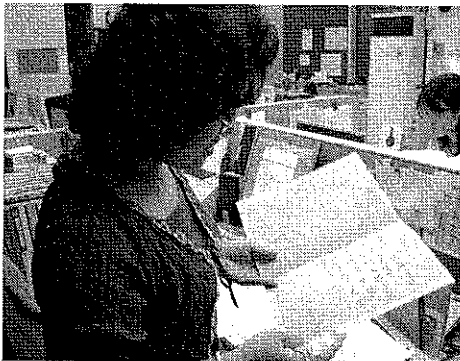
코끼리 공기놀이, 돌 징검다리 건너기, 돌 지압놀이,

돌맹이국 끓이기, 돌나누기, 돌로 그림 그리기,

돌에 그림그리기를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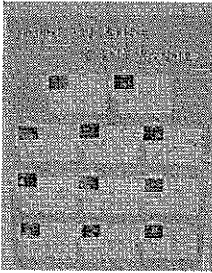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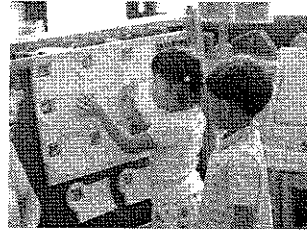
돌 놀이터에서 만나요.

- 새암반 어린이들 -



<원장님과 형님들에게 돌 놀이터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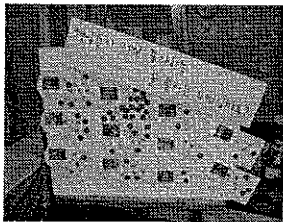
새암반이 제일 좋아하는
돌 놀이터 놀이는 무엇일까요?



돌 놀이터 인기 순위

1. 돌맹이 던지기
2. 돌에 그림 그리기
3. 벽돌 쌓기
4. 돌맹이국 끓이기
5. 돌지압판 놀이 / 돌 악기 연주하기

형님반이 제일 좋아하는
돌 놀이터 놀이는 무엇일까요?



돌 놀이터 인기 순위

1. 돌에 그림 그리기
2. 돌맹이 던지기 / 벽돌 쌓기
3. 돌맹이국 끓이기
4. 돌 악기 연주하기
5. 돌로 그림 그리기 / 돌 징검다리 건너기

3. 돌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돌 놀이터에서 형님들이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과 꾀말이 뽀뽀 있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돌 놀이터의 돌 던지기에서 친구가 돌을 주우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돌을 던지거나, 다른 놀이를 하는 돌맹이를 돌 던지기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을 적어 돌 놀이터에 붙여주기로 하였다.

돌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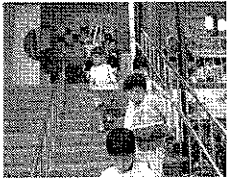



- 돌맹이는 돌 던지기 놀이 하는 곳에서만 던져요. 다른 곳으로는 돌을 던지면 안돼요.
- 돌 놀이터 놀잇감은 돌 놀이터에서만 놀이하세요.
- 놀이 후에는 꼭 제자리에 정리해주세요.
- 사과상자, 돌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요. 올라가지 마세요.
- 돌 놀이터 안의 놀잇감과 풋말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4. 돌 놀이터에서 전시회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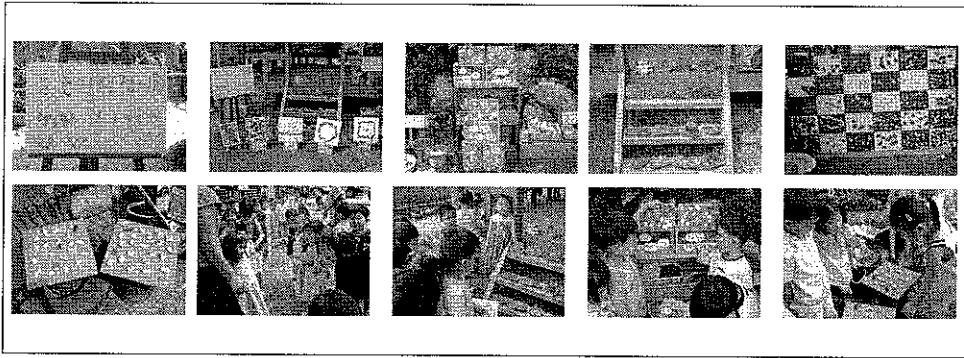
돌 놀이터가 완성되고 돌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서 새암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형님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유아들과 함께 돌 놀이터에 오는 사람들이 더욱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방법으로 돌 놀이터 전시회를 열어 보기로 하였다. 그동안 새암반에서 돌을 이용하여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어떤 작품을 전시할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우리들이 만든 벽돌", "돌 판에 그림 그리기", "돌을 여용하여 꾸미기", "동화책 속 장면 돌맹이로 꾸미기"를 전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돌 놀이터 전시회, 형님들도 오세요"라는 글을 쓴 간판을 만들고, 형님들이 전시회를 감상한 후 돌아갈 때 나눠 줄 선물도 만들기로 하였다. 간판은 우드락 판에 작은 돌맹이를 붙여 만들기로 하고, 선물은 돌맹이에 반짝이 풀을 칠해 반짝이는 돌로 만들기로 하였다.

돌 놀이터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의 경험을 여럿이 함께 충분히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돌 놀이터 전시회 준비를 해요

<p>작품을 옮기고 구성해요</p>		
<p>형님들에게 나눠 줄 선물을 만들어요</p>		<p>간판을 만들어요</p> 

종 놀이터 전시회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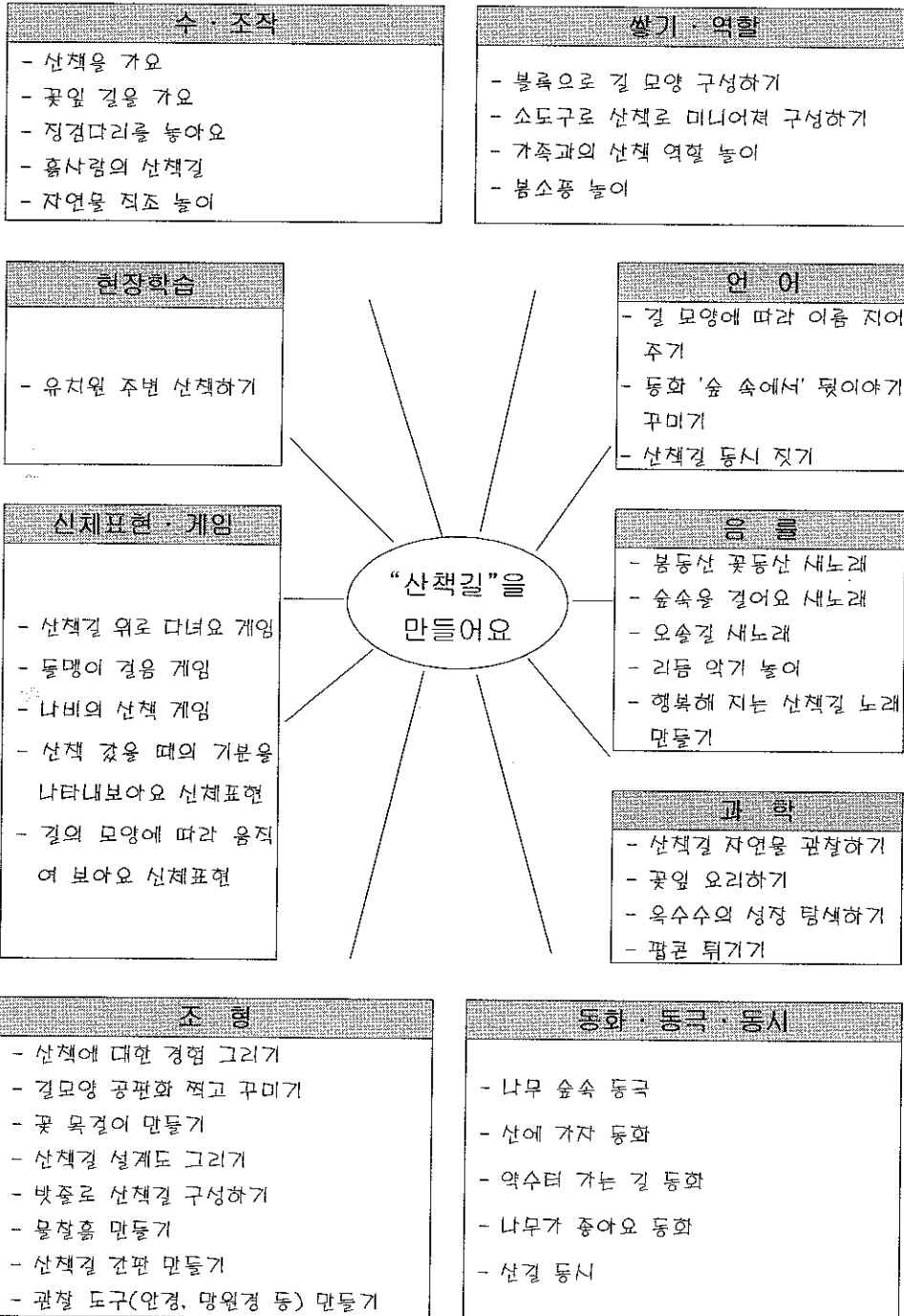


2) 산책길

1) 활동진행과정

단 계	활 동 내 용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이란? · 산책을 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길 모양 관찰하기 · 산책길에서 만난 자연물과 놀이해요 · 다시 만나는 산책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풍지에서 만나는 산책길 - 그림 속에서 만나는 산책길 - 그림책에서 만나는 산책길 - 게임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산책길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 산책길을 만들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정하기 - 만들고 싶은 산책길 토의하기 - 산책길 모양 정하기 - 산책길을 만들려면? - 산책길 바닥 구성하기 · 우리가 만든 산책길에서 무엇을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이 즐거운 산책길 - 코가 즐거운 산책길 - 귀가 즐거운 산책길 - 입이 즐거운 산책길 - 눈이 즐거운 산책길 · 오감이 있는 산책길을 꾸며요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으면 행복해지는 산책길을 알려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식구들에게 소개해주기 - 행복해지는 산책길 노래 만들어 알려주기 - 행복해지는 산책길 동시 짓기 · 행복해지는 산책길에 유치원 식구들을 초대해서 놀이해요 · 행복해지는 산책길을 관리하고 놀아요

(2) 산책길 만들기 연관활동안



(3) 산책길 만들기 활동의 실제

탐색하기

1. 산책이 무엇일까요?

주제 전개를 하기 전 '산책'의 의미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산책'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알고 있었다.

유아 : 바닷가에 가서 노는 거예요.

숲 속에 가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김밥도 먹는 거예요

산에 가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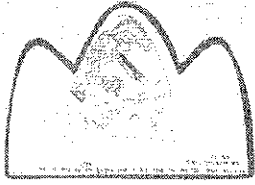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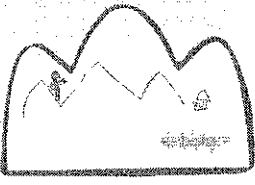
산 속에 가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나무가 주는 좋은 산소를 맡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땀에 질 앞을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유아들은 산책이라는 것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산책길의 범위를 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산책해 본 경험이 있어요.

유아들은 주로 어디에서 산책을 하고, 산책지에 가서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무엇을 할까? 아이들과 산책을 해 본 경험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p>아빠, 엄마, 오빠하고 나하고 산에 갔는데, 꽃이 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낮인데 바람이 쌩쌩 불어서 잠바입고 줄잡고 올라갔어요.</p>	<p>산에 가서 엄마랑 나랑 아빠랑 엄마 놀이 했어요. 오빠도, 내 가족만 살았어요. 집에서 가방에 소꿉놀이 가져와서 거기서 놀았어요. 풀 뜯어서 그릇에다 냄비에 다 넣었어요. 토끼도 봤어요.</p>	<p>산에 엄마랑 같이 가서 새가 나올 때 새를 봤어요. 그리고 새집도 봤어요.</p>

(산책에 대한 유아들의 사전 개념 그림)

유아들의 산책 경험 그림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며, 자연물로 놀이를 하고,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산책을 해보아요.

기대에 부푼 유아들과의 첫 산책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가면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을지 예측해보았다.

교사 : 우리가 산책을 가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까?

유아 : 산책을 가면 나무도 많고 꽃도 있을 것 같아요. 개나리꽃

산책을 가면 나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산책을 가면 토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책을 가면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나무가 주는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꽃 냄새도 날 것 같아요.

첫 산책이기 때문에 산책길 자체에 대한 탐색보다는 산책길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색의 식물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도 하고 자연의 내음을 맡으며 아름다움을 만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아들은 산책지에서 다양한 꽃과 나무, 새, 새집, 나비, 길가에 세워진 진동, 벤치, 작은 슈퍼, 놀이터, 운동 기구들, 산책 온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며 새집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삼청 공원의 경우, 지압길이 있는 산책길이 있는데, 아이들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압길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지압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신발을 들고 지압길을 함께 걸어보았다. 지압길은 주로 다양한 돌과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아이들은 새로운 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발바닥이 지압 되는 효과로 인하여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매우 즐거워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걸어 본 후, 지압길 밖으로 나와서 지압길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기어보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압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산책길에 발견한 커다란 새집에서 새소리를 들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첫 산책지에서의 태도에 대해 평가한 후, 다음 산책에는 보다 나은 태도로 산책을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산책길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다음 산책에는 '산책길과 산책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며 산책하기로 했다.



〈산책하기〉

4. 산책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유아들과 산책에 대해 '생각 모으기'에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 함께 가는 사람」 「토끼, 비둘기, 새, 벌, 나비, 물고기, 지렁이, 강아지 - 동물과 곤충」 「꽃, 풀, 나무 - 식물」 「걷기, 사진 찍기, 안아주기, 간식먹기 - 하는 것」 「정원, 갔다가 오는 길, 놀이터길, 높은 산, 연못, 들맹이, 하늘, 해, 새집, 비행기, 비, - 기타 볼 수 있는 것」 등 다양한 경험과 생각이 나타났다.

교사 : 너희들이 주로 산책을 간다고 했던 공원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유아 : 쉬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재밌는 느낌어요, 인라인도 타고요.

교사 : 나무가 많이 있는 숲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유아 : 밤이 되면 무서운 느낌이에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유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나무랑 꽃이 많아 좋은 느낌이 들어요

5. 어디로 산책을 갈까요?

우리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곳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생활 주변의 산책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 너희들이 어디로 산책을 다녀왔었니?

우리 시내반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기에 좋은 곳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유아 : 우리 집 뒤에 인왕산에 얼마큼 산책 갔었는데, 운동하는 곳도 있어요.
 새암반 때 산책갔던 곳어요. 둘(서오릉, 삼청 공원, 구기 터널 옆 공원...)
 언제 할머니랑 북한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자연사 박물관 뒤에 공원도 있어요. 돌담도 있고, 돌도 대개 많아요. (안산)

초기에 유아들이 가졌던 다소 포괄적인 산책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유치원 근처에서 직접 경험 가능한 산책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쉽게 접하고 유치원의 하루 일과 중 다녀올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공원이거나 숲을 산책하기로 하였다.

6. 산책길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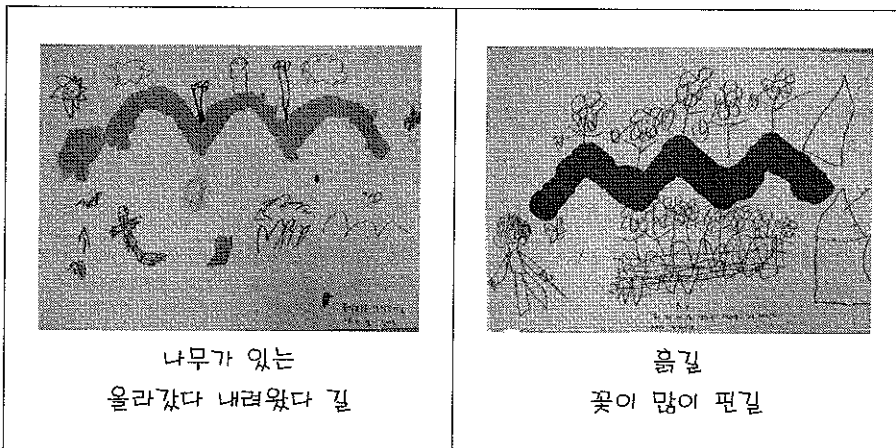
유아들과 삼청 공원 산책길을 회상하며, 길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 삼청공원의 길은 어떤 모양이었니?

유아 : - 쪽 가는 길이었어요.
 - 조금 구부러지기도 했어요.
 - 올라가는 길도 있었어요.

유아들과 여러 가지 모양의 선모양의 공판화를 보여주며, 어떤 모양인지 이야기 나눈 후, 길의 모양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여러 가지 선 모양 공판화 찍기를 한 후, 여러 가지 길 모양에서 일어나는 그림도 그려보았다.

또한 동화 '숲 속에서' 이야기를 들은 후, 동화 속에서 나오는 생쥐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생쥐의 마음이 산책을 하고 숲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변했는지, 숲 속에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상상하여 동화 뒷이야기를 지어보았다. 단, 뒷 이야기에는 유아들이 공판화 찍기를 했던 여러 가지 길(선)이 나오도록 지어보았다.



<길모양 공판화 찍기>

<숲속에서 동화>

생쥐가 '쭈글쭈글길' 을 걸어가다 가 백설공주를 만났어요. 생쥐는 원래 왕자님이었어요,

마녀할머니가 요술을 부려서 생쥐가 된 거였어요, 이쁜 공주님이랑 결혼하고 보보하면 왕자님이 되었어요,

생쥐가 백설공주랑 결혼해서 보보를 했어요, 생쥐는 칼을 들고 있는 왕자님이 되었어요,

왕자님이랑 공주님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골고루 잘 먹고, 속속 자랐어요, 왕자님은 속속 자라서 '엉덩이길' 을 지났어요,

엉덩이 길은 폭신폭신타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똥이 마려워서 조심조심 걸다가 똥이 부직! 나왔어요,

왕자님은 다른 길로 갔어요,

'네모길'은 딱딱하고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때 티라노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프테라노돈이 나타났어요, 왕자님은 공룡 가까이 가서 칼을 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프테라노돈은 날아갔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다른 공룡들이 와서 약 발라주고 싸우지 말라고 해서 왕자님이랑 친구가 되었어요

왕자님은 티라노사우루스 등에 타고 '미끄럼틀 길' 을 타고 승~ 집으로 돌아왔어요,

왕자님은 말 타는 것처럼 공룡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보게들 공룡이 착해졌어요" 했어요,

사람들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조금 무서워했지만 공룡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 아이들이 지은 동화 뒷 이야기 -

7. 산책길에서 볼 수 있어요.

유아들과 동화 '산에 가자' 를 함께 들어본 후, 동화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산책길을 걷다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 산책을 하다보면 산책길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유아 : 산책하러 온 사람들이랑 운동하러 온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물 뜨러 온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나무랑 꽃이랑 풀도 있어요.

토끼랑 다람쥐 청솔모 강아지도 볼 수 있어요

하늘이랑 구름도 볼 있어요. 비행기도 본 적 있어요.

자동차타고 산책길 가 본 적이 있어요.

화정실, 가로수, 벤치, 수피도 있어요.

8. 산책길과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산책길을 만들기 전 유아들이 산책길과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교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산책길과 어울리는 것들은 유아들이 쉽게 찾아서 매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산책길과 어울리지 않는 자료로 준비한 ‘오락실’, ‘노래방’ 등을 산책길과 어울린다고 이야기하는 유아들도 있었다.

유아 : 산책하다가 노래방에 들어서 노래를 하면 더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잖아
아니야, 문 닫아서 안 시끄러워.
그래도 산책은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산책길에 마어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들도 짹짹 놀래서 도망 가 버려.
나 언제 산책하다가 오락하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슈퍼에 가서 음료수도 사먹어 봤어요. 아이스크림도요.

요즘의 산책길이나 공원에 보면 사람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슈퍼나 음식점, 오락용 상점 등이 있어서 유아들이 산책길과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9. 산책길에서 여러 가지를 만났어요.

유아들과 덕수궁 산책길을 걸어보았다. 유아들은 산책길을 걷다가 걸음을 멈춰 돌멩이를 줍기도 하고, 발로 흙을 툭툭 차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주워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뭇잎을 주워 손에 들고 마냥 좋아하며 나뭇잎 모양의 생김새와 색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동화 ‘숲 속에서’의 이야기처럼 자리에 앉아서 나뭇가지 위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하고 바람 소리도 들어보았다.

유아들이 산책길에서 만난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비닐에 담아 유치원으로 가지고 왔다. 나뭇가지, 나무껍질, 돌멩이, 모래, 죽은 지렁이 등... 산책길에는 여러 가지 자연물들과 산책길 바닥을 구성하는 인공적인 재료인 타일 조각도 찾아볼 수 있었다.

유아들과 함께 산책길에서 주운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과학영역에 둔 후, 놀이 시간에 각 자연물들의 느낌과 색, 모양 등에 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었다.

10. 다시 만나는 산책길

유아들과 봄 소풍으로 일산의 ‘주주테마 동물원’을 다녀왔다. 황사 현상으로 인해 산책을 자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풍지에서도 산책길을 찾아 걸어보기로 했다. 소풍을 다녀온 후, 소풍지에서 걸어 다녔던 길에 대해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 우리가 동물원에 소풍 가서 어떤 길들을 걸어 다녔니?"

유아 : 동물원 가는 길어요. 풀도 많고 동물똥 냄새도 많이 났어요.

연못가는 길이랑 연못 건너는 다리요.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처럼 생겼어요.

원숭이장 가는 길어요. 길이 너무 좁고 모래가 많아서 바람불면 모래가 날렸어요.

물고기장 가는 길이랑 새장에 가는 길어요. 미로처럼 생겼어요.

교사 : 어떤 길이 가장 견기에 좋았니? 재미있었니?

유아 : 짐이 사는 데는 좀 더웠지만 밀림처럼 나무가 많아서 숲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연못 걸어요. 물고기도 다 보이고, 다리처럼 생긴 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또한 다양한 산책길을 느껴 보기 위해 그림 속에 있는 산책길을 작품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러 가지 그림 중 다양한 산책길 모양이 나타난 그림을 준비하여 유아들과 산책길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이 길을 걸어갈 때의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그 이외에 '나무 숲 속' 동화를 감상하며 동화책 속에 나타난 산책길도 탐색하고, 두 가지 모양의 산책길을 걸어가는 게임을 통해 여러 가지 산책길의 모양을 살펴보았다.

구성하기

1. 산책길 만들 장소를 정해요.

유아들과 바깥 놀이터를 둘러보며 산책길을 만들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소는 자연스레 작년 형님반에서 만들었던 산책길로 정해졌고, 다만 전과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바깥놀이터의 다른 놀이에 불편함이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형님반 산책길이었던 곳에 의자와 종이블럭으로 가상 산책길을 표시해 보기로 하였다.

교사 : 바깥 놀이터의 어디에 산책길을 만들면 좋을까?

유아 : 형님반 산책길 옆에고 다시 만들어요.

형님반 산책길 옆에 만들어요. 쌍둥이 산책길어요.

미끄럼틀에서 내려와서 형님반 산책길처럼 합체(연결)되게 만들어요.

교사 : 그러면 너희들이 뛰어 놀 때 불편하지 않겠니?

유아 : 아니요, 안 불편할 것 같아요.

돌아가면 돼요. / 넘어다니면 돼요.

산책길 중간에 끊어지게 해서 거기로 지나다니게 해요.

교사 : 그러면 우리가 산책길을 만들기 전에 너희들이 정한 장소와 모양이 산책하기에 좋고, 다른 형님반과 동생반 친구들이 놀이하거에도 좋은지 한 번 걸만들어보자. 무엇으로 만들어보면 좋을까?

유아 : 쌓기 놀이 벽돌 블럭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요.

의자도 놓아보아요

(의자와 블럭으로 길을 표시한다)

중간 중간에 블럭들을 빼서 아이들이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길을 모두 만든 후, 길 위를 자유롭게 다니고, 바깥놀이를 하듯이 뛰어 다니면서 놀이한 느낌을 물어보았다.

유아 : 미끄럼타고 내려오다가 산책길 만나니까 더 재밌어요.

미끄럼타고 내려오다가 산책길하고 부딪칠 뻔 했어요.

뛰어다니다가 산책길이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친구들이 모일 때 산책길을 부셔서 속상했어요.

모이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뛰어다니기에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 산책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국 형님반 산책길과 미끄럼틀, 계단이 연결된 산책길은 놀이 공간 부족과 이동의 불편함이 나타났고, 다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게 되었다.

교사 : 그러면 산책길을 어디에 만들었으면 좋을까?

유아 : 형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놀이할 때 방해되지 않는 곳어요.

조용한 데요.

나무랑 꽃도 볼 수 있는 곳어요.

동물도 볼 수 있는 곳어요.

2명의 친구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어요.

그러면 형님반 산책길을 바꿔서 다시 만들어요.

안돼. 그러면 형님들이 속상해해요.

그러면 형님반이 만든 산책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가 여기에 만들어요.

교사 : 그러면 형님반 산책길을 다른 곳으로 옮길만 한 곳이 어디 있을까?

유아 : 복도요 / 새암반 복도요 / 공수영정 앞어요 / 경당어요...

교사 :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

형님반 산책길을 옮기거나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의논하였다.

- 형님반에게 산책길을 옮기거나 없애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요.
- 형님반 산책길이 얼마나 긴지 재어 보아요.(종이 벽돌 블록으로 재기)
- 형님반의 산책길을 옮길 장소를 정해요(경당 - 원정선생님께 허락 받기 / 새암반 복도 - 새암반 선생님께 허락받기)
- 형님반의 산책길을 부셔주실 분을 정해요(버스 아저씨께 부탁하기)

2. 형님반 산책길을 철거해요

작년에 여울반이었던 형님들과 함께 모여 새로운 산책길을 만들기 위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 한 후, 산책길을 없애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다. 그리고, 산책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형님들이 생각하는 더 멋진 산책길은 어떤 것인지, 다시 만든다면 어떤 산책길을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위로 많이 올라가고, 밑에는 땅을 많이 파서 언덕처럼 만들어줘” “꼬불꼬불한 길처럼 만들어줘”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 “더 멋지게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였다.



<형님반 산책길 정리하기>

3. 어떤 산책길을 만들까요?

형님반 산책길이 없어지자 바깥놀이터 공간은 훨씬 더 넓어보였다. 그 공간에 어떤 산책길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유아 : 지압길처럼 나무도 있고 돌맹이도 있어서 멋있었어요.

올타리가 낮아서 실컷 뛰어다니고 산책길도 넘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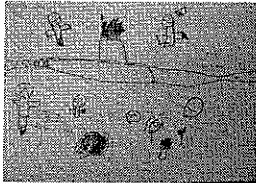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산책길을 만들어요. 옛날에 바깥놀이터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 올타리가 얼굴이 긁혔었어요

잔디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다치고 견지려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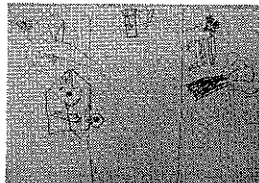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는 대로 올타리가 낮으면서 산책길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자연물 재료를 바닥에 놓아주고 잔디도 심어주기로 했다.

4. 산책길 모양을 정해요

유아들과 만들고 싶은 모양의 산책길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산책길 모양을 디자인할 때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 생각하기, 자신이 만든 산책길을 걸으면서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먹을 수 있는 것 등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기, 산책길 이름 생각하며 그리기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노래하는 산책길
나무도 있고 노랫말판과 표지판이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산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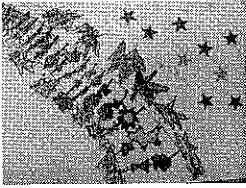


* 네모길
들어가면 나무와 풀과 의자가 있고 고양이도 볼 수 있는 산책길
(유아들이 그린 산책길 모양)



* 둥글게 둥글게 길
꽃이 있는 곳이 있고 고양이가 우유를 먹는 것도 볼 수 있고, 새둥지도 지나고 가운뎃 의자도 있는 산책길

유아들이 그린 그림 중 한 가지 모양의 산책길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모양의 산책길 중 대표적인 모양을 한 가지씩 정하여 ★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보았다. 가장 많은 유아들이 선택한 그림은 완만하게 굽은 모양의 길이었다.(예전의 산책길 모양의 비슷하였다.) 유아들이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산책길에 스티커를 붙인 유아들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의 그림이나 모양보다는 제시된 그림이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서 잘 그려 보이는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는 유아들이 많았다.



* 쪽 길 - 9명

바닥은 여러 가지 모양(하트, 꽃, 별 모양)의 돌맹이로 되어 있고, 옆에는 돌 그림이 있는 완만한 모양의 산책길. 돌 그림은 돌을 붙여서 만들 그림이다.

<유아들이 만들거로 정한 모양의 산책길>

5. 산책길 울타리를 만들어요

산책길 모양은 완만한 곡선의 모양으로 결정되었다. 형님반의 산책길 중 가장 불편했던 점은 높은 울타리로 인해 바깥놀이 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했던 것이었다. 공간 구분의 역할을 해주지만 높지 않은 빗줄을 이용해 울타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빗줄로 산책길 모양을 만들어보았다. 유아들은 지렁이 농장의 계단부터 시작해서 빗줄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빗줄을 놓다보니 그 빗줄과 빗줄의 간격이 넓어졌다 좁아지기도 하였다. 유아들과 빗줄로 만들어진 산책길 모양과 그 길의 간격을 보며 산책길 모양이 어떤지, 그 길을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 그러면 너희들은 몇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들고 싶니?

유아 : 한명어요 / 두명어요 / 5섯명어요 / 10명어요....

교사 :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지나다닐려면 산책길 크기는 어떻게 될까?

유아 : 더 커져요.

교사 : 그러면 우리가 놓이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될까?

유아 : 좁아져요.

교사 : 그러면 산책도 할 수 있으면서 놓어도 즐겁게 하려면 몇 명에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좋을까?

유아 : 한명어요

그러면 산책할 때 너무 심심하잖아

그러면 두명어요. 두명이 좋겠어요

교사 : 그러면 두명에서 다니는 산책길은 열만한 크기로 만들면 좋을까? 두 명에서 다닐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유아 : 두 친구가 손을 잡고 걸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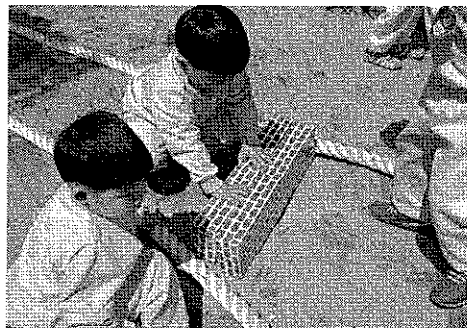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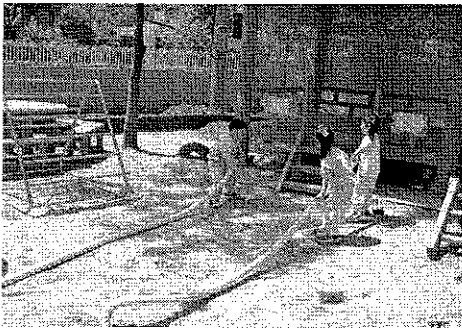
현 사람이 블록 하나만큼 하니까 블록을 두개 테이프로 붙여서 지나가봐요.

유아들과 산책길 모양을 구성한 후 블록을 두개 붙여서 지나가 보기도 하고, 두 명의 아이들이 손잡고 걸어보기도 했다. 간격이 맞지 않는 곳은 아이들이 블록의 양 끝 간격에 맞추어 더 넓게 하거나 더 좁게 빗줄을 이동시켜 산책길 모양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빗줄이 움

직이지 않도록 아저씨께 부탁해 못으로 박기로 했다.

유아들은 밧줄로 만든 산책길을 그냥 놔두고 가기 다소 불안한 모양이었다. “선생님, 우리가 만든 산책길 땅가지면 어떻게 해요”, “형님반이 바깥 놀이할 때 땅가질 것 같아요” “표지판을 세워요.” 그러나 표지판을 당장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은 밧줄을 땅 속에 숨겨두고 가자고 했다. 처음에는 주변의 흙으로 밧줄을 덮던 아이들은 점점 더 밧줄이 움직이지 않고 꼭꼭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더니 밧줄 밑의 땅을 파서 밧줄을 넣은 후 주변 흙으로 덮었다.

급식 시간이 다가와도 아이들은 흘러내린 흙 사이로 조금이라도 보이는 밧줄에 흙을 덮느라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흙을 다 덮은 후, 아이들은 밧줄이 보이는지 산책길을 걸어서 확인해보기도 하고, 모래로 숨겨진 산책길을 걸어가 보기도 하였다.



<밧줄로 산책길 모양, 폭 정하기>

6. 산책길 만들 재료를 준비해요

1) 유치원에서 산책길 만들 재료를 찾아요

산책길 바닥면을 구성할 여러 가지 재료를 찾으러 바깥놀이터를 둘러보았다. 형님반 산책길을 칠거하면서 나온 돌맹이 시멘트 조각과 여러 가지 크기가 다른 나무토막, 커다란 돌덩이들, 타이어 바퀴, 모래주머니를 찾아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모은 재료들을 산책길 위에 놓아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들이 모은 재료들을 산책길 위에 놓아보고 걸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구한 재료로는 산책길을 모두 채울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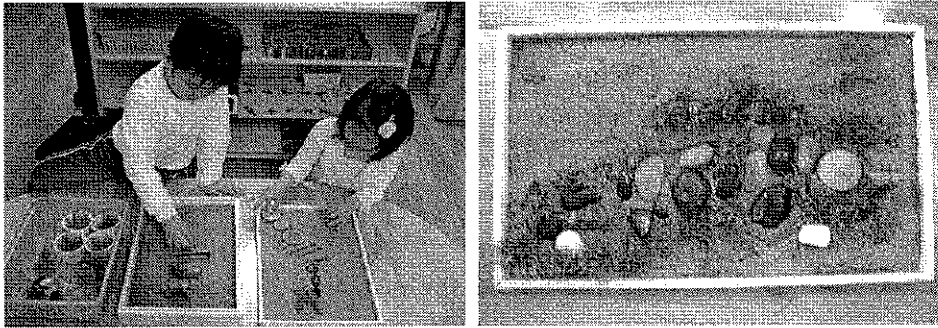
2) 공원에서 산책길 꾸밀 재료를 가져와요.

유아들과 함께 안산 공원을 산책하며, 산책길을 꾸밀 재료들을 더 찾아보았다. 커다란 나무기둥, 돌맹이 등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산책길 꾸밀 재료들을 찾았다. 그래서 공원에 계신

분께 허락을 받은 후, 여러 가지 산책길 꾸밀 재료들을 유치원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다. 가져온 재료들로 산책길을 꾸며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도 산책길 주변에 당에 붙여 놓기도 하고, 표지판도 만들어주기로 했다.

3) 산책길 미니어처를 꾸며보아요

유아들과 함께 산책길을 구성하기 전에 작은 상자에 모래를 넣고, 아이들이 산책길을 꾸미기 위해 준비했던 재료들을 작은 크기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노끈을 이용하여 유아들이 구성한 산책길 모양으로 놓았다. 교사가 준비한 산책길 미니어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 알아본 후, 수 조작놀이 영역에 제시하였다. 아이들이 준비한 다양한 재료들로 산책길을 구성한 것을 사진으로 찍은 후, 벽면에 게시하여 유아들이 만들고 싶은 산책길을 정하였다.



〈산책길 미니어처 만들기〉

7. 산책길 바닥을 꾸며주어요

1) 여러 가지 자연물로 바닥을 꾸며요

여러 유아들이 산책길 미니어처를 구성한 사진을 보며 정한 산책길 바닥면은 나무토막→돌맹이→형님반 돌맹이 시멘트길→나무토막으로 꾸며주기로 했다. 유아들과 함께 바깥 놀이터로 나가 선택된 미니어처 사진을 보며 산책길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재료들을 놓아보니 재료들 각각의 간격에 따라 모든 재료를 놓아보았는데도 빈공간이 남게 되었다. 아이들은 재료들의 간격을 더 벌려 넓게 넓게 놓자고 하며 재료들의 간격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래도 산책길이 끝나가는 길에 재료를 놓아야 할 공간이 조금 남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치원을 둘러보며 산책길 바닥을 구성할만한 또 다른 재료를 찾으러 갔다. 그러던 중 모래주머니를 발견해서 모래주머니를 산책길 맨 끝부분에 놓기로 했다. 그러면 남은 공간에 모래주머니가 몇 개나 들어갈지 예측해보았다. 주머니에 모래를 채운 아이들은 모래주머니를 산책길 맨 끝부분에 놓았으며, 모래주머니는 모두 8개가 들어갔다. 드디어 모래주머니를 산책길에 놓은 후, 산책길 바닥 구성하기는 완성되었다. 아이들과 산책길 바닥 구성하기를 끝낸 후, 산책길 둘러보기도 하고 함께 걸어도 보기도 하였다.

교사 : 산책길을 걸어가 본 느낌이 어떠니?

유아 : 흔들흔들 재미있었어요.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낮아요.

돌맹이가 움직여서 떨어질 것 같아요.

동생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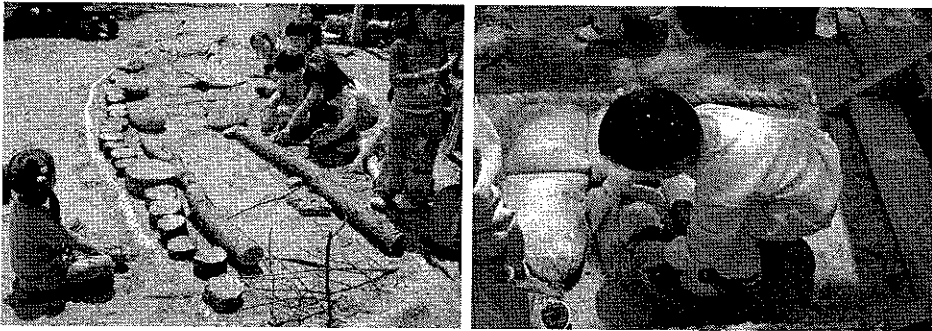
교사 : 산책길을 경험반과 동생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다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아 : 움직이지 않게 해요.

땅을 파서 움직이지 않게 묻어요.

흙으로 덮어요

유아들과 이야기 한 대로 땅을 파서 그 재료가 있던 곳에 높이를 맞추어 놓았다. 유아들이 완성한 산책길을 다시 걸어가 보면서 걸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을 알아보고 그 곳의 땅을 다시 파서 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 그 길이 망가지지 않도록 산책길이 모두 완성되기 전까지 산책길에 들어 못하게 표지판을 세우자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놀이하다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 간지럽게 해주는 '잔디'를 심어 주기로 했다.



<산책길 바닥꾸미기>

2) 잔디를 심어주세요

유아들이 이야기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산책길을 만들기 위해 잔디를 심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잔디를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며, 잔디를 관찰해보았다. 그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를 초빙하여 잔디 심는 방법을 배운 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잔디를 심었다.

(잔디 심는 방법 : 땅파기→잔디 심을 곳에 잔디 올려놓기→흙으로 덮기→발로 밟기→물주기)

아이들은 잔디 심은 길을 걸어 다녀보기도 하고, 잔디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발로 짹짹 밟아주고 물을 주는 당번을 정해서 물을 주기로 하였다.



〈산책길에 잔디 심기〉

8. 하늘바라기 뜰로 가는 길을 만들어요

유아들이 산책길을 모두 완성할 무렵, 바깥놀이터의 한편에 형님반(파다반)의 하늘바라기 뜰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늘바라기 뜰을 갈 때, 산책길 옆으로 걸어가거나 산책길을 지난 후, 산책길을 넘어 하늘바라기 뜰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산책길 초입에 작은 연못이 생기면서 하늘바라기 뜰로 가는 길이 좀 더 좋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하늘바라기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 산책길로 가다가 어떻게 하늘바라기 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유아 : 우리가 하늘바라기 뜰로 가는 길을 만들어줘요

교사 : 하늘바라기 뜰로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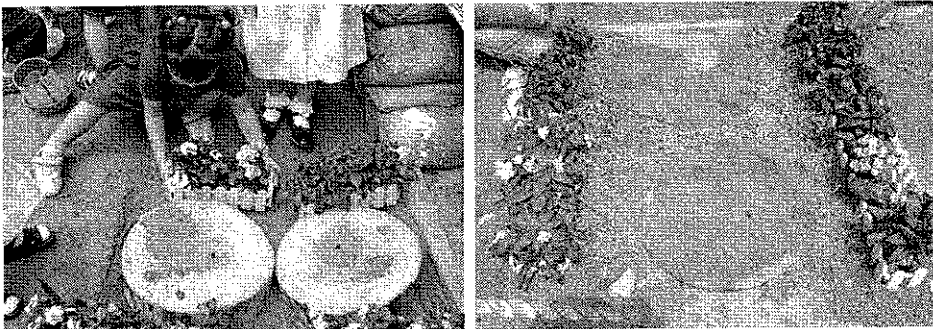
유아 : 산책길처럼 나무토막도 넣고요.

잔디도 심어요. 다치지 않게요.

하늘바라기 뜰에 꽃이랑 풀그림이 있으니까 옆에 꽃도 심고 풀도 심어줘요

그리고 하늘바라기 뜰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표지판도 세워요.

하늘바라기 뜰로 가는 길은 그 길의 길이가 짧고, 산책길을 구성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쉽게 만들 수 있었다.



〈하늘바라기 뜰로 가는 산책길 만들기〉

공유하기

1. 산책길 잔디에 대해 유치원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유아들과 산책길을 구성하던 어느 날, 누렇게 변한 잔디를 발견하였고, 그 이유가 산책길을 걸을 때 잔디밭을 밟거나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할 때 산책길과 잔디밭을 마구 밟고 가는 다른 유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하는 친구들에게 잔디를 밟지 말라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결국 편지를 써서 전체 모임 시간에 알려주기로 했다.

<시내반이 산책길의 잔디밭에 대해 유치원 친구들에게 쓴 편지>

상당 유치원 여러분들
시내반이 만든 산책길 잔디를 밟지마
잔디가 썩고 아파. 잔디가 우리를 밟으면 아프잖아
잔디를 사랑해줘! 물도 줘~
산책길을 지나갈 때는 나무토막하고 돌멩이만 밟아
. 아니면 점프해서 다녀.
잔디를 밟으면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 잔디 가슴도 아프잖아
거인이 밟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좋잖아
산책길도 예뻐져.
우리 예쁜 산책길에서 재밌게 산책하자..... 안녕

시내반이...

2. 우리가 만든 산책길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즐거워 자연놀이터인 산책길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었다.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산책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야기되었다.

교사: 산책길에서 어떤 냄새를 맡고 싶니?

유아: 꽃냄새 맡고 싶어요

교사: 산책길에서 무엇을 봤으면 좋겠니?

유아: 나무를 봐요 / 꽃도 봐요 / 나비도 봐요 / 하늘바라기뿔로 가는 길로 가서 하늘도 봐요

교사 : 산책길에서 손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유아 : 물찰흙 놀이해요. 물어랑 흙어랑 넣어서 물찰흙을 만들어요

교사 : 너희들은 산책길에서 무엇을 먹고 싶니?

유아 : 맛있는 것도 먹어요. 아이스크림이요 / 물이요 / 사탕이요 / 초콜릿이요

교사 : 그러면 산책길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니?

유아 : 새소리요 / 새도 잡아와서 키워요

바람 소리요

악기 소리요. 우기가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 소리도 들어요. 악기 연주도 해요

교사 : 우리 몸이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서 즐겁게 산책해보자

3. 오감이 있는 산책길을 만들어요

1) 손이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요

유아들과 물찰흙을 만들기 전에 웅기토 흙덩어리를 유아들에게 준 후, 자유롭게 만지고 탐색해보게 하였다. 웅기토를 주물럭주물럭 하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다가 “이젠 물을 넣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해요” 하여 유아들의 요구대로 물과 커다란 웅기를 주었다. 유아들이 손으로 물과 웅기토를 섞을 때마다 물의 색의 달라짐과 웅기토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찰흙을 만들기 위해 물찰흙을 만드는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밭로 밟아요” “갯벌에서처럼 밟로 밟아서 갯벌 흙처럼 만들어요” 아이들은 생각대로 밟로 물찰흙을 만들기 전에 밟로 목찰흙을 만들 때 필요한 규칙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 * 양말 바르게 벗어 정리한 후, 배지를 무릎 위로 올리기
- * 준비된 판에 2명씩 들어가기
- * 찰흙이 물과 함께 있으므로 매우 미끄러우므로 주변 친구들이 옆에서 잡아주기
- * 물찰흙을 밟로 밟는 느낌 생각해보기
- * 다양한 방법으로 물찰흙 밟아보기
- * 물찰흙 만들기가 끝나면 선생님이 안아서 화장실에 데려다주기
- * 화장실에서 발 씻기
- * 바르게 양말 신기

유아들은 손으로 물찰흙을 만드는 것보다 밟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물 속에 어느 정도 웅기토 넣어리를 담가 두는 것이 보다 쉽게 물찰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성된 물찰흙을 어떻게 산책길에 갖다 놓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결국 상자를 만들어 비닐을 씌운 후 담아두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물찰흙으로 할 수 있는 놀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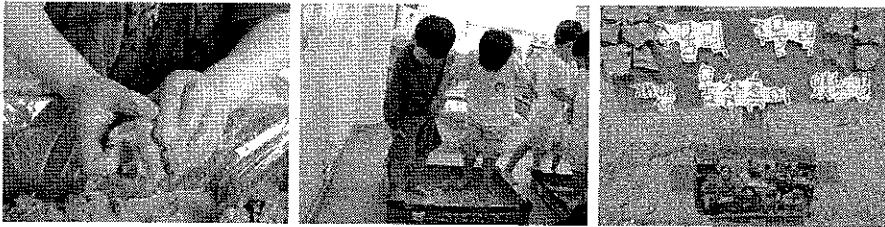
- * 물찰흙 주무르기
- * 음악에 따라 두드리기
- * 손바닥으로 평평하게 만들기 & 손바닥 찍기

- * 뭉치기 & 뭉쳐서 물찰흙 위에 던지기
- *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 모양틀로 모양 찍기
- * 그릇에 담기 & 퍼내기 & 쏟기
- * 채에 담아 놓아하기
- * 손가락으로 글씨나 그림 그리기

〈'주물럭 주물럭 재밌는 물찰흙이 있는 길' 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

- 여러 가지 물찰흙 놀이 방법 알려주기
- 물찰흙 놀이 후, 정리 방법 알려주기
- 친구들이 놀이 후 정리 안된 것 정리해주기
- 물찰흙이 딱딱해지면 물을 부어 굳지 않게 하기
- 물찰흙 놀이 후, 물 바꾸어 주고 더러워진 수건 바꿔주기
- 물찰흙 도구 놀이 후 닦아주기
- 물찰흙이 많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기

유아들은 협의 끝에 손이 즐거운 산책길의 이름을 '주물럭 주물럭 재밌는 물찰흙이 있는 길'로 정하고 간판을 만들어 붙여주었다.



〈주물럭 주물럭 재밌는 물찰흙 길 만들기〉

2) 코가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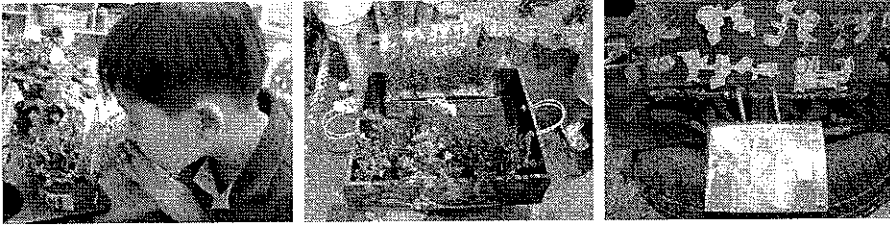
유아들이 이야기했던 코가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기 위해 꽃을 무지개처럼 놓고 꽃냄새를 맡아보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학기 초에 '자기 화분에 물주기' 활동 때 가져왔던 꽃들 중에 무지개색깔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무지개 색을 찾기 위해 화분을 모아놓고 무지개 색에 따른 분류작업을 하였다. 모인 꽃들은 빨강, 노랑, 분홍, 보라색, 흰색 등 무지개 색 이외의 꽃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있는 것만 가지고 배치하기로 하였다. 초록 잎만 가진 히브는 긴 화분에 심고, 나머지 색깔의 꽃은 화분채 그대로 놓기로 하였다.

그리고 꽃냄새를 맡을 때의 방법과 관리 방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록달록 꽃냄새가 있는 길'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

- 산책길에서 친구들에게 꽃이름 알려주기
- 친구들에게 꽃냄새 맡는 방법 알려주기
- 어떤 냄새가 나는지 물어보기
- 화분에 물주기
- 시든 꽃잎 정리해주기

유아들과 협의하여 '알록달록 예쁜 꽃냄새가 있는 길'로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만들어 달아 주었다.



<알록 달록 꽃냄새가 있는 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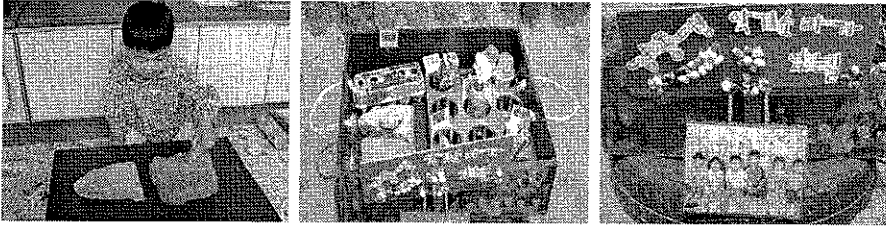
3) 귀가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요

유아들이 이야기했던 귀가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악기를 소개하고 탐색 하였다. 산책길과 어울리는 악기와 소리를 찾아보고, 산책길에서 주운 자연물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보기로 하였다. 유아들이 만든 모든 악기를 산책길에 놓기는 어려워 아이들 뽑은 8가지 악기와 커다란 돌 두드리는 악기만 놓기로 하였다.

'똥똥똥 악기 소리가 있는 길'로 이름을 정하고, 악기 사진을 찍어 악기 이름과 함께 붙여주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악기소리가 있는 팀이 산책길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똥똥똥 악기 소리가 있는 길' 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 >

- 산책길에서 친구들에게 악기 이름 알려주기
- 친구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방법 알려주기
- 놀이하는 후 정리표시(사진) 보고 정리할 수 있게 알려주기
- 망가진 악기 다시 만들기
- 놀이 후, 정리 안된 악기 제자리에 정리하기



〈똥똥똥 먹기 소리가 있는 길 만들기〉

4) 입이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요

유아들은 입이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기 위해 옥수수를 심은 후, 옥수수가 열리면 옥수수를 따서 팝콘을 만들어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옥수수 모종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아직 작은 옥수수 모종에서 옥수수가 열리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매일 매일 옥수수가 얼마나 자라는지 알아보기 위해 옥수수 잎 크기를 재어 보기로 하고, 실로 그 길이를 재서 얼마나 자랐는지 그래프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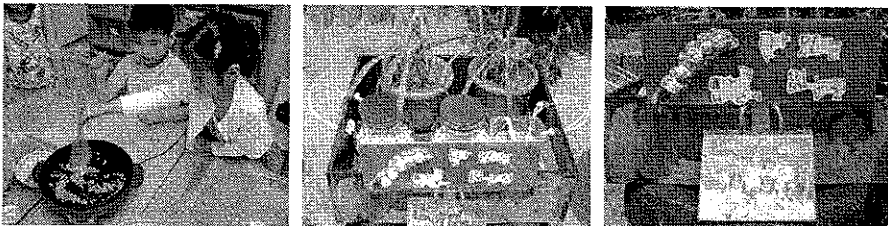
그러나 옥수수가 성장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것으로 팝콘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옥수수 알갱이를 구입해서 팝콘 튀기기를 하였다.

팝콘을 산책길에 두는 방법을 의논한 끝에 자신들이 바깥놀이를 하고 있는 시간에는 옥수수 팀 유아들이 팝콘을 나눠주고, 바깥놀이를 하지 않고 교실에 있을 때는 물수건을 준비해서 스스로 닦고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팝콘이 떨어지면 매일 놀이 시간에 ‘팝콘 만드는 영역’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는 옥수수팀 아이들이 팝콘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산책길에 준비해주기로 하였다.

‘맛있는 팝콘이 있는 길’로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만들어 붙여주었다.

<‘맛있는 팝콘이 있는 길’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 >

- 산책길에서 친구들에게 팝콘 주기
- 팝콘이 떨어지면 교실에서 팝콘 만들어 채워주기
- 옥수수 모종에 물주기
- 옥수수 잎 길이재기
- 옥수수 알갱이 만져볼 수 있도록 얘기해주기
- 놀이 후, ‘맛있는 팝콘이 있는 길’상자 안 정리해주기



〈맛있는 팝콘이 있는 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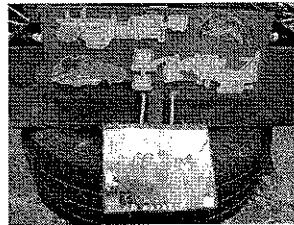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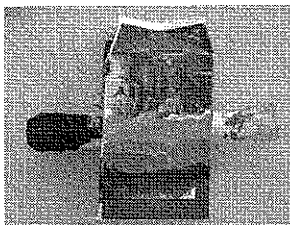
5) 눈이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요.

유아들은 눈이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기 위해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잇감을 만들 자고 하였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만들기 재료로 한쪽 눈으로 보는 물건, 두 눈을 이용하여 보는 물건, 손에 들고 보는 물건, 머리카나 얼굴에 끼워서 보는 물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만들기 재료 자체의 구멍을 이용하여 하늘을 볼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교사에게 구멍을 뚫어 달라고 하여 하늘을 볼 수 있게도 만들고 또는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물건인 망원경이나 안경형태로 만들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하늘바라기 물건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완성된 하늘바라기 물건에 각 물건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각 각의 하늘바라기 물건이 있는 자리를 표시해주고, 일주일에 한번씩 물건을 바꾸어 주기로 하였다. '하늘 바라기 물건이 있는 길' 상자에 넣을 때는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차례대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맨 밑에는 가장 크거나 긴 것을 넣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것을 놓기로 하였다.

'하늘바라기 물건이 있는 길' 로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만들어 붙여주었다.

〈하늘바라기 물건이 있는 길〉 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 >

- 하늘바라기 물건 이름 소개하기
- 하늘바라기 물건 사용방법 알려주기
- 놀이 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
- 놀이 후 정리 안 된 물건 정리하기
- 망가진 물건들 보수하기
- 형님반 하늘바라기 뜰에서 놀이 후, 우리반 상자에 정리하게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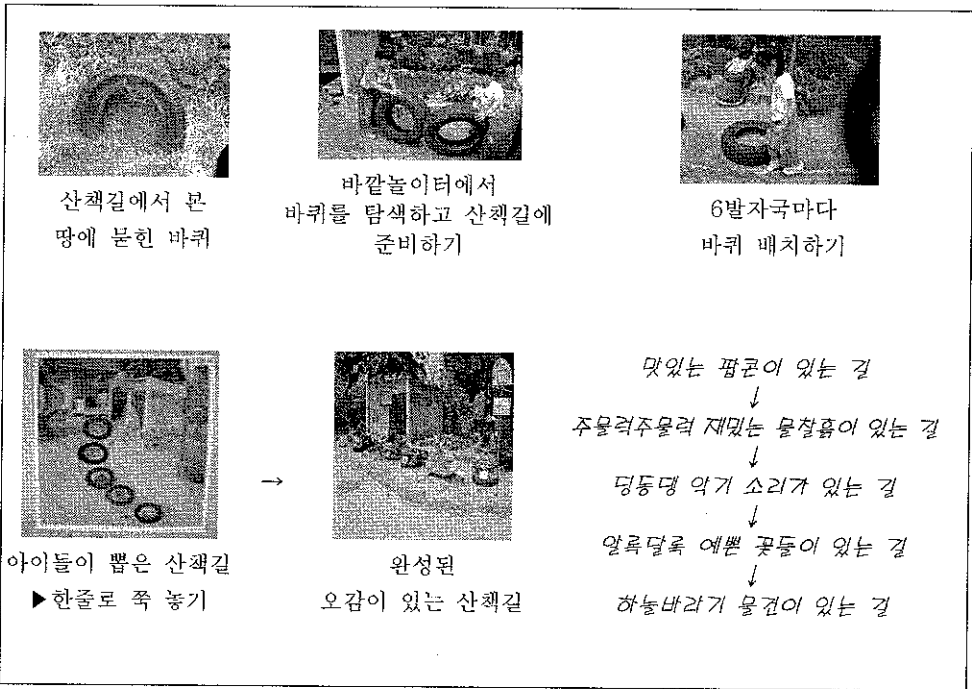


〈하늘바라기 물건이 있는 길〉

6) 오감이 있는 산책길 놓을 장소를 정해요

드디어 오감이 있는 산책길 상자가 모두 만들어졌다. 산책길에서 아이들은 다섯 가지 느낌이 있는 놀이 상자를 어디에 놓을지 이야기 나누었다. “산책길 하면서 놀이하니까 산책길 위에 놔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 “산책길 옆에 놔요” 아이들의 의견대로 바깥놀이터에 나가서 유아들의 의견대로 이곳저곳 자리를 바꾸어 가며, 오감이 있는 상자를 배치해보았다.

유아들은 옥수수 팝콘을 먹는 건 제일 재밌고, 산책길에서 놀이하며 손이 저저분해지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하여 팝콘이 있는 길이 가장 처음이 되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물찰흙 놀이와 돌악기 놀이를 하고, 하늘바라기 뜰에 가기 전에 하늘바라기뜰에 잘 어울리는 꽃냄새를 맡는 놀이를 놓고, 그리고 끝으로 하늘바라기 뜰 앞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물건을 놓기로 하여 오감이 있는 산책길이 완성되었다.



4. 산책길에 대한 동시 짓기

오감이 있는 산책길을 걸어간 후, 느낌을 동시로 지어보았다.

행복해지는 산책길

시내반 어린이들 지음

알록달록 산책길 향기로운 길
코를 쿵쿵 코를 벌렁
알록달록 예쁜 꽃 냄새 맡는 길

쿵쿵 쿵쿵 들맹이 약기가 있는 길
손을 흔들 손을 쿵쿵
딩동댕 약기 소리가 있는 길

울퉁불퉁 팝콘 먹는 길 바스락 바스락 길
입을 오물, 입을 찹찹
얌냠 맛있는 팝콘 먹는 길

하늘을 바라보는 길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길
눈을 크게, 눈을 번쩍
하늘바라기 물건이 있는 길

주물럭 주물럭 재밌는 놀이 물찰흙이 있는 길
손을 주물, 손을 주물
주물럭 주물럭 재밌는 물찰흙이 있는 길

향기로운 산책길, 아름다운 산책길
맛있는 산책길, 재밌는 산책길, 소리 나는 산책길
행복해지는 산책길

5. 산책길에서 할 수 있는 놀이

1) 산책길 위로 다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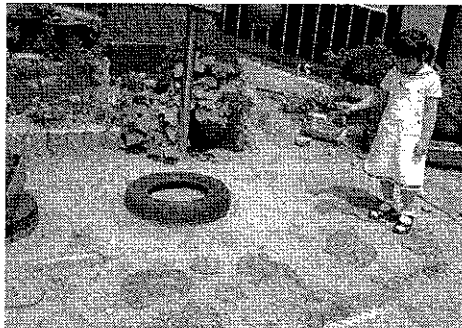
- ① 출발선 산책길 시작하는 등근 나무토막에 두명의 유아가 선다.
- ② 출발 신호에 따라 잔디를 밟지 않고 산책길 끝까지 먼저 갔다 오는 유아가 이기는 게임



<산책길 위로 다녀요 게임>

2) 돌맹이 걸음

- ① 먼저, 자신이 게임 말로 사용할 돌맹이를 한개 산책길에서 주운다.
- ② 출발선에 선다.
- ③ 순서를 정한 후, 이긴 유아가 산책길 안으로 돌맹이를 던져 산책길 안으로 돌맹이를 던지다.
- ④ 돌맹이가 산책길 안에 떨어지면 그 만큼 이동할 수 있다. 돌맹이가 산책길 밖으로 넘어가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 ⑤ 산책길 끝까지 먼저 도착하면 게임이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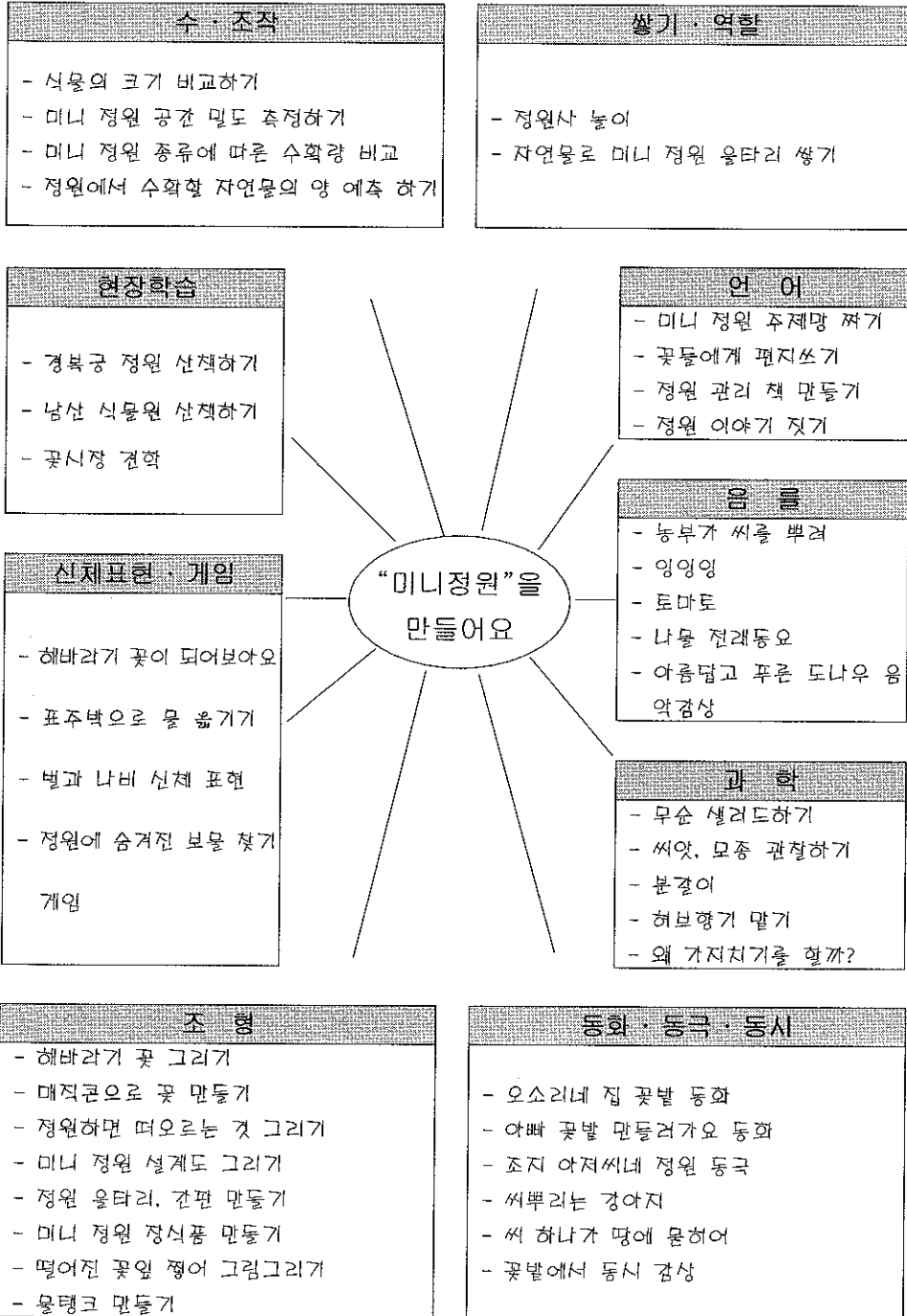
<돌맹이 걸음 게임>

3) 미니 정원

(1) 활동진행과정

단 계	활 동 내 용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정원을 산책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복궁 정원 산책 - 남산 식물원 정원 탐색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울반 미니 정원을 만들어요 · '오소리네 집 꽃밭'을 읽고 정원만들기를 토의해요 · 유치원에서 정원 만들 장소를 탐색해요 · 미니 정원 주제망을 구성해요 · 미니 정원 설계도를 그려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타리는 무엇으로 할까? - 미니정원에 또 무엇을 갖다 놓으면 좋을까? - 무슨 꽃을 심을까? - 각 꽃들은 어느 장소에 심어야 할까? - 간판은 어떻게 만들까요? · 미니 정원을 만들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시장에서 꽃모종과 씨앗 사오기 - 꽃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흙 만들기 - 꽃모종과 씨앗 심기 - 울타리 만들기 - 정원의 아래쪽 꾸미기 - 여울반 정원 간판 달기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기나는 정원'에서 놀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과 나비되어 놀이해 보기 - 정원 그림 그리기 - 허브 향기 맡기 - 떨어진 꽃잎 찢어서 그림 그리기 - 꽃들에게 편지쓰기 - 정원사 놀이 · '향기나는 정원'을 소개해요 · 미니정원에 문제를 해결해요

(2) 미니정원 만들기 연관활동안



(3) 미니 정원 만들기 활동의 실제

탐색하기

1. 꽃이 많은 곳이 있어요.

국어사전에 있는 정원의 정의는 “잘 가꾸어진 넓은 뜰”이다. 정원에 대한 주제를 시작하며 정원에 대한 아이들의 사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정원 그림을 보며 정원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 해 보았다. 아직은 정원이라는 곳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꽃이 많은 곳이에요.” “꽃과 나무가 있어요.” “꽃을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라는 식의 간단한 대답들을 하였다.

(정원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교사: 여기가 어디인 것 같니?

유아: 공원이요, 꽃밭어요. 집이요.

유아: 꽃이 많은 곳

유아: 꽃과 나무가 있는 곳

교사: 어떤 꽃이 있니?

유아: 노란 꽃이요, 빨간 꽃이요. 분홍색 꽃이요.

교사: 공원에 꽃밭을 왜 만들었을까?

유아: 예쁘라고요. 사람들 보고 보라고요.

교사: 이 정원을 누가 만들었을 것 같니?

유아: 집 주인이 만든 것 같아요.

교사: 이렇게 꽃이 많은 곳에 가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유아: 꽃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정원에 대한 유아들의 사전개념 그림>

2. 경복궁 정원을 산책해요.

유아들과 함께 정원을 느껴보기 위해 경복궁을 견학하기로 하였다. 돌과 나무기둥 등으로 울타리를 만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경복궁 정원에는 개나리와 민들레 등 우리에게 친근한 꽃 뿐 아니라 할미꽃, 제비꽃, 매발톱, 복수초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생화들이 서로 어우러져 피어 있다. 정원을 산책하며 아이들은 "어? 보라색 꽃이다." "진짜 진짜 작은 꽃이다."하며 꽃을 가까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잎사귀를 만져 보기도 하면서 꽃과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탐색하였다.

경복궁 정원을 산책한 후, 경복궁 정원에서 보았던 것들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면서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경복궁에서 무엇을 보았었니?

유아: 꽃을 봤어요.

유아: 나무도 봤어요.

유아: 풀도 있었어요.

교사: 또 정원에 뭐가 있었니?

유아: 돌로 만든 울타리도 있어요.

유아: 꽃봉오리도 있어요.

유아: 노란 꽃들도 있어요.

교사: 여기에 있는 팻말은 무슨 팻말이니?

유아: 무슨 꽃인지 알려주는 팻말이에요.



<정원 산책하기>

3. 남산식물원 정원을 둘러보아요

또 다른 정원의 형태를 느껴보기 위해 남산 식물원을 견학하기로 하였다. 남산식물원 견학은 열대 식물들과 선인장들이 있는 정원을 보고 색다른 정원의 여러 형태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마침 식물원내에 선인장을 파는 가게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선인장 화분을 구입하여 유치원에서 키워 보기로 하였다.

선인장을 잘 키우기 위해 책과 인터넷 등으로 선인장을 잘 키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선인장 키우는 법>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부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잘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물을 줄 때에는 뿌리까지 완전히 젖을 수 있도록 흠뻑 줘야 합니다. 보통 10일에 한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유아들과 함께 협의하여 선인장 달력을 만들어 10일에 한번 표시를 하고 물을 주며 돌보기로 하였다.



<선인장 달력>

구성하기

1. 여울반 정원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소리네 집 꽃밭”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오소리 아줌마처럼 정원을 만든다면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누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아이들은 오소리 아줌마처럼 여울반 친구들도 정원을 만든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재미있고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였다.

교사: 유치원에 정원을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

유아: 꽃/ 잔디/ 흙/ 풀/ 잔디/ 나무/ 정승/ 도깨비 정승/ 해님/ 울타리

교사: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정원에 꽃을 심는다면 어떤 꽃을 심고 싶니?

유아: 예쁜 꽃/ 나팔꽃, 분꽃 / 개나리꽃 / 봉숭아 꽃

교사: 봉숭아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봉숭아꽃은 뒤하는 꽃일까?

유아: 열 손톱에다가 막 물을 틀어요.

교사: 정원에 또 다른 것은 심고 싶은 거 없니? 혹시 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유아: 방울토마토 / 포도도 나무에서 따 먹어요.

유아: 우리가 경북공 정원에서 본 것처럼 조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아: 나무도 심었으면 좋겠어요.

유아: 울타리도 있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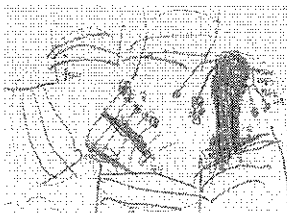
교사: 선생님은 언뭇도 있었으면 좋겠다.

유아: 그런데 나는 정원에 동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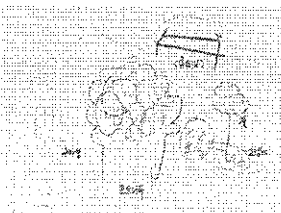
유아: 나는 새.

교사: 새도 있었으면 좋겠니? 좋은 생각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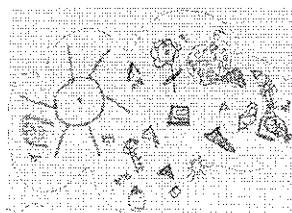
유아: 선생님! 꽃이요 마음속으로 신난다고 할 것 같아요.



<울타리, 잔디, 과일나무,
흙, 돌>



<울타리, 포도나무,
해바라기 꽃>



<천사, 해님, 조각상,
씨앗, 꽃>

2. 여울반 미니정원을 어느 곳에 만들면 좋을까요?

유치원에 여울반 미니정원을 만들기로 하고, 유치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원 만들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보았다. 유아들은 사람들이 잘 밟지 않으며 흙이 있는 곳이 미니정원으로 가

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작년에 꽃을 심었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직사각형의 흙 상자(화단)을 발견하였고, 그것과 화분을 활용해서 미니 정원을 꾸미기로 하였다.

교사: 여울반 정원을 어느 곳에 만들면 좋을까? 바깥놀이터에 만들까?

유아: 바깥놀이터는 안돼요. 친구들이 놀면서 정원을 꼭 밟을 수 있어요.

유아: 저기 오두막에 만들어요.

유아: 안돼, 거긴 흙이 아니잖아.

유아: 그리고 놀다가 저기로 가서 꽃을 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교사: 꽃을 흙에다 심어야 된다면 흙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네. 흙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유아: 저기 야채밭이요.

교사: 그런데 저기 야채밭에 우리가 심을 곳이 있을까?

유아: 없어요. 달님 차 아저씨가 오이랑 호박이랑 많이 심어 놔어요.

교사: 그럼 흙이 있는 다른 곳을 찾아보자.

(바깥놀이터를 살펴보고 현관 쪽으로 올라오다가 작년에 꽃을 심었던 벽돌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발견하였다.)

유아: 선생님, 저기애다 만들면 되겠어요. 저기 비닐 있는데요.

교사: 비닐을 치우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유아: 흙이 나와요. 지난번에 내가 살짝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비닐을 걷는다.)

교사: 우와, 정말 흙이 나왔네. 그럼, 여기애다 정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

유아: 네.

교사: 그런데, 여기는 조금 좁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유아: 그럼, 밑에도 심으면 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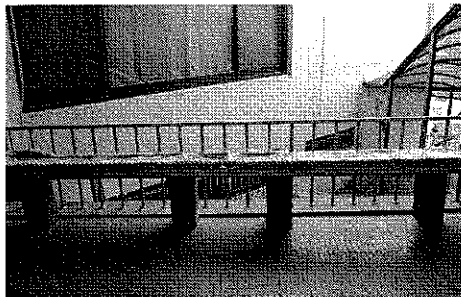
유아: 밑에는 흙이 없잖아.

교사: 그럼, 흙 말고 다른 것에 심으면 안 될까?

유아: 화분에 심으면 되잖아요. 지난번 경북궁에서 본 커다란 화분에 심으면 되잖아요.

유아: 밥그릇처럼 큰 화분이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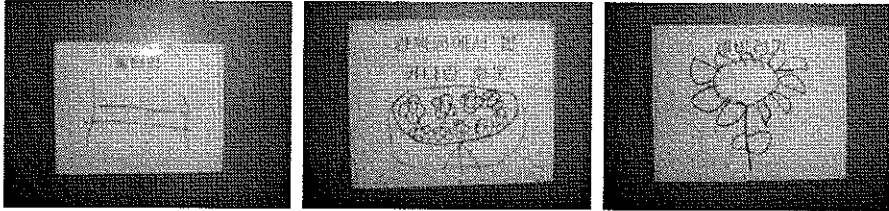
교사: 그럼 흙을 담은 그릇들로 아래쪽을 꾸며 보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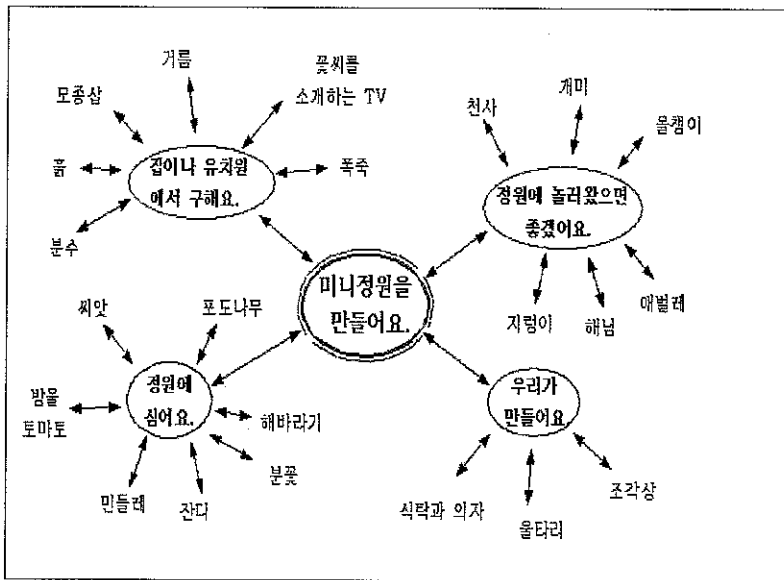
<미니정원을 만들기로 결정된 곳>

3. 여울반 미니정원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울반 미니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들과 함께 미니 정원 만들기 주제망을 짜 보았다. 아이들마다 작은 쪽지에 미니정원에 필요한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후, 그 쪽지들을 칠판에 하나하나 붙여 가며 공유하고, 유목화하여 주제망을 완성하였다.



<작은 종이에 표현된 아이들의 생각>



<유아들과 함께 짠 주제망>

4. 여울반 미니정원 설계도를 그려요

미니정원 만들기 주제망을 구상한 후에는 미니정원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도를 그려 보았다. 미니정원을 만들기로 결정한 곳의 사진위에 투명 OHP지를 덮은 후, 매직과 네임펜을 이용하여 설계도를 그렸다. 모두 4팀으로 나누어 설계도를 그린 후, 각 설계도에서 좋은 부분들을 뽑아 하나의 설계도로 완성하였다.

교사: 미니정원의 아래 부분은 무엇을 만들고 싶니?

유아: 분수요.

교사: 분수를 어디쯤 만들고 싶니? 가운데에 만들까? 이 쪽 끝에 만들까?

유아: 가운데요.

교사: 정원에 무슨 꽃을 심고 싶니?

유아: 나팔꽃이요.

교사: 나팔꽃은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정원의 어디쯤에 심는 것이 좋을까?

유아: 뒤쪽에 심어야겠어요.

교사: 너희들이 심고 싶은 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심을까?

유아: 막 섞어서 심으면 안 이뻐요.

교사: 그럼 정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꽃을 심으면 좋을까?

교사: 간판을 만든다면 어떤 곳에 간판을 달아야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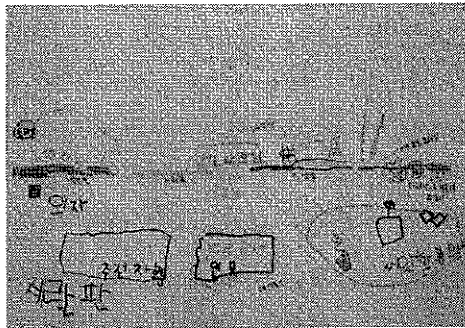
유아: (나무판자 위쪽을 가르키며) 여기요. 여기!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교사: 그럼, 간판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할까?

(이야기된 내용을 설계도 위에 표시한다)



<투명 필름을 이용하여 설계도 그리기>



<완성된 설계도>

5. 여울반 미니정원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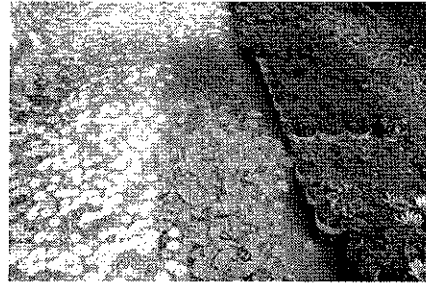
1) 꽃시장에서 꽃모종과 씨앗 사오기

미니정원 설계도가 완성된 후, 미니정원에 심을 꽃을 사기 위하여 꽃시장 견학을 하게 되었다. 꽃시장에서는 다양한 색의 꽃모종 뿐 아니라 오이, 호박, 상추, 방울토마토 등의 야채 모종을 팔고 있었고,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씨앗, 화분, 거름, 꽃 껌달, 돌 등의 물건들도 볼 수 있었다.

꽃시장에서는 설계도에 기초하여 노랑색 메리골드, 빨간색 베고니아, 하얀색의 마가렛트, 분홍색의 루피아 등의 꽃모종과 넝쿨로 타고 올라가는 오이, 콩 그리고 방울토마토 모종을 구입하였다.

형형색색의 꽃모종을 구입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정원을 다 만든 것처럼 좋아하였고, 꽃모종을 심을 생각에 설레는 모습이였다.

- 꽃시장에서 파는 것들: 꽃모종, 씨앗, 화분, 거름, 꽃 깃털, 장식용 돌, 철사 등
- 여울반 정원에 심을 꽃모종 종류 정하기
 - : 하얀색 “다아기렛”, 빨간색 “베고니아”, 노란색 “메리골드”, 보라색 “쿠파아”
 - : 향기 나는 허브 “로즈마리”
 - : 꿀을 먹을 수 있는 “사루비아”
 - : 냉quil을 만들어 타고 올라가는 “오이”
 - : 먹을 수 있는 열매 “방울토마토”, “강낭콩” “상추”



<설계도에 따른 꽃과 야채 구입하기>

2) 꽃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흙 만들기

꽃시장에서 사온 꽃모종을 미니정원에 심기 위해서는 정원에 흙이 필요하였다. 이야기나 누기를 통해 꽃을 심을 흙은 바깥놀이터의 모래나 다른 흙과는 달리 영양분이 많은 흙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을 알게 되었고, 기사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퇴비와 흙을 섞어 영양분이 많은 흙을 만들게 되었다.

교사: 어떤 흙이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흙일까?

유아: 깨끗한 흙 / 좋은 흙 / 부드러운 흙 / 말랑말랑한 흙

교사: 바깥놀이터의 모래에 꽃을 심으면 잘 자랄까?

유아: 아니요

교사: 영양분이 많은 흙은 어떤 흙인지 우리 유치원의 야채밭을 만드신 아저씨에게 여쭙 볼까?

야채 밭을 관리하는 아저씨를 초빙하여 어떤 흙이 좋은 흙인지 알아보고 아저씨와 함께 거름과 흙을 섞어 영양분이 많은 흙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교사: 아저씨 말씀대로 우리반 정원에 꽃을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떤 흙을 넣어야 할까?

유아: 영양분이 많은 흙이요. / 흙에다 거름을 넣어야 해요.

교사: 좋은 흙은 색깔이 어떠니? 냄새는 어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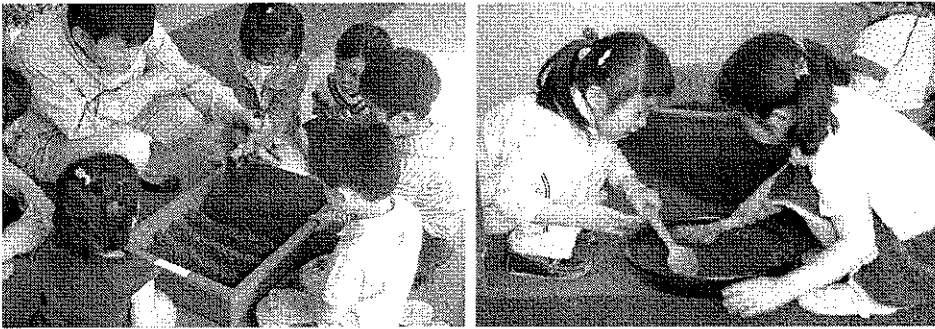
<좋은 흙에 대해 전문가에게 알아보기>

3) 꽃모종과 씨앗 심기

(1) 씨앗 심기

“아빠, 꽃밭 만들러 가요” 라는 동화에는 채송화, 해바라기, 봉숭아, 분꽃, 나팔꽃 등의 꽃씨를 아빠와 함께 심는 장면이 나온다. 꽃씨의 생김새 뿐 아니라 꽃이 되었을 때 어떤 꽃이 키가 크고 어떤 꽃이 키가 작은지 그래서 꽃밭에 꽃씨를 심을 때에는 어떤 차례로 꽃씨를 심어야 하는지를 아빠의 목소리로 자상하게 알려 준다.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 본 후, 꽃씨를 관찰해 보며, 씨앗마다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씨앗마다 심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각 씨앗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 씨앗심기를 하였다.

- 크기가 큰 경냥콩은 흙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어 하나씩 심는다.
- 크기가 아주 작은 물잔디 씨는 흙뿌리기를 한다.
- 성주씨는 굴을 파서 씨를 심는다.



<씨앗 심기>

(2) 꽃 모종 심기

정원에 흙도 가득 차고 드디어 꽃모종을 심게 되었다. 꽃시장에서 사온 꽃모종들은 키가 큰 꽃, 작은 꽃, 넝쿨로 올라가는 식물, 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식물 등 다양하였고, 각각의 특성을 생각하여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였다. 직접 심기 전에 꽃 모종을 흙 위에 놓아 보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았고, 한참 동안의 토의를 거쳐 각 꽃의 배치를 결정하여 그 배치대로 심었다.

교사: 가장 키가 큰 꽃은 어떤 꽃이니?

유아: 하얀 꽃이요

교사: 키가 큰 꽃을 앞에다 심으면 좋을까? 뒤에다 심으면 좋을까?

유아: 앞에 심으면 뒤에 있는 꽃이 안 보여요.

교사: 그럼, 키가 큰 꽃을 뒤쪽에 심어야 한다는 뜻이니?

유아: 네

교사: 이것은 오이인데, 꽃 시장의 아주머니께서 오이는 어떻게 자란다고 말씀하셨니?

유아: 아주 크게 자란대요. 그리고 막대기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교사: 그럼, 오이는 어느 쪽에 심으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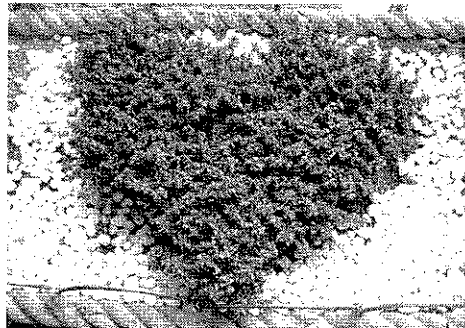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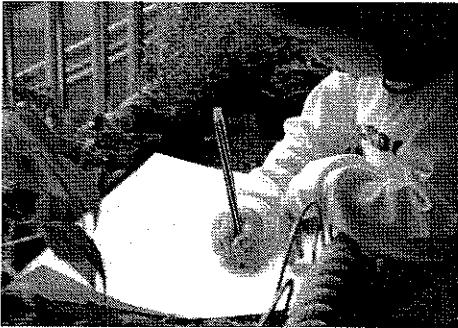
유아: 뒤쪽에요. 그리고 막대기 같은 것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꽃 모종의 키에 따라 화분구성하기>

(3) 하트모양으로 꽃 심기

설계도에서는 정원 중앙에 하트 모양으로 꽃을 심기로 하였다.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꽃을 심기에 적당한 꽃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았다. 꽃송이가 작고 보라색인 쿠베아 꽃모종이 그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결국 쿠베아를 심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화분의 폭에 맞게 하트 모양으로 꽃을 심으려면 몇 개의 꽃 모종이 필요한지 또 어떤 모양으로 심어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원에 종이를 놓고 하트모양을 그린 후, 그 종이위에 꽃모종을 하트 모양으로 놓아 보았다. 이 과정으로 9개의 꽃모종을 이용하여 하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을 발견하였고, 9개의 꽃모종을 하트 모양으로 심고 그 주변은 흰 돌을 깔아 장식하였다.



<하트 모양으로 꽃 모종 심기>

(4) 여러 가지 그릇에 꽃모종 심기

정원 아래 부분에는 흙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화분이나 그릇을 이용하여 꽃을 심기로 하였다. 우선 꽃모종을 심기에 적당한 화분이나 그릇들을 찾아보았고, 항아리 뚜껑, 기와장, 바구니, 페트병 등에 꽃모종을 심기로 하였다.

특히 찌그러진 주전자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화책을 본 후,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도 주전자에 꽃을 심어요." "냄비에 심어도 좋겠다."하며 화분대신 다른 폐품들을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못쓰는 냄비, 쓰고 남은 바구니 등이 멋진 화분이 되었다.



〈여러 가지 그릇에 꽃 모종심기〉

(5) 울타리에 허브 매달기

꽃시장에서 사온 꽃모종을 위쪽 정원에 다 심고 나니, 향기가 나는 허브 꽃모종만 남게 되었다. 심을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의하게 되었고, 허브가 심겨져 있는 화분이 가벼워서 울타리 부분에 매달기로 하였다. 울타리에 매달자 손으로 만지기에 딱 좋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브를 만지면서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울타리에 매달 허브 화분〉

4) 울타리 만들기

여울반 어린이들이 만든 미니정원 설계도에서는 미니정원의 울타리가 타원모양이었다. 타원 모양으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 우선 다양한 재료(돌, 나무기둥, 쇠, 벽돌 ...)들을 탐색해 보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재료로 굵은 철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굵은 철사는 쉽게 구부러졌다 퍼졌다 해서 아이들이 모양을 만들기에 아주 좋았다.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에는 철사로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 뿐 아니라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의 철사가 필요한지 측정하는 과정과 실제로 울타리를 정원에 고정시키는 과정까지 포함되었다.

(1) 무엇으로 울타리를 만들면 좋을까요?

교사: 우리가 울타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기로 했었니?

유아: 둥그런 모양이요.

교사: 그럼, 우리가 정원을 산책하며 보았던 여러 가지 울타리 중에서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유아: 나무요.

교사: 나무로 이렇게 둥글게 할 수 있을까?

유아: 안돼요. 뽕죽하게는 할 수 있겠다.

유아: 밧줄이요.

교사: 밧줄은 호물호물하잖아. 밧줄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

유아: 밧줄로 하면 이렇게 내려와요.

유아: 돌맹이로 해요. 돌맹이는 둥글둥글 하잖아요.

(철사를 보여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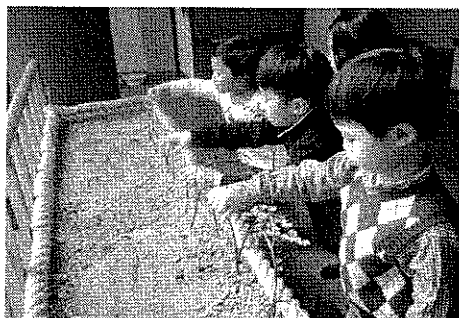
교사: 선생님은 너희들의 설계도를 보고 이것을 가져왔어. 무엇이니?

유아: 쇠요. / 그걸로 둥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유아가 철사를 구부려서 아치모양을 만든다.)

교사: 그럼, 철사로 만든 울타리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바닥에 그냥 놓으면 세워질까?

유아: 아니요. 쓰러져요. / 테이프로 붙여요. / 아니에요. 흙에다 꼭 심으면 안 쓰러져요.



<둥근 울타리 모양 만들기>

(2) 울타리를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철사가 필요할까요?

교사: 울타리를 만들려면 어떠한 철사가 몇 개나 필요할까?

유아: 조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쪽~ 저기까지 가야 하잖아요.

유아: 대개 많이 / 백 개요.

교사: 백 개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남으면 어떡하지?

유아: 세보면 되잖아요.

교사: 어떻게 세볼 수 있을까?

유아: 손으로요. / 철사를 놔 보면 돼요. / 자를 가지고 재요.

유아: 우리가요 철사로 꽃고 꽃고 또 옮겨서 꽃고 하면서 재 봐요.

(아치형으로 만든 철사 2개를 흙에 꽃은 후, 뒤에 있는 철사를 앞에 옮겨가면서 재는 방법)

교사: 필요한 철사의 길이만한 것으로 재어보면 어떨까?

유아들과의 토의를 거쳐 빵 끈을 필요한 철사만큼의 길이로 잘라 정원에 놓아보며 재어 보는 방법과 아치형으로 만든 철사 2개를 흙에 꽃은 후, 뒤에 있는 철사를 앞에 옮겨가면서 재어보는 방법 2가지로 얼마만큼의 철사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5) 정원의 아래쪽 꾸미기

정원의 아래쪽은 흙이 없어서 항아리 뚜껑, 화분, 재활용 그릇 등에 꽃모종, 상추, 물잔 디 등을 심어 꾸미고 유아들이 가져온 이야기 거리들인, 물레방아, 부레옥잠, 그리고 교실에서 가꾸어 온 선인장 등을 서로 어우러지게 배치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아래쪽 정원을 꾸미기로 하였다.



<정원 꾸미기>

(1) 아래쪽 정원에 나무 울타리 만들기

아래쪽 정원에 놓고 싶은 것들을 배치한 후에는, 바닥과 정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위쪽 정원에는 철사를 이용하여 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벽돌과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선 밧줄을 이용하여 어떤 모양으로 울

타리를 만들지 생각해 보았다. 바닥의 아래쪽에는 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로 나무판자를 대고 비닐을 깔아 물이 새지 않도록 하였고, 정원의 끝 부분은 나무 울타리로, 가운데 부분은 벽돌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나무 울타리는 나무판자에 못으로 박아 고정시켰고 벽돌로 만든 울타리 위에는 화분 조각들을 재활용하여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여 장식하였다.

(2) 조각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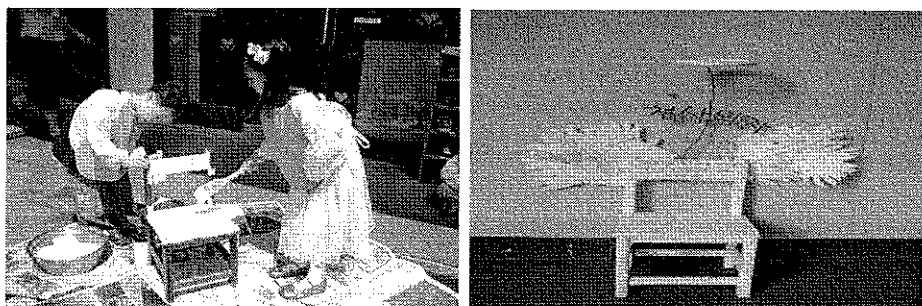
아이들은 경북궁 정원에서 보았던 조각상을 미니 정원에도 만들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돌을 깎아 조각상을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워 돌을 쌓아 조각상을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정원에 알맞은 크기의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먼저 알아보고, 조각상을 만들기로 하였다.



<조각상 만들기>

(3) 천사의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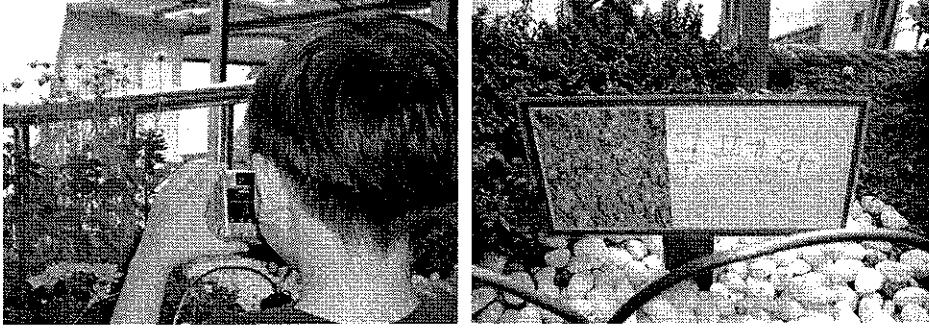
아이들은 설계도를 그릴 때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원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앉아서 쉬는 의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떤 의자를 만들면 좋을지 토의하였고 여자 아이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천사의자”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아이들은 천사는 하얀기 때문에 의자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자고 하였고, 날개를 달고 머리부분에는 링을 달아 앉으면 천사처럼 보이는 의자를 만들자고 하였다. 또한 앉았을 때 폭신할 수 있도록 천사방석도 함께 만들기로 하였다.



<천사의자 만들기>

(4) 꽃 팻말 만들기

아이들은 경복궁 정원을 산책하며 보았던 꽃 팻말(꽃의 이름과 특성, 그리고 재배하는 법에 대하여 안내한 작은 팻말)을 기억하고는 여울반 정원에도 꽃 팻말을 만들어 꽃자고 하였다. 꽃의 사진과 이름을 적어 꽃 팻말을 만들어 정원에 꽃으면 다른 사람들도 꽃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꽃 사진을 찍고 이름을 적어 꽃 팻말을 만들어 정원에 꽃기로 하였다.



<꽃 팻말>

6) 여울반 정원 간판 달기

정원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면서 여울반 미니 정원에 이름을 지어 주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천사의자를 생각하고 천사가 쉬어가는 정원이라고 이름을 짓자고도 하고, 꽃이 예쁜 정원,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 아름다운 여울반 정원, 향기 나는 정원 등으로 부르자고 하였다. 그 중에서 다수결에 의해 “향기 나는 정원”으로 정원의 이름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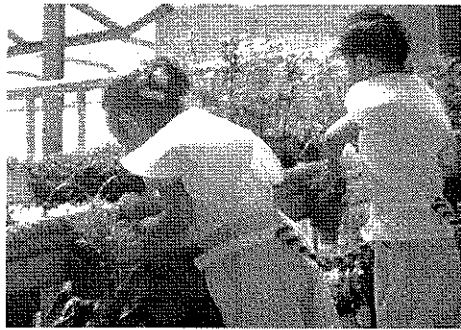


<미니 정원 간판>

6. “향기 나는 정원”에서 놀이해요.

1) 벌과 나비가 되어 향기 나는 정원을 날아 다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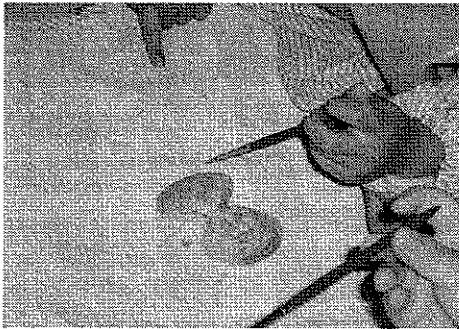
정원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자, “향기 나는 정원”에 누가 놀러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다른 반 친구들, 천사, 해님, 나비와 벌이 놀러왔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특히 나비와 벌이 우리 정원에 오면 어떤 기분일지 무엇을 할 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벌과 나비가 되어 정원을 날아다니며 벌과 나비의 기분을 느껴보기로 하였다.



〈벌과 나비 되어보기〉

2) 조개껍질로 나비 만들어 울타리 장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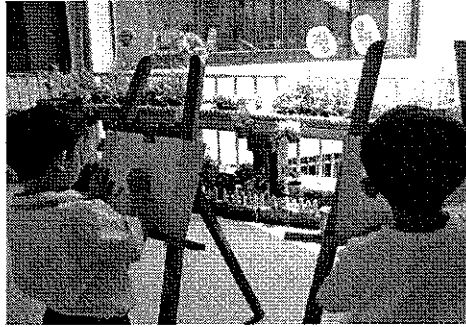
정원의 나무 울타리에 아무 장식이 없어, 아이들과 울타리를 장식하기로 하였다. 무엇으로 장식할지 토의하다가 나비와 벌이 우리 정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유아들의 이야기에 조개껍질로 나비를 만들어 울타리를 장식하기로 하였다. 조개껍질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하고 뿔 끈, 꽃 끈 등으로 더듬이를 만들어 나비를 완성한 후, 울타리이곳저곳에 장식하였다.



〈조개껍질 나비 장식〉

3) 정원에서 그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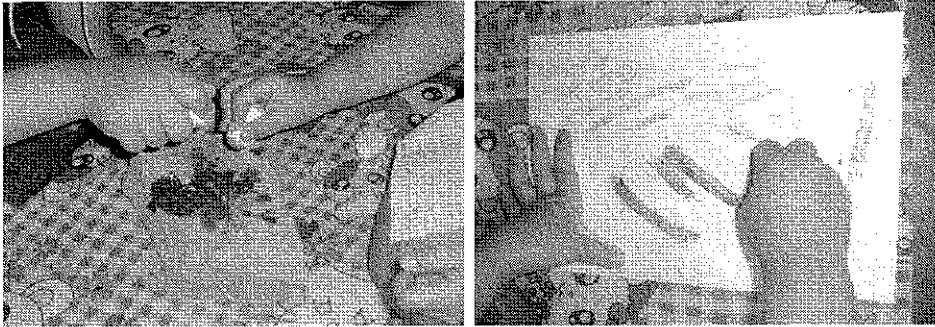
완성된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냐고 유아들에게 물었더니 "전사의자에 앉아 쉬고 싶어요.", "허브 향기를 맡을 꺼예요." "돛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 가지 씩 해보기로 하고 제일먼저 정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기로 하였다. 이젤을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를 하였더니 "와, 내가 화가네."하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였고 직접 만든 정원이어서 그런지 정성을 다해 정원의 모습을 도화지에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원에서 그림 그리기〉

4) 꽃잎 찢기

정원에 꽃들이 지기 시작하면서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다. 떨어진 꽃잎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의논하다가 꽃잎을 찢어 보기로 하였다. 꽃잎과 풀잎들을 돌맹이로 찢은 후, 그 찢은 즈음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보았다.



〈꽃잎 찢어 그림 그리기〉

5) 꽃들에게 편지쓰기

정원의 꽃과 야채들을 돌보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 보았다. 아이들은 "꽃아, 잘 자라라." 하고 이야기 해 주거나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고 하였다. 또한 꽃들에게 잘 자라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 주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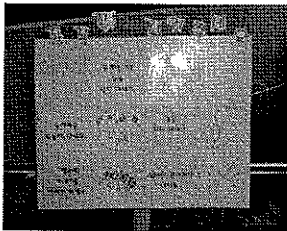
〈꽃들에게 편지 보내기〉

6) 정원사 놀이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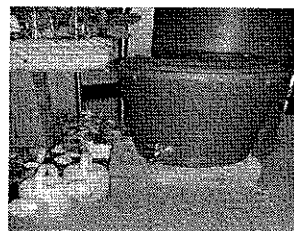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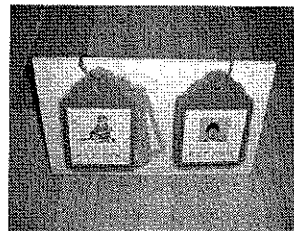
“조지 아저씨네 정원” 동화에 나오는 조지 아저씨의 직업은 정원사였다. 동화를 들은 후, 정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여울반 미니 정원에도 정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울반 정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목록을 만들고 매일 2명씩 돌아가면서 여울반 정원사가 되어 “향기 나는 정원”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정원을 관리하는 법에 대한 책을 만들 때에는 정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목록 뿐 아니라 각 꽃마다 다른 꾸는 법과 주어야 할 물의 양을 인터넷과 책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정원에 매일 매일 물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아저씨들의 도움을 받아 정원 가까이에 고무통에 수도꼭지를 달아 아이들이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물탱크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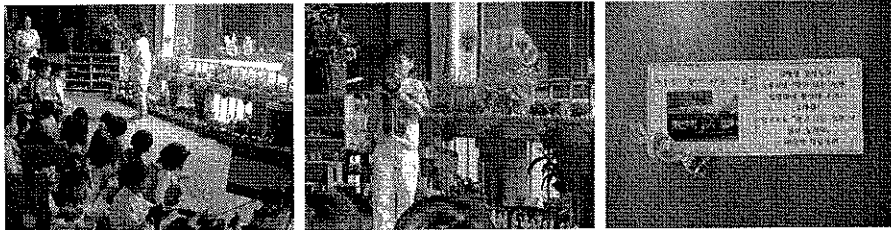
〈정원 관리 당번책〉



〈물탱크〉

1. “향기 나는 정원” 을 소개해요.

정원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여울반 정원을 다른 반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였다. 특히 정원이 있는 곳인 현관을 함께 쓰는 새암반 동생들이 약속을 잘 몰라서 철사로 만든 울타리를 잡고 흔들거나 물레방아를 만지는 일이 많다고 하면서 새암반 동생들에게 정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알려 주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암반 동생들을 초대하여 “향기 나는 정원 설명회” 를 갖기로 하였다. 새암반 동생들을 향기 나는 정원에 초대한 후, 정원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것이나 새암반 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을 새암반 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해 준 새암반 동생들에게 감사선물을 하였다.



<미니 정원 소개하기>

2. “향기 나는 정원”을 관리해요.

1) “꼭꼭꼭! 지켜 주세요.”

정원이 완성되어 가자, 아이들은 정원에 애착을 갖고 돌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원이 위치한 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그런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울타리가 망가져 있기도 하였다. 이것을 본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니정원을 구경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 주자고 하였고,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팻말을 만들어 정원에 꽂자고 하였다.

2) 오이와 방울토마토에 지지대 세우기

아이들의 돌봄 속에 정원의 식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오이와 방울토마토가 너무 많이 자라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아침에 등원하던 아이들은 정원에 가더니 “선생님, 오이랑 방울토마토가 자꾸 옆으로 쓰러 져요.” 하며 오이와 방울토마토에 대해 걱정하였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원의 야채들이 왜 쓰러지기 시작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나무젓가락, 빨대, 수수깡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오이와 방울토마토에 지지대를 세워 주었다. 그리고 오이는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줄을 세워 주었다.



<토마토 지지대 세우기>

3) 방울토마토에 열매가 안 열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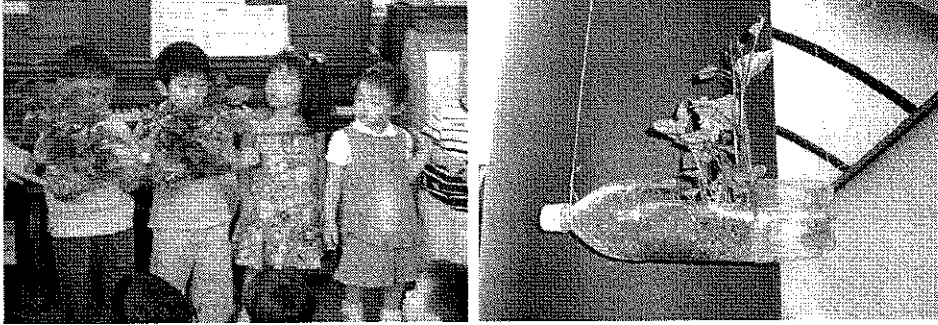
바깥놀이터에 있는 방울토마토는 진한 초록색이고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렸는데, 여울반 정원의 방울토마토는 키는 계속 자라는 데, 색이 연한 연두 빛이고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방울토마토가 언제 열리나 기다리던 아이들은 "선생님 왜 방울토마토가 안 열려요? 저 쪽에는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렸는데 ..." 하며 속상해 하였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께 조언을 구해 보았더니 아저씨 말씀은 방울토마토가 키가 크는 데 영양분을 다 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으며 가지치기를 해 주라고 하셨다.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방울토마토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토마토 가지치기>

4) 새암반 동생들이 정원에 고구마를 기증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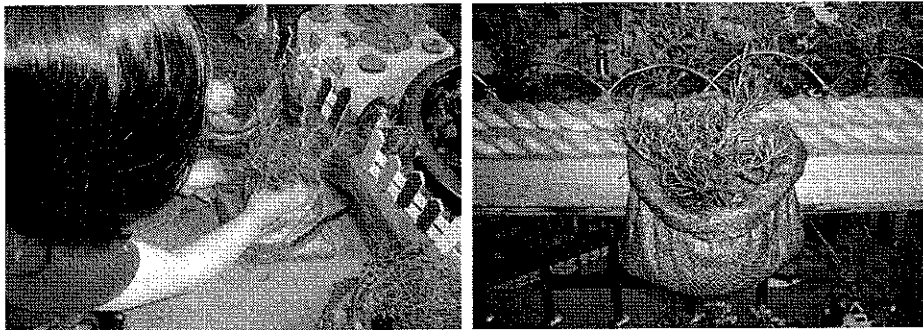
“향기 나는 정원” 설명회에 참석한 새암반 아이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후에는 정원을 감상할 때 지켜야 할 약속들을 잘 지켜 주고 있었다. 또한 새암반 키우던 고구마 싹들이 많이 자라 교실에서 키우기 어렵게 되자, 여울반 정원에 고구마 싹을 기증해 주었다. 새암반 동생들은 여울반 형님들에게 잘 키워 달라고 부탁하였고, 여울반 아이들은 새암반 동생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동생들이 부탁한 고구마 키우기〉

5) 작아진 허브 화분을 분갈이 했어요.

울타리에 매달 허브가 점점 자라면서 화분이 작아졌다. 그래서 화분 밖으로 뿌리가 삐죽이 나오고 시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화분을 좀 더 큰 것으로 갈아 주기로 하였다. 작은 화분 외에 울타리에 매달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던 중, 바깥놀이터에서 모래 주머니를 발견하였다. 모래 주머니에 흙을 넣고 허브를 심은 후, 울타리에 매달으니 멋진 화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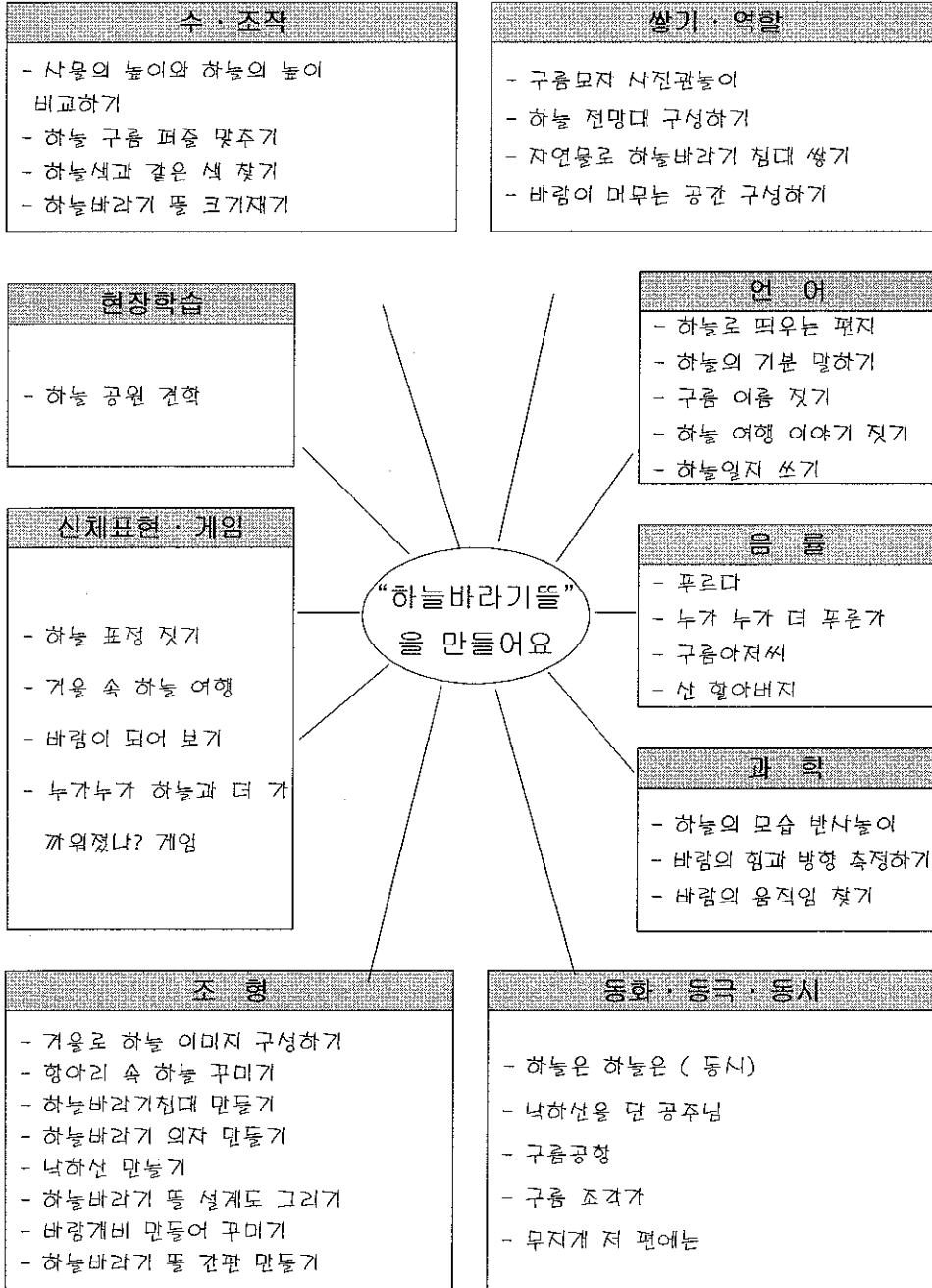
〈모래 주머니로 분갈이를 한 허브 화분〉

4) 하늘바라기 뜰

(1) 활동진행과정

단 계	활 동 내 용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은 이런 느낌을 주어요 - 하늘 사진 보고 느낌 나누기 · 하늘 공원을 다녀왔어요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어요 - 어느 곳에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까요? - 설계도를 구성해요 - 하늘바라기 뜰의 크기를 정해요 - 기둥은 몇 개가 있어야 할까? · 비오는 날에도 하늘을 관찰하려면? · 하늘바라기 뜰을 멋지게 꾸며요 - 하늘바라기 뜰 만들고 색칠하기 - 벽면에 그림 그려서 꾸미기 - 침대와 의자 만들기 - 넥타이 방석 만들기 - 바람개비 만들어 꾸미기 - 안내도와 규칙 만들기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바라기 뜰에서 놀이해요 - 지붕구멍으로 하늘 관찰하고 사진찍기 - 하늘 일지쓰기 - 하늘에 편지쓰기 - 하늘은 하늘은 동시 재구성하기 - 내가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다면? - 하늘에 관한 동화 짓기 · 하늘바라기 뜰을 관리해요

(2) 하늘바라기 뜰 만들기 연관활동안



(3) 하늘바라기 뜰 만들기 활동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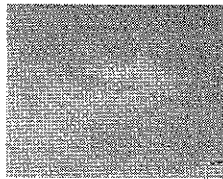
탐색하기

1. 하늘에 대한 느낌을 나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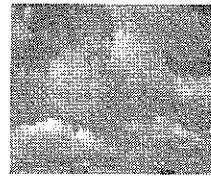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기 전에 유아들과 하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을 살펴보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 *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어요.
- * 맑은 날씨일 것 같아요.
- * 구름이 송사탕처럼 보여요. 맛있는 송사탕처럼 보여서 기분이 좋아요.
- * 아침일 것 같아요. 하늘이 밝아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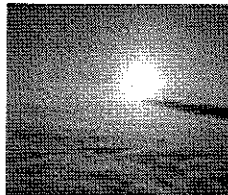
- * 옆에 있는 하늘이랑 구름 모습이 조금 달라요.
- *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름들이 막 퍼져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구름이 흩어진 것 같아요.
- * 구름들이 더 얇아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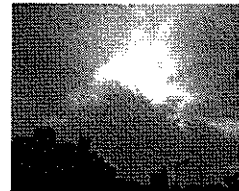
- * 구름이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 * 용처럼 생긴 구름이 있어서 보고 있으니깐 기분이 좋아요.
- * 구름이 많아서 날씨가 흐린 날인 것 같아요.
- * 하늘에 파란 색도 조금 진해요



- * 이 사진은 보고 있으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어둡고 짙은 구름이요. 꼭 불이 난 것 같아요.
- * 먹구름이 꺼서 꼭 비가 올 것 같아요
- *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것 같아요. 저기 빨갱게 보이는 게 불이 난 것 같아요.



- * 우와 바다다!
- * 바다에서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조금 어둡잖아요. (비행기에서 찍은 구름 위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해줌)
- * 구름아래는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구름들이 해를 다 가려버려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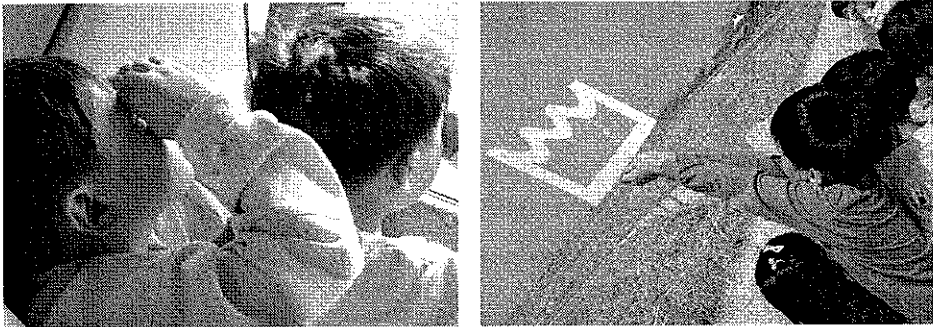
- * 밤이에요. 짙어하잖아요.
- * 먹구름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요.
- * 먹구름들 사이로 해가 보여요.
- * 아침인 것 같아요. 짙어하다가 조금씩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2. 하늘공원에 다녀왔어요

하늘을 보다 가까워서 보려면 어떤 곳이 좋을지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었다.

- 하늘은 머리 위에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이 잘 보일 것 같아요
- 옥상에 올라가면 하늘이 잘 보여요
-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 아파트 베란다에 가면 하늘이 잘 보일 것 같아요
- 계단 위에 올라가서 봐요

유아들의 의견을 듣다가 하늘공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을 왜 가지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고 정말 하늘공원에 가면 하늘을 좀 더 가까워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하늘공원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하늘 공원 견학)

- 하늘공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손을 둥그렇게 오므려 망원경을 만들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 하늘공원은 너무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늘공원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막상 도착한 하늘공원은 그야말로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눈부신 하늘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넓은 들판 주변은 온통 하늘뿐이었다. 미리 유치원에서 준비해 간 여러 가지 모양의 모양틀을 이용해 새로운 느낌의 하늘을 만나볼 수 있었다.

- 하늘이 집 모양 안에 들어있어요.
-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 햇빛이 너무 눈 부셔서 하늘을 잘 못 보겠어요.
- 하늘이 아주 파랗게 보여요. 날씨가 맑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늘공원을 나오며 하늘공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상해 보았다.

- 하늘공원 입구에서 하늘공원을 알려주는 비석
- 하늘공원 안내도
- 바람이 잘 부는 하늘공원에서 있던 커다란 풍차

3. 하늘바라기 뜰은 어떤 곳일까요?

하늘공원에 다녀온 후 하늘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서 유아들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하늘공원에 올라갈 때 계단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 하늘공원에 햇빛이 아주 많이 비쳐서 좀 더웠어요.
- 하늘공원에 가니까 하늘이 아주 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 하늘공원에 들어갈 때 하늘공원이라고 쓰여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 하늘공원 안에 뭘가 있는지 알려 주는 지도 같은 것도 있었어요.
- 아주 커다란 풍차가 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풍차가 돌아가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유치원에도 이렇게 하늘공원처럼 하늘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지 제안하게 되었다.

교사 : 하늘바라기가 무슨 말이지?

유아 : 해바라기라는 말이에요?

유아 : 바라기라는 말이 바람개비라는 말 같아요

처음엔 <해바라기>라는 단어를 연상해 내는 유아들도 있기는 했지만 처음에 <하늘바라기 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생소해 하는 유아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늘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자 유아들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였다.

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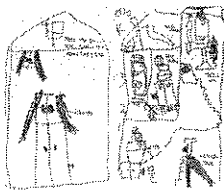
1. 하늘바라기 뜰을 어디에 만들까요?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기로 하고 우선 유치원 놀이터 중 어느 곳에 만드는 것이 적당한지 유아들과 찾아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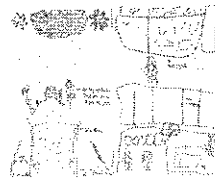
처음 대부분의 유아들은 마냥 뛰어놀기에 적당한 넓은 공간을 선택하였다. 유치원 놀이터는 우리 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우리가 만든 하늘바라기 뜰 때문에 다른 반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 장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주로 한 쪽 벽에 기대어 뜰을 만들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그 곳이 유치원 마당에 심어져 있는 빛나무와 은행나무 사이의 공간이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나뭇가지가 더욱 무성해 지긴 하겠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유아들의 동의를 얻어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 장소로 결정하였다.

2. 하늘바라기 뜰 설계도를 그려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설계도를 그려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유아들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계도라는 말도 자주 듣거나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서 건축물 설계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내는 유치원 건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모두 지어지기 이전에는 설계도가 있었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하여 건물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망원경도 갖다 놓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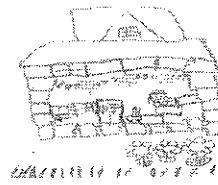


◀쌍극대랑 텔레비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붕도 세모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봐요

집모양으로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구요. 창문도 있어야 해요. 또 벽돌로 담도 쌓을 거예요. 의자도 있어서 앉아서 하늘을 봐요▶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그 안에 계단도 만들어서 지붕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밖에는 꽃도 심을 거예요.▶



유아들이 그려 놓은 하늘바라기 뜰의 설계도는 대부분 세모모양의 지붕과 네모난 벽을 가진 집의 형태가 많았고 공통적으로 망원경과 의자 또, 계단 등도 함께 그려서 하늘을 관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암시하였다. 반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식탁 등 하늘을 관찰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없어도 좋을 물건들을 표현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유아들의 설계도를 살펴보며 어떤 것들을 표현했는지 찾아보고 그 중에서 하늘을 관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해 보기로 하였다.

<p><하늘바라기 뜰에 꼭 필요해요> 비를 가려줄 지붕, 앉아서 하늘을 관찰할 때 필요한 의자, 계단, 망원경, 누워서 하늘을 볼 때 필요한 침대</p>	<p><하늘바라기 뜰에 없어도 좋아요> 쇼파, 싱크대, 게임기, 잠자는 곳, 거실, 식탁...</p>
--	---

<하늘바라기 뜰에 필요한 것>

3. 하늘바라기 뜰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요

하늘바라기 뜰 설계도를 그려봄으로써 유아들이 하늘바라기 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설계도를 그려 본 후 필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분류해 보고,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기에 앞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p><장소> 유치원 마당 빛나무와 은행나무가 있는 사이의 공간</p>	
<p><하늘을 볼 때 필요한 물건들> 망원경, 의자, 돛자리, 카페트, 침대, 계단, 우산</p>	<p><필요한 재료> 유리, 비닐, 나뭇가지, 나무토막, 깃털, 솜, 벽돌, 종이상자</p>
<p><모양> 지붕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햇빛도 가려주고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모모양으로 집처럼 만들면 좋겠어요.</p>	

<하늘바라기 뜰에 대한 의견>

유아들과 함께 나눈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늘바라기 뜰을 만들기에 앞서 구체적인 과정들을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하늘바라기 뜰의 크기를 정해요

유아들과 함께 하늘바라기 뜰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정해야 할지 함께 정해 보기로 하였다. 우선 하늘바라기 뜰에서 하늘을 관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관찰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즉 앉아서 볼 것인지 서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누워서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할애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가 서서도 보고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의자도 준비하고 또 누워서 편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침대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총 4명 정도의 유아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정해 보기로 하였다.

- 서서 하늘을 볼 수도 있어요. 서서 하늘을 관찰할 때는 2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 같은 크기의 공간인데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 보았어요. 그런데 한 명 밖에 못 들어가서 좀 답답해요.
- 서서 볼 때와 앉아서 볼 때 적당했던 크기의 공간에 들어가서 누워 보았어요. 그런데 몸을 전폭 웅크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을 웅크리면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 그래서 이번에 벽돌을 더 사용해서 크기를 늘려 보았어요. 편안히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으려면 더 넓어야 해요. 그랬더니 벽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 서 있는 친구, 그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친구들까지 모두 해서 4명의 친구들이 가상의 하늘바라기 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의 크기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큰 벽돌을 사방으로 5개씩 연결한 크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한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도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또 누워 있는지에 따라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작은 크기의 공간에서 출발하여 점점 필요한 크기만큼 넓혀가자 어느 덧 하늘바라기 뜰의 적당한 크기가 산출되었다. 유아들이 쌓기 놀이 영역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종이벽돌을 5개씩 연결하여 정사각형을 만든 크기만큼이 하늘바라기 뜰의 크기가 되었다.

유아들은 그 공간 안에서 내 몸을 움직이는데 혹시 불편함은 없는지 혹은 누워 있을 때 다리를 쭉 펼 수 있는지 등의 여부도 직접 시험해 보기도 하였다.



<하늘바라기 뜰의 크기 정하기>

5. 하늘바라기 뜰의 전체적인 뜰을 구성해요

하늘바라기 뜰의 크기가 정해지자 유아들과 함께 유치원 놀이터로 나가 전체적인 뜰의 형태를 잡아 보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이 때 벽돌을 이용하자고 하였으나 유치원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우선 정해진 장소로 큰 벽돌을 들고 나가 교실에서 결정되었던 벽돌의 숫자만큼 놓아보기로 하였다.

- 큰 종이벽돌을 5개씩 연결해서 한 줄로 놓아보고 있어요.
- 종이벽돌을 치워야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돌맹이로 벽돌을 따라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표시한 자리가 남아요.
- 열심히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어요. 모래를 많이 담으니까 주머니가 무거워요.
- 열심히 만든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어요. 아까 돌맹이로 선을 표시했는데 모래주머니를 놓아놓아야 해요.

과연 종이벽돌 하나와 모래주머니 하나의 길이를 비교해 본 결과 모래주머니 하나의 길이와 종이벽돌 하나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여 종이벽돌을 치우고 그 자리에 대신 모래주머니를 다섯 개씩 연결하여 놓아놓게 되었다.

6. 하늘바라기 뜰에 지붕이 필요해요

하늘을 관찰하려면 그냥 서 있는 곳에서 혹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된다. 그러나 유아들과 만들 하늘바라기 뜰은 날씨에 관계없이, 즉 맑은 날에도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한 날에도 하늘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했다. 하늘은 맑은 날에만 올려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 변화무쌍한 표정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처음 유아들과 하늘사진을 보며 느낌과 생각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진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관찰해 보는 하늘에서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느낌들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교사 : 지붕이 필요한데 그 지붕을 구성하는 재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유아 : 벽돌로 만들면 되잖아요.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무편으로 만들어요. 나무편도 평평하고 튼튼해서 좋을 것 같아요.

-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 그렇게 하면 비오는 날과 햇빛이 강한 날에도 잘 관찰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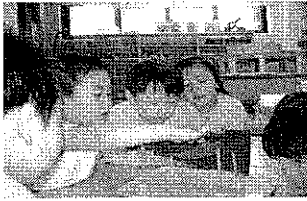
유아 : 그럼 우리가 좋겠어요. 우리로 지붕을 덮으면 투명하니까 하늘도 잘 보이고 비가 올 때도 비를 막아주잖아요.

-정문도 우리도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도 밖을 잘 볼 수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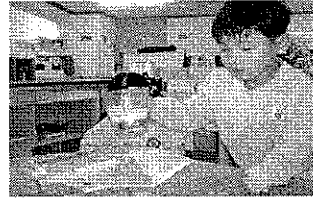
교사 : 우리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유아 :

우선은 비에도 젖지 않는 방수성을 가진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에 웃감. 여러 종류의 비닐, 종이 등의 재료를 준비하여 유아들과 함께 탐색해 보기로 하였다.



옷감에 물을 부으니까
아래로 물이 똑똑 떨어져요



종이는 물을 붓자마자
젖어 버렸어요.
그리고 찢어졌어요



비닐에서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닐을 대고 보아도
앞이 잘 보였어요



셀로판지도 잘
보이지만 셀로판지
색깔대로 보여요



누르니까 비닐이
소리를 내면서 터지고
있어요



까만 비닐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종이와 옷감과 비닐을 비교해 보았어요)

유아들과 재료를 탐색한 결과, 비닐 중에서도 투명한 비닐이 지붕의 재료로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7. 지붕을 받쳐 줄 기둥이 필요해요

비닐을 이용해 네모난 지붕을 만들기로 결정한 후 그렇다면 그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되었다.

교사 : 우리가 만든 지붕은 하늘바라기 뜰의 어느 부분에 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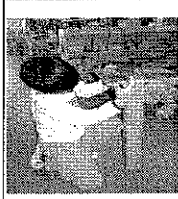
유아 : 제일 위예요. 집에도 지붕이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교사 : 그럼 지붕이 가장 윗부분에서 잘 고정되어 있으려면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지붕이 혼자서 힘으로 우리들의 머리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유아 : 아니요. 무슨 막대기 같은 걸로 받치면 좋겠어요.

교사 : 그럼 그 막대기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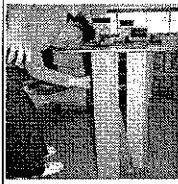
유아들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모아갔다. 그렇다면 기둥은 과연 몇 개 정도가 있어야 적당할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 기둥이 한 개일 때 ***
 -기둥을 지붕 한 가운데 놓아야 지붕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건드려도 지붕이 떨어지려고 했어요.



*** 기둥이 두 개일 때 ***
 -기둥이 두개 일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한 개씩 세워야 지붕이 떨어지지 않아요.



*** 기둥이 세 개일 때 ***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기둥 한 개를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튼튼한 거 같긴 하지만 지붕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요.
 기둥을 대각선 방향으로 놓아 보았어요. 그런데 한 쪽을 살짝만 눌러도 지붕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 기둥이 네 개일 때 ***
 -지붕이 네모모양이니까 네모모양에 뾰족한 곳마다 기둥을 한 개씩 놓았어요.
 -그랬더니 지붕을 건드려도 잘 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어요.
 -지붕 아래 공간도 넓어졌어요.

(하늘바라기 뜰에 필요한 기둥 측정하기)

나무 블럭을 이용해 기둥을 하나에서 네 개까지 차례대로 놓아보며 어떤 경우에 가장 안정감이 있고 튼튼한지, 또 지붕 아래에 확보된 공간이 가장 넓은지 등에 초점을 맞추며 생각해 본 결과 유아들은 기둥이 네 개일 때가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유치원 놀이터에도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대부분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보통 몇 개 정도인지 직접 찾아보기로 하였다.

교실에서 직접 실험해 보고 놀이터에 나와 실제적으로 지붕과 기둥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하늘바라기 뜰의 지붕과 기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8. 아저씨! 도와 주세요.

지붕의 재료와 모양, 또 그 지붕을 받쳐 줄 기둥의 수까지 정하고 난 후, 그렇다면 어떤 재료로 기둥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유아들에게 물어 보았다. 유치원 놀이터에 있는 대부분의 기둥들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만들 하늘바라기 뜰에도 나무기둥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각각의 기둥들과 지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과정도 필요했다.

교사 : 지붕을 만들고 또 지붕과 기둥을 연결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유아 : 풀로 붙여요

교사 : 풀로 나무와 나무를 붙이면 잘 붙을까? 너희들은 풀을 언제 사용했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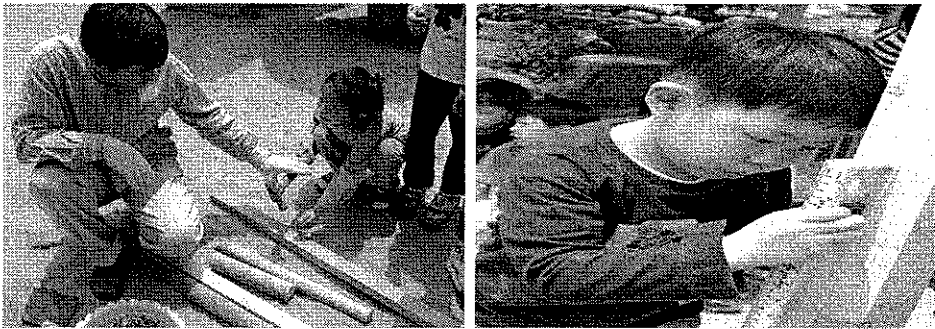
유아 : 풀은 종이를 붙일 때 사용했어요. 나무는 풀로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본드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본드는 종이 말고 다른 재료를 붙일 때 사용하면 잘 붙아요.

교사 :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더 본드보다 더 튼튼하게 나무 기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료나 도구는 없을까?

나무토막 같은 재료를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시는 분이 기사 아저씨라는 이야기가 나와 기사아저씨께 여쭙 보기로 하였다. 아저씨께서는 못을 박아 나무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튼튼하게 기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기둥을 세우고 연결하였다. 나무기둥을 적당한 길이만큼 제어 보기 위해 필요한 자와 또 나무를 자를 때 필요한 톱, 망치와 못을 유아들도 직접 다루어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며, 좀 더 과학적으로 세심한 작업과정도 요구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둥을 세우고 난 후에는 나무 기둥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나중에 페인트칠 할 때 페인트가 잘 발릴 수 있도록 사포로 문질러 주는 작업까지 유아들이 직접 경험해 보았다.



<기둥 만들기를 위해 아저씨께 도움 청하기>

9. 하늘바라기 뜰의 벽면을 꾸며요

아저씨의 도움으로 지붕과 벽면까지 투명비닐로 마무리하게 되어 하늘바라기 뜰의 전체적인 틀이 어느 정도 완성되게 되었다.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이 구체적인 형태와 크기로 유아들의 눈 앞에 펼쳐지자 유아들도 내심 신기하면서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교사 : 하늘바라기 뜰을 어디까지 만들었니?

유아 : 지붕도 만들고 기둥도 세웠어요. 그리고 벽도 생겼어요

교사 : 지붕과 벽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니?

유아 : 투명한 비닐이요.

교사 : 그런데 비닐이 그저 투명하기만 한데 우리가 더 멋지게 꾸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아 : 그림을 그려서 꾸미는 건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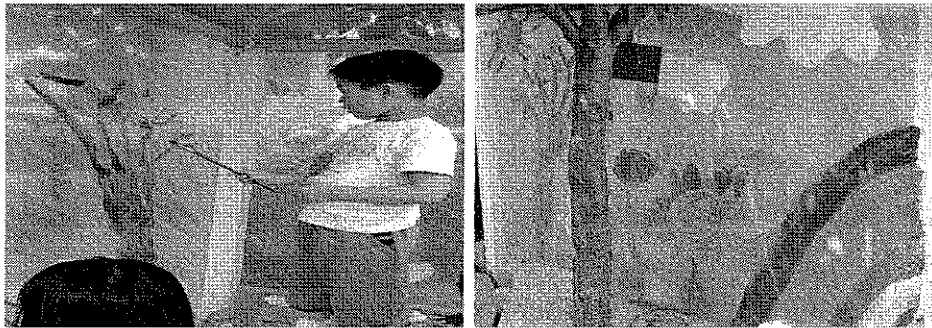
교사 :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하늘바라기 뜰에 가장 어울릴까?

유아 : 무지개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온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유아들과 협의한 결과, 한 쪽에는 무지개를 그리고, 나무와 꽃들 그리고 그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도 그려주고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과 해도 그려주기로 하였다. 또 맞은 편 벽면에는 밤하늘의 모습을 그려 주기로 하였다. 밤하늘에 보이는 달과 별을 그려주고 하늘도 어두운 색으로 칠하며 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표현해 주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유아들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수채물감은 비닐 위에서 잘 그려지지 않을뿐더러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물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주기로 하였다.

비닐로 싸여 있어서 재범 한 낮의 햇빛으로도 더위를 느낄 수 있는 뜰 안에서 유아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마치 대작을 완성해내는 예술가들이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려나갔다.



<하늘바라기 뜰 벽면 그림 그리기>

10. 하늘바라기 뜰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하늘바라기 뜰에 어떤 물건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미리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다. 이제 하늘바라기 뜰도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고 그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유아들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1) 침대가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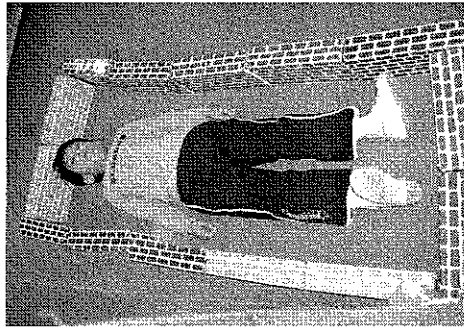
유아들은 하늘을 관찰할 때 서서 하늘을 볼 수도 있으나 편안하게 누워서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침대를 만들기로 하였다.

교사 : 침대모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유아 : 침대는 네모모양으로 만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침대도 네모모양이에요. 긴 네모모양이요 우리가 누울 수 있을 만큼 길어야 돼요. 너무 침대가 작으면 벌이 침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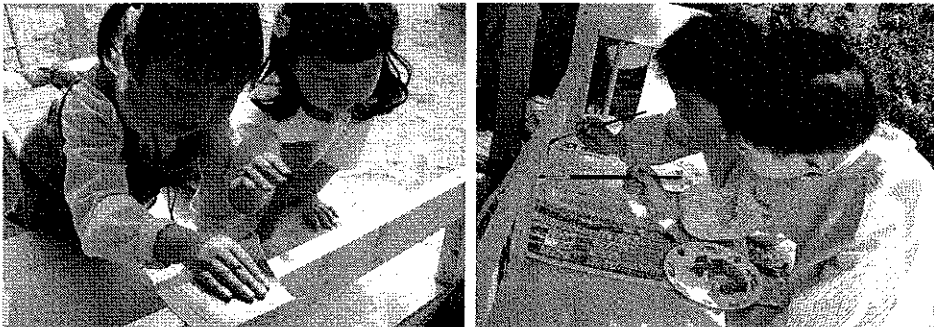
교사 : 그런데 침대에는 어느 한 사람만 눕는 것이 아니라 바다변 친구들 모두가 사용해도 너무 적지 않아야 할 텐데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니?

이에 하늘바라기 뜰의 크기를 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즉 일단 한 친구가 나와서 누우면 그 주변으로 그 친구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남겨두고 종이벽돌로 테두리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가장 키가 큰 친구를 기준으로 침대의 길이를 정한 결과 가로 세로, 큰 종이벽돌 2개의 길이와 큰 종이벽돌 5개의 길이만큼으로 침대의 크기가 정해졌다.



<침대 크기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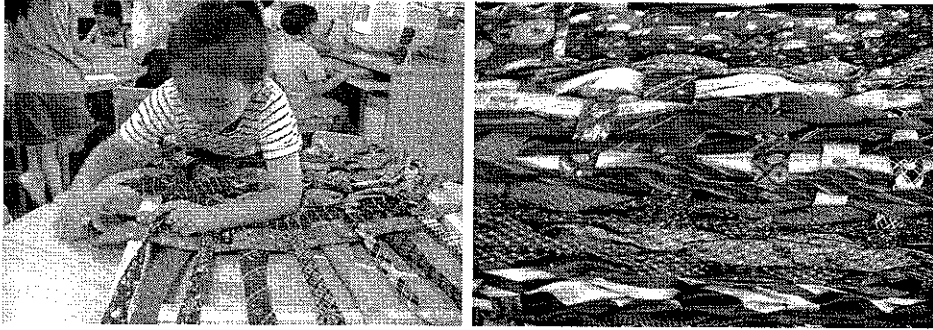
완성된 침대에 그림을 그려 꾸며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구름과 해와 달과 별을 순서대로 반복하여 침대 테두리에 그려주기로 하였다. 그 무늬가 그대로 이름과 연결되어 침대의 이름도 <구름 해 달 별 침대>로 정해졌다.



<침대에 그림 그리기>

딱딱한 침대에서 보다 편안하게 하늘을 감상하려면 침대의 매트리스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러 가지로 고심한 결과 재활용 넥타이로 침대 매트리스를 만들게 되었다.



<넥타이 방석 만들기>

2) 의자가 필요해요

하늘을 관찰할 때는 편히 누워서 볼 수도 있지만 의자에 앉아서 볼 수도 있으므로 의자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자에 앉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서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자는 두 명 정도의 친구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실에 있는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예요. 등을 댈 수도 있어요.

-어떤 의자는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의자도 있어요.

-어떤 의자는 앉으면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해요

-미용실에 가면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의자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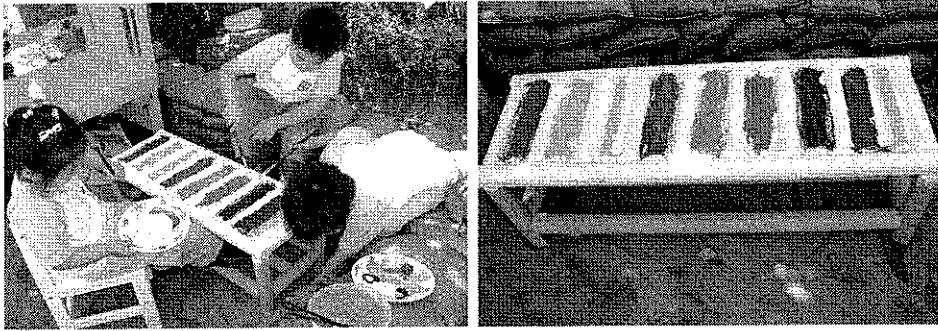
-우리 교실에 있는 의자는 다리가 4개인데 다리가 가운데에 하나만 있는 의자도 있어요.

-야기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는 다리가 아주 긴 의자도 있어요.

-공원 같은데 가면 긴 나무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어요.

유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등받이를 만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등받이는 없애고 2명 정도의 친구들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기로 하였고 교실의자를 기준으로 길이를 2배만큼 늘리기로 하였다.

완성된 의자를 꾸밀 때도 페인트칠을 하고 의자를 꾸며주기로 하였다. 의자에 엉덩이를 대는 부분이 여러 개의 나무기둥으로 연결된 형태라 기둥마다 다른 색깔을 칠해주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였다. 이에 한 유아가 무지개 색깔로 칠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무지개 색깔로 하나씩 칠해 주고 이름도 무지개 의자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무지개 의자>가 탄생되었다.



〈무지개 의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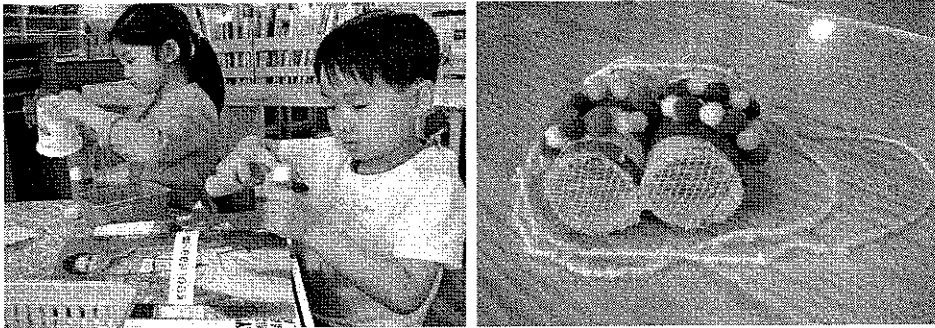
3) 하늘을 관찰할 때 필요해요

(1) 망원경

전망대 같은 곳에 가보면 키다란 망원경이 있다. 유아들도 높은 산이나 전망대에 올라가 동전을 집어넣고 볼 수 있는 망원경에 대한 경험이 있어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활용품과 미닐을 사용해 직접 만들어 보았다.

자신들이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의 모습을 상상이라도 하듯, 망원경을 만드는 내내 유아들은 진지하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서 망원경을 만들기로 하였다.



〈망원경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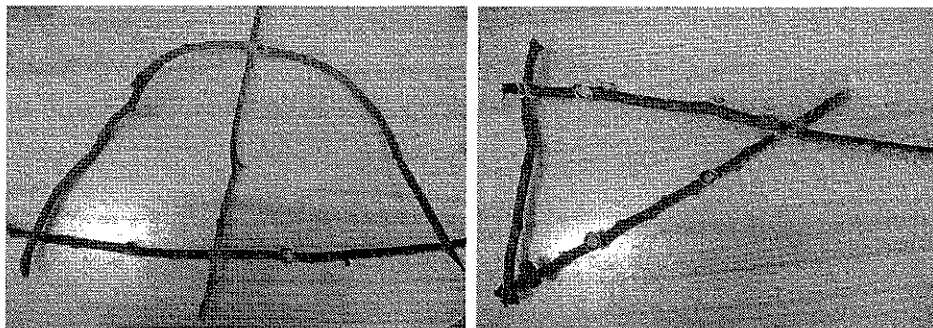
유아들과 하늘바라기 뜰에서 사용할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하늘바라기 뜰 구성하기 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여러 가지 모양틀

하늘공원에 산책 갔던 경험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모양틀로 하늘을 보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자연물을 사용하여 하늘관찰 틀을 만들었다.

교사 : 하늘공원에서 하늘을 볼 때 너희들이 사용했던 물건이 있었니?
 유아 :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요. 집모양도 있고 네모모양 하트모양도 있었어요.
 교사 : 그런데 그런 여러 모양들로 하늘을 보니까 그냥 하늘을 바라볼 때와 어떻게 달랐니?
 유아 : 그냥 볼 때는 하늘이 아주 넓게 보여요
 -모양들로 보면요 하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게 보여요
 -집모양들로 보면 하늘이 집모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교사 : 그럼 우리들도 직접 모양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러 자연물 중에서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니?
 유아 : 나뭇가지 같은 걸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뭇잎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하늘을 봐도 되잖아요.
 -나뭇잎으로 둥그렇게 말아서 망원경처럼 만들어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사 : 그러면 유치원 마당에서 사용할 만한 자연물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없으면 미리 모아 두었던 재료들을 사용하기로 하자.

산책 가서 모아 두었던 나뭇가지들과 교실에 비치되어 있던 여러 가지 자연물 재료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모양을 구성하고 꾸며 주기로 하였다. 하늘바라기 뜰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든 망원경과 함께 자연물로 만든 모양들로 하늘을 관찰할 때 사용해 보기로 하였다.



<하늘 관찰 모양들>

(3) 바람개비

하늘 공원 산책에서 본 풍차를 떠올리며 하늘바라기 뜰에도 그와 같은 것을 만들기로 하였다.

교사 : 하늘바라기 뜰의 어느 곳에 바람개비를 다는 것이 좋을까?
 유아 : 하늘바라기 뜰 밖에 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바람이 부니까요.
 교사 : 그러면 하늘바라기 뜰의 바깥 부분 중에서도 어디가 좋을까? 바람을 가장 잘 맞을 수 있으려면?
 유아 : 하늘공원에서 날개가 아주 위에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늘바라기 뜰 가장 윗부분에 바람개비를 달아요. 잘 돌아가게...

교사 : 그러면 바깥에 바람개비를 달면 바람도 많이 맞겠지만 비가 올 때는 빗물도 많이 맞을 수 있겠다. 비가 와도 튼튼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재료가 좋겠니?

유아 : 종이는 금방 젖어서 안돼요.

-비닐에 대직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 그런데 비닐은 딱딱하지 않아서 바람개비 모양이 잘 만들어질까? 비닐처럼 투명하지만 비닐보다 조금 딱딱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사용하면 어떨까? (아프필름을 제시하며)

유아 :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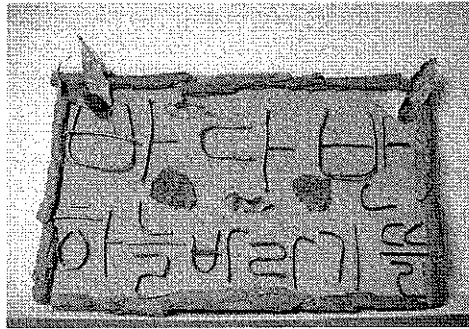
필름지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바람개비를 만들었다.



<바람개비 만들기>

4) 간판이 필요해요

하늘바라기 뜰의 외형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짐에 따라 이제 하늘바라기 뜰에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늘바라기 뜰을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게 되었다. 하늘바라기 뜰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간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찰흙을 가지고 간판을 만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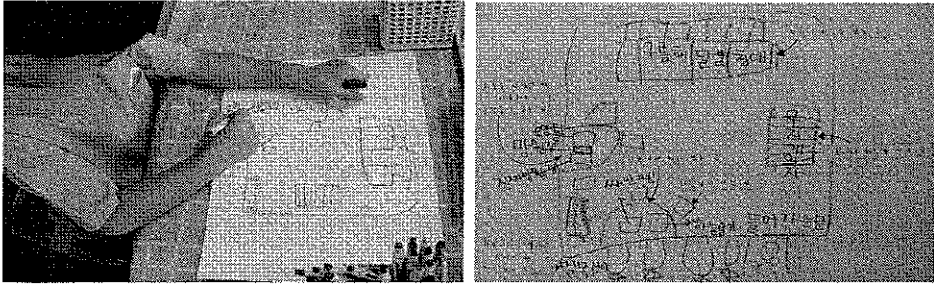


<하늘바라기 뜰 간판 만들기>

5) 안내도를 만들어요

하늘바라기 뜰에 더 필요한 것은 없을지 이야기 나누다가 한 유아가 하늘공원에 갔던 일을

회상하며 안내판을 떠올렸다. 다른 유아들도 그 생각에 동의하였고 하늘바라기 뜰 안내도를 그려 보게 되었다. 우선 하늘바라기 뜰 안내도를 그리려면 하늘바라기 뜰의 내부를 먼저 구성하고 자리 잡는 일이 필요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과 필요한 객상 등으로 하늘바라기 뜰 내부를 구성한 후 그에 기초하여 안내도를 그려 보았다.



〈하늘바라기 뜰 안내도〉

유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도를 입구 한 쪽에 걸어 두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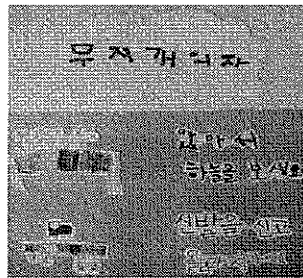
6) 하늘바라기 뜰에서 약속이 필요해요

하늘바라기 뜰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아들도 알고 있었다. 특히 하늘바라기 뜰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다지 넓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몇 명 정도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할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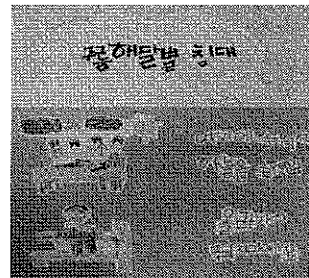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4명의 유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칙이 정해졌고, 역할놀이영역에서 인원제한을 위해 사용하는 목걸이처럼 목걸이를 4개 준비하여 들어갈 때마다 그 목걸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유아들은 하늘바라기 뜰에서 사용할 목걸이이므로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모양의 목걸이로 만들고 싶어 하였다.



모래주머니에 올라가지 않아요.
무너지면 위험해요



앉아서 하늘을 보세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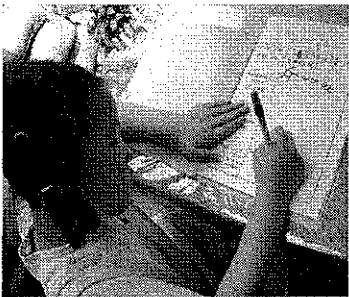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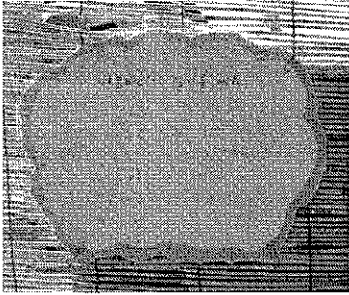
여기에 누워서 하늘을
보세요.
올라가서 뛰지 마세요.

〈유아들이 만든 약속판〉

만든 약속판은 하늘바라기 뜰에 걸어두기로 하였다.

1. 하늘바라기 일기 쓰기

매일 매일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그 날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상 등을 적어 보는 일기처럼 하늘도 하루하루가 아니 매 순간마다 그 표정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념에 젖게 한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아도 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른 물론이고 매일 하늘을 관찰함으로써 순간 순간 변화되는 하늘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늘이라는 자연대상에 대해 좀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늘일기 쓰기>활동을 하였다.



<하늘 일기 쓰기>

<하늘 일기>

오늘,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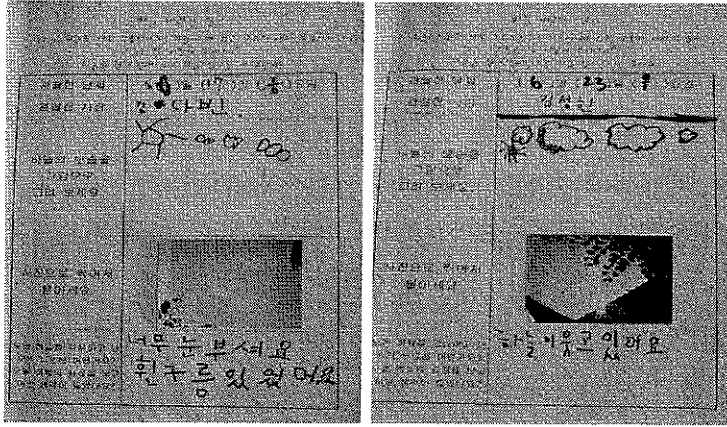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새의 모습이

오늘은 또 어떻게 보이나요?

하늘을 잘 관찰해 보고 하늘 일기를 써 보세요.

관찰한 날짜	()월 ()일 ()요일
관찰한 사람	
하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붙이세요.	
오늘 하늘을 감상하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떤가요? 오늘 하늘의 표정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늘을 관찰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그 날 관찰한 하늘의 표정과 또 그 느낌 및 생각에 대해 적어볼 수도 있도록 하였다. 덧붙여 하늘바라기 뜰에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현상한 후 하늘일기에 붙여 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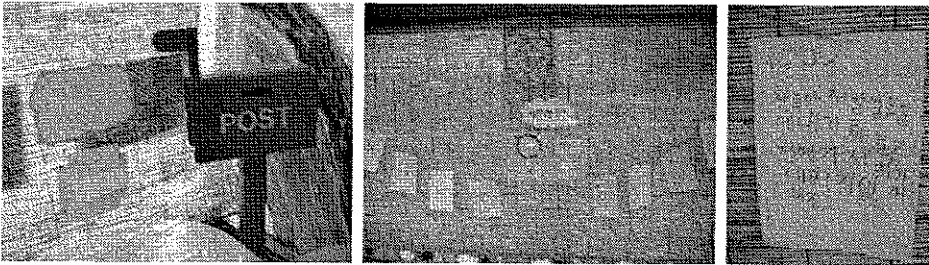


<하늘일기>

2. 하늘에 쓰는 편지

유아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가까이서 언젠가라도 원하기만 하면 바라볼 수 있는 자연대상이기도 한 하늘에게 편지를 써 보기로 하였다. 아이들만의 순수한 마음으로 적어 내리간, 꽤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유아들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편지를 하늘바라기 틀 한 편에 걸어두기도 하였다.

그림으로 혹은 글씨로 정성스레 편지를 쓰고 책상 옆 빨간 우체통에 편지지를 접어 넣는 경험만으로도 유아들은 꽤나 즐거워하였고 편지를 쓰는 동안 유아들은 어느새 하늘과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하늘에게 편지쓰기>

3. 하늘에 그림 그리기

하늘바라기 틀 지붕에는 한 가운데 투명창이 만들어져 있다. 비가 올 때는 투명창을 지퍼로 닫아 놓았다가 날씨가 맑을 때에는 투명창을 열어 젖혀서 시원한 공기와 함께 맑게 갠 하늘을 감상할 수도 있다. 투명창은 투명비닐을 재료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투명창과 투명비닐을 이용해 하늘에 맘껏 그림을 그려 보기로 하였다.

자투리 비닐 위에 매직펜과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색칠도 해 본 후 비닐을 눈 앞에 대고 과연 어떻게 비닐 밖의 사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지붕까지는 유아들의 팔이 닿지 않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림을 그려 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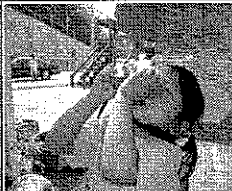

4. 하늘바라기 뜰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유아들이 귀기하고 난 후 하늘바라기 뜰을 둘러보면 여기 저기 망원경이나 모양틀 등의 물건들이 섞여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침대나 의자 위에도 모래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결과 도우미를 두 명씩 정하여 하늘바라기 뜰을 관리해주기로 하였다. 또 도우미가 된 친구들은 하늘바라기 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해 보았다.

- 〈도우미가 할 일〉
1. 하늘바라기 뜰에 있는 물건들(망원경, 모양틀, 씨인펜, 방석등)을 항상 제자리에 정리해 줘요
 2. 침대나 의자, 책상위에 모래가 있으면 빗자루로 쓸어서 깨끗하게 해 줘요
 3. 아침에 교실에 있는 하늘바라기 뜰 물건들을 하늘바라기 뜰에 가져가서 제자리에 놓아줘요.
 4. 집에 가기 전에 하늘바라기 뜰에 있는 물건들을 교실로 다시 가져다 놔요
 5. 별 모양 목걸이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요.
 6. 다른 반 친구들에게 하늘바라기 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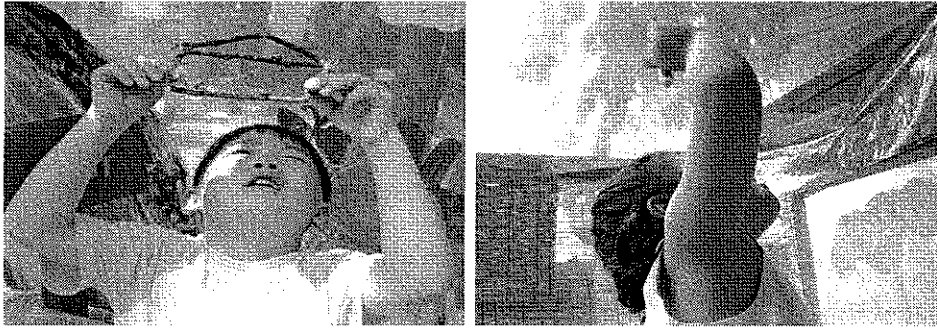
도우미에게는 구름 모양의 도우미 이름표를 달아주기로 하였고, 유아들의 명단을 뽑아서 그 날 그 날의 도우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늘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하늘을 본 느낌은?	카메라로 하늘의 모습을 찍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하늘일기에 붙일 거예요	하늘바라기 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하늘바라기 뜰로 가져가고 있어요	방석을 침대 위에 정리하고 있어요

〈하늘바라기 뜰 관리하기〉

5. 하늘의 모습 관찰해 그림 그려보기

놀이터에서 직접 하늘을 관찰해 보고 오늘 하늘은 어떤 표정인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수채연필과 붓을 제시하여 하늘의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안타깝게도 유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하늘이 너무 맑아 구름이 보이지 않아서 온통 뜨거운 해의 모습과 푸른 하늘을 그린 유아들이 많았다. 또 어떤 유아들은 자신이 인상 깊게 보았던 노을지는 하늘의 모습을 기억해 그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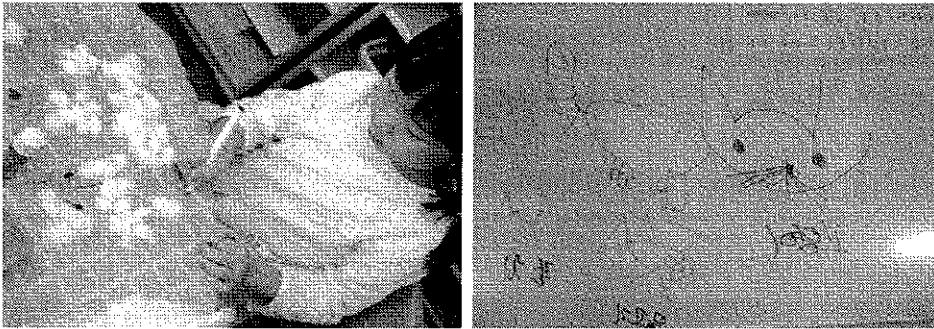


<하늘 그림 그리기>

6. 나만의 구름 만들기

<구름공향>, <구름 조각가>라는 제목의 동화를 듣고 만약 내가 구름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조각가라면 나는 어떤 모양의 구름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하여 나만의 구름을 만들어 보았다.

여러 가지 동물모양, 꽃, 자동차, 비행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을 네임펜을 이용해 OHP 필름에 그림을 그리고 탈지면을 풀로 붙여서 구름을 꾸며주었다.



<나만의 구름 만들기>

7. '하늘은 하늘은' 동시짓기

<하늘은 하늘은>이라는 제목의 동시를 감상해 보면서 하늘의 표정이 다양함을 알고 동시의 내용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전개해 보았다. 날씨가 맑을 때,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칠 때, 화난 것처럼 하늘이 은통 흐릴 때, 캄캄한 밤 하늘의 모습까지 다양한 하늘의 모습이 동시 속에 그려져 있었다.

<동시> 하늘은 하늘은

하늘은 하늘은
변덕장이인가봐

기분 좋다고
췌앵췌앵

슬프다고
주룩주룩

화났다고
우르르 쿵췌

하늘은 하늘은
화가인가봐

파란 종이 위에
하얀 구름 그리고

파란 종이 위에
빨간 노을 만들고

파란 종이 위에
까맣 밤 칠하고

하늘은 하늘은

바다만 어린이들이 지음.

하늘은 하늘은
부지런한가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도 일찍 자니까

하늘은 하늘은
기상캐스터인가봐

비구름 먹구름 우르르르
오늘은 비가 온다고 알려주고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고 알려주고

하늘은 하늘은
조각가인가봐

토끼구름 자동차 구름 악어구름
칙칙 만들어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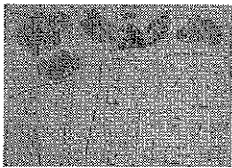
수박구름 깃털구름 통통배구름
모두 모두 만들어내고

<하늘은 하늘은 동시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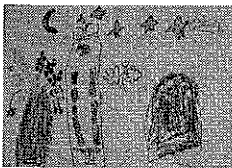
8. 내가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나에게 날개가 돌아나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유아들과 이야기 나눈 후 자유롭게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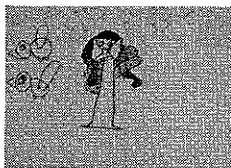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는 유아, 다른 세상의 모습도 살펴보고 싶다는 유아, 엄마아빠와 함께 무지개 위로 올라가 놀고 싶다는 유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천사처럼 날개가 생기면 하늘 위로 날아가서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날아서 아파트 위로 가서요 창문이 열려 있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잡고 싶어요. 화살을 가지고 갈거예요.



하늘 높이 날아가서 하늘에 있는 별이랑 달이랑 따다가 엄마 아빠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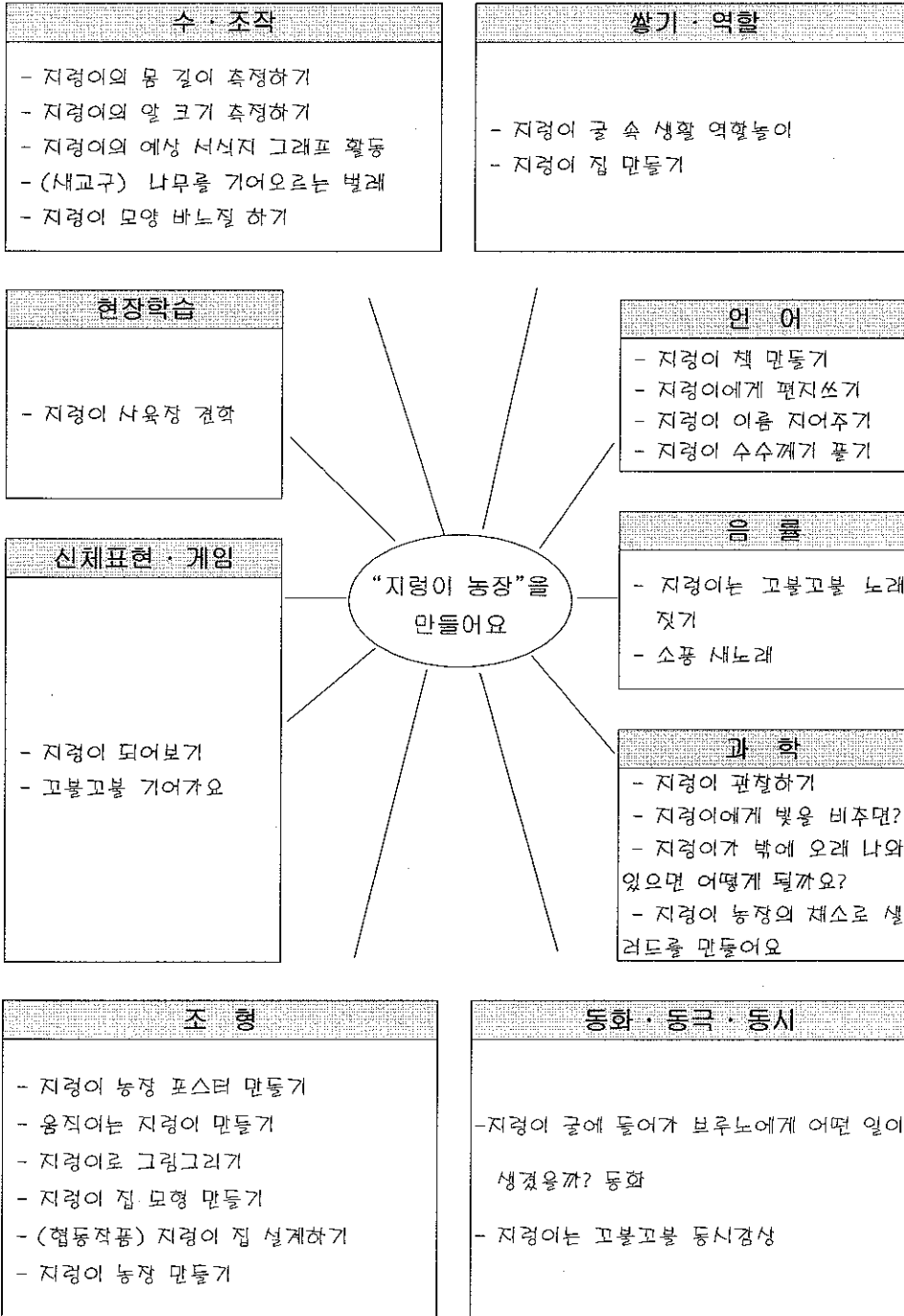
<내가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다면...>

5) 지렁이 농장

(1) 활동진행과정

단 계	활 동 내 용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에서 만난 지렁이 · 지렁이를 찾아요 · 지렁이가 궁금해요. · 지렁이 사육장을 방문해요 · 신나는 지렁이 놀이들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렁이 농장을 만들려면? · 지렁이 농장을 만들 장소를 탐색해요 · 지렁이 농장 설계도를 만들어요 · 지렁이 집 모형을 만들어요 · 지렁이 집 만들기를 허락받아요 · 지렁이 집 지붕을 만들어요 · 지렁이 집에 몇 마리의 지렁이를 넣어주어야 할까? · 지렁이는 어떤 먹이를 좋아할까요? · 지렁이가 잘 보이는 집을 만들려면? · 지렁이 집에 필요한 것들은? · 지렁이는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지렁이는 어떤 곳에 볼 수 있을까? · 지렁이 농장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렁이 집 - 지렁이를 반지는 곳 - 지렁이 책 읽는 곳 - 지렁이 노래 듣는 곳 - 지렁이 나눠주는 곳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렁이 전시회를 열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만들기 - 안내문과 포스터 만들기 - 지렁이 상추 화분 만들기 · 지렁이를 알리는 노래를 만들어요 · 지렁이 동화책 만들기

(2) 지렁이 농장 만들기 연관활동안



(3) 지렁이 농장 만들기 활동의 실제

탐색하기

1. 산책에서 만난 지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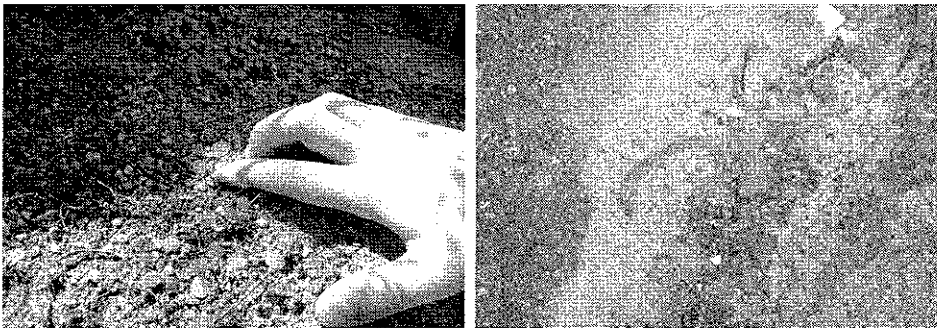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삼청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개인 수집통을 들고 산책을 나가기 전,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산책길의 나무, 꽃, 자연들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생각해 보았다.

삼청공원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에서 봄의 모습을 관찰하고 수집하는 동안, 한 유아가 커다란 바위 위에 죽어서 말라버린 길이 5~6cm의 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유아: 야! 지렁이다.

유아들: 죽었어요.

교사: 지렁이가 발견된 곳이 어디니? 그곳을 사진으로 찍어두자.



<삼청공원에서 발견한 지렁이>

2. 지렁이에 대한 사전개념 알아보기

산책을 다녀온 후 유아들과 산책지에 찍은 사진을 보며 그곳에서 발견한 지렁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사진을 보며 봄의 변화된 모습을 회상하던 중 죽은 지렁이를 찍은 사진을 보며)

유아: 나 지렁이도 봤어요. 딱딱하게 마른 지렁이

교사: 그 지렁이를 어디에서 발견했니?

유아: 땅 입구에서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는데 끝에 뭐가 있어서 혹시 이게 흙인거 지렁이인가 만져보았더니 딱딱하게 굳은 지렁이였어요.

교사: 혹시 전에도 지렁이를 본 적이 있니?

유아: 난 살아있는 지렁이를 본 적 있어요. 얼마랑 아빠랑 같이 월드컵 공원에 갔을때요.

유아: 꽃밭에서요. 전달래 꽃밭.

교사: 그때 본 지렁이는 어땠었니?

유아: 꾸불꾸불 기어가고 있었어요

교사: 삼정공원에서 발견한 지렁이는 딱딱하게 죽어있었을까?

유아 :

지렁이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도 몇 명 있었으나, 어떤 유아들은 지렁이와 에벌레를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책에서 읽은 지렁이에 대한 정보를 경험과 연결 짓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3. 지렁이 서식지 예상하고 찾아보기

주제망을 구성하기에 앞서 지렁이에 대한 유아들의 사전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그 다음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지렁이의 서식지를 예상해보고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침 유치원 텃밭을 가꾸기 위해 사온 거름에서 지렁이가 몇 마리씩 발견되고 있었다. s

교사: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렁이는 어느 곳에서 잘 살 것 같니?

유아: 난 나무 위예요

유아: 난 저기 모래놀이터요

유아: 나도

유아: 난 상추밭에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유아들은 모래놀이터에 지렁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큰 바위 밑, 나무 위, 상추밭, 연못 순으로 지렁이의 서식지를 예상하는 모습이었다.

지렁이 서식지 예상활동이 이루어진 후, 만들어진 그래프를 바탕으로 같은 예상을 한 유아끼리 모여 예상한 곳에서 지렁이를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지렁이를 찾아보았다.

- 모래놀이터: 장난감 삽과 모종삽을 이용해 흙 파기
- 나무 위: 사다리를 이용해 나무 위 살펴보기
- 큰 바위 밑: 친구들과 힘을 합쳐 큰 바위 들어보기
- 상추밭: 상추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모종삽으로 땅 파기
- 연못가: 연못 주변 들어보기

상추밭에서 지렁이를 몇 마리 발견하게 되어 유아들의 희망에 따라 관찰통에 담아 교실로 가지고 왔으며, 이것으로 인해 지렁이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지렁이 서식지 예상하고 찾아보기〉

4. 지렁이 지도 작성하기

텃밭에서 지렁이를 발견하게 된 유아들과 지렁이가 살고 있는 곳의 지도를 작성해 보았다.

유아: 〇〇가 상추밭에서 찾았어요

유아: 맞아요. 6다리나 찾았어요.

교사: 그랬구나! 우리가 어제 지렁이를 발견했던 곳을 이 바깥놀이지도 위에 표시해 보도록 하자.

지렁이를 발견한 곳에 지렁이 그림을 붙인 후, 완성된 지렁이 지도를 보며 지렁이를 발견하게 된 곳의 공통점을 추론해 보았다.

유아: 지렁이가 발견된 곳은 모두 흙이 있어요.

유아: 그리고 흙 속에 있었어요. 깊이.

유아: 지렁이가 있었던 곳에서 풀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아들은 완성된 지렁이 지도를 살펴보며 대부분의 지렁이가 거름이 있던 텃밭 주위에서 발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왜 그곳에 지렁이가 많이 살고 있었는지 궁금해 하였다. 이에 기사아저씨를 교실에 모셔다가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지렁이 서식지 지도그리기 및 전문가와 인터뷰하기〉

기사아저씨는 텃밭을 잘 가꾸기 위해 거름을 사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거름은 사람이나 동물이 배설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렁이가 그 배설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다. 또한 지렁이는 배설물과 음식찌꺼기, 쓰레기 등을 먹고 다시 좋은 흙을 만들어내는 동물이라고 말씀해주셨다.

5. 지렁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사아저씨가 알려주신 지렁이의 일반적인 특성을 듣고 난 유아들은 지렁이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진짜 지렁이가 음식찌꺼기를 먹어요?” “그런데 왜 지렁이는 배탈이 나지 않을까?”

다음날 지렁이에 대해 자료들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지만 아무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교사가 조사한 것들을 소개해 주었다. 지렁이를 이용한 야채 화분, 지렁이의 먹이 등에 대한 자료를 소개받고 유아들은 “지렁이 진짜 대단하다”며 지렁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지렁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알아보고 싶은 것 등을 브레인스토밍해 보고 내용들을 유목화해 보았다.

유아들이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 지렁이는 왜 흙에서 살까?
- 왜 지렁이는 흙을 먹을까?
- 지렁이는 어떻게 태어나고 자랄까?
- 지렁이는 왜 땅 속에 있을까?
-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데 왜 배탈이 나지 않을까?
- 지렁이 똥은 어떻게 생겼을까?
- 지렁이는 몸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
- 지렁이는 햇빛을 좋아할까?

이에 유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크게 개념화하여 -지렁이 먹이/지렁이 몸/지렁이 똥/지렁이 알/지렁이 환경- 으로 나누고, 팀별로 모여 각 팀에서 조사할 세부 항목을 토의하여 선정하였다.

<지렁이 먹이>

1. 지렁이는 종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2. 지렁이는 음식찌꺼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3. 지렁이는 나뭇잎을 먹을까요?
4. 지렁이는 무슨 먹이를 가장 좋아할까요?
5. 지렁이는 무슨 먹이를 가장 싫어할까요?
6. 지렁이는 어떻게 먹이를 찾을까요?

<지렁이 똥>

1. 지렁이는 똥구멍이 있을까요?
2. 지렁이는 흙 똥을 싸나요?
3. 지렁이 똥은 어떤 색깔일까요?
4. 지렁이 똥은 냄새가 날까요?
5. 지렁이 똥은 어떤 모양일까요?

<지렁이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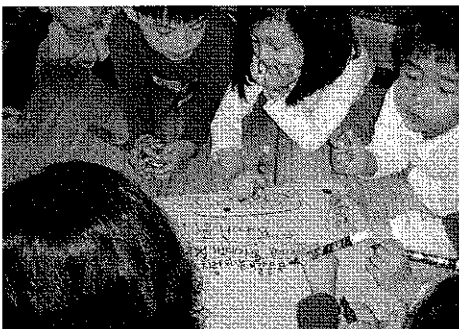
1. 지렁이 몸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2. 몸을 어떻게 이용하여 땅을 팔까요?
3. 땅 속에서는 몸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4. 지렁이 몸에는 뼈가 있을까요?
5. 지렁이 몸의 색깔은?
6. 지렁이 몸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7. 밥을 먹으면 지렁이 몸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렁이 환경>

1. 지렁이는 왜 지구 땅 속으로 들어갈까요?
2. 지렁이는 빛을 좋아할까요?
3. 지렁이는 물을 좋아할까요?

<지렁이 알>

1. 지렁이는 알을 낳까요?
2. 새끼 지렁이는 반대기가 되는 건가요?
3. 지렁이 알은 무슨 색 일까요?
4. 지렁이는 알을 어디로 낳을까요?
5. 지렁이 알은 얼마나 큰가요?
6. 지렁이는 한번에 몇 개의 알을 낳까요?
7. 지렁이 알은 얼마나 지나면 새끼가 나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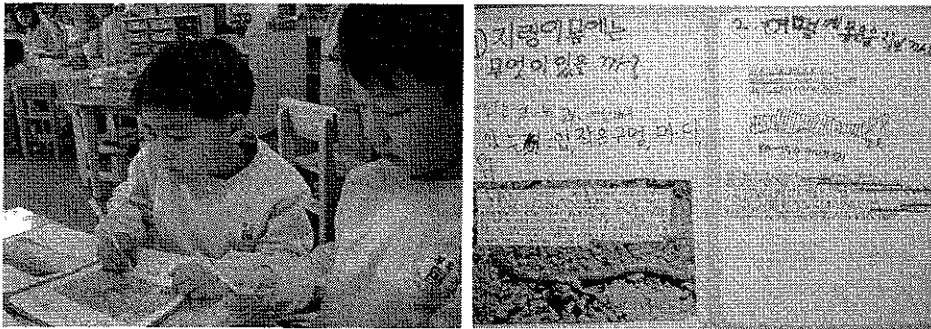
<지렁이에 대해 궁금한 것 토의하기>

6. 지렁이 사육장을 방문했어요

처음 지렁이 주제를 전개하기 전, 지렁이를 분양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 <서울특별시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지렁이 사육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캐나다산 붉은 지렁이를 이용해 오니와 오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사전에 지렁이의 분양을 허락받은 후, 유아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지렁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지렁이 사육장을 견학할 수 있었는데, 지렁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분이 놀랄 정도로 유아들은 이미 지렁이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렁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교사로서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아마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고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과정과 여러 가지 연관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 추측되었다. 그곳에서 오니 속에서 지렁이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렁이 알과 지렁이가 만든 분변토를 얻어오게 되어서 지렁이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키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7. 지렁이 책을 만들어요

유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 책 등을 통해 지렁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 팀별로 모여 자료를 공유하고 책으로 구성해 보았다. 자유선택놀이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여 책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렁이 책만들기>

구성하기

1. 지렁이 농장에 대한 생각을 모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렁이를 알리기 위한 농장을 만들기로 결정한 후, 농장의 장소와 구성내용 등에 대한 생각을 모아보았다. 지렁이 농장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지렁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 (지렁이 집, 온도계, 지렁이 약, 지렁이 먹이...)
2. 지렁이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 (지렁이 책, 간판...)
3. 지렁이 농장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 (팸플렛...)

또한 지렁이 농장의 장소로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교실, 바깥놀이터 등의 장소를 탐색해보고, 각각의 장소가 지렁이 농장으로 (부)적합한 이유를 토의해 보았다.

<유아들이 농장 후보로 선정한 곳과 탈락 이유>

1. 교실-우리가 놀이하거나 이야기 나눌 때 손님들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대안: 시간을 정해놓고 교실이 비어있을 때만 손님을 오게 해요
반대의견: 손님이 자유롭게 올 수가 없어요)
2. 모래밭 옆 배추밭-지렁이 똥이 배추에게 거름이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
(반대의견1: 지렁이가 배추를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반대의견2: 흙이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지렁이가 사는 곳은 촉촉해야 해요)
3. 오두막-1.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2. 너무 좁아요
3. 하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지렁이를 볼 수 있고 책꽂이도 놓을 수 있어요
(대안1: 오두막의 옆면에 커튼이나 천 같은 걸로 막아줘서 빛이 못 들어오게 해주면 됨
대안2: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10명씩만 들어오게 해요)
4. 연못가-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시원해서 좋아요
(반대의견: 연못가에 놀러오는 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새암반 동생들이 놀이할 때 시끄러워서-새암반 교실 창문 아래가 연못가임- 지렁이가 싫어할 것 같아요)

4가지 후보지를 놓고 토의하던 중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쉬운 『오두막』을 농장 장소로 결정하게 되었다.

2. 지렁이 집 설계도 그리기

지렁이 농장 구성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농장 장소를 결정한 후, 동물원으로 봄 소풍을 다녀오게 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지렁이 집을 설계하고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각 동물의 특성에 따른 집의 구조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이야기나누기 자료로 사용하였다.

유아들은 지렁이의 특징과 집의 구조, 물리적 특성 등을 연결 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설계도를 탐색한 후, 4명씩 모듈별로 모여 지렁이의 집에 필요한 것들과 집의 구조 등을 설계해 보았다.

<유아들이 그린 지렁이 농장 설계도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교사: 설계사란 설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설계사 : 김유리, 김동현, 윤한솔, 윤무영 4명의 설계사가 함께 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지렁이 농장 밑에는 흙을 깔아 줬어요. 흙을 깔아준 이유는 뭐야?

유아 : 어, 지렁이가 밖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햇빛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덮는 거죠.

교사: 여기 나무기둥을 세워 지붕을 만들려고 한 거는 왜 그런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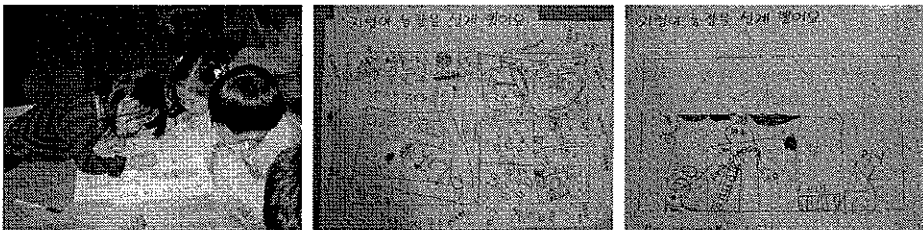
유아 : 어, 지렁이가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햇빛이 있으면 안되니까.

유아 : 여기 바위는 나쁜 사람들이 왔을 때 숨으라고...

유아 : 개미나 고슴도치 같은 적이 나타났을 때 쏙 숨게요.

유아 : 또 집 옆에 나무도 심을꺼예요.

유아 :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지렁이가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렁이 농장 설계도 그리기>

3. 지렁이 집 모형 만들기

완성된 지렁이 설계도를 보며 각 팀에서 작성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지렁이 집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유아들은 지렁이 집 모형을 만들면서 그동안 탐구하고 조사하였던 지렁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1팀>

(반투명 플라스틱 통 바닥에 1cm정도로 흙을 깐다. 바닥의 2/3정도를 이끼로 덮고 그 위에 나무로 된 망을 구부려서 세운 뒤 한쪽에 나뭇가지를 세운다. 그 옆에는 바깥놀이터에서

주위온 5cm길이의 나뭇잎 5-6장과 꽃잎과, 이끼를 넣은 향아리를 놓는다. 나뭇잎 아래쪽으로는 호스를 가로로 길게 놓는다.)

<2팀>

(반투명 플라스틱 바닥에 흙을 덮는다. 2cm정도 높이로 우유곽 아랫부분을 자르고 흙과 자갈을 넣어 구석에 놓는다. 우유곽 아랫부분에는 호스를 길게 놓는다. 플라스틱 중간 부분부터 나뭇잎으로 덮고 그 밑에 작은 돌맹이를 놓는다. 한 쪽 구석에 도자기를 놓는다. 구리선을 플라스틱 양 측면에 길게 연결하여 지렁이가 기어 올라가 볼 수 있는 줄을 만든다. 구리선을 잘라 틀 위로 세워 축을 세운 뒤, 한쪽 면을 뺀 나머지 세 면은 16절 색 도화지를 구리선 위에 덮고 테이프로 고정시켜 아취 모양의 지붕을 만든다.)

<3팀>

(플라스틱 바닥에 흙을 깐다. 그 위를 반 정도는 이끼로, 나머지 반은 나뭇잎으로 덮고, 나머지 부분에는 호스와, 이끼를 가득 채운 도자기 2개와, 이끼와 꽃잎을 가득 채운 동그랗게 말은 도화지를 놓는다. 이끼 위에는 하얀 자갈과 지렁이가 볼 수 있도록 수수깡을 스모양으로 놓고, 벽면에 호스와 나뭇가지를 세워 놓는다. 구석에 나뭇가지를 1개씩 세우고, 구리선을 잘라 바닥에 늘어 놓는다. 나뭇잎 위에는 구부릴 수 있는 나무를 구부려서 세우고, 그 위를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1/4크기의 빨간색 색종이 4장을 테이프로 붙인다.)

지렁이 집 모형이 완성되고 난 후, 각각의 집에 지렁이를 넣어 주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주었다.



(지렁이집 모형 만들기)

4. 지렁이 농장 허락구하기

주말이 지나고 돌아온 월요일에는 유치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전체모임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교사는 이 시간을 이용해 바깥놀이터 오두막에 지렁이 농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유치원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유아가 유치원에 오자마자 교사를 붙잡고 오두막에 농장을 지으려면 허락을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교사는 그 이야기를, 전체 유아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했고 다른 유아들도 오두막에 지렁이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치원 가족들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에 유치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게 되었다.

상명 가족들에게

안녕하세요? 우린 가람반이에요.

우리가 유치원 오두막을 지렁이 농장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리가 농장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지렁이가 얼마나 좋은 동물인지, 지렁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농장은 지렁이에 대해 알고 싶은, 지렁이를 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렁이를 키우고 싶은 상명 가족에게 지렁이도 나누어 줄 거예요. 우리가 오두막에 농장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2005년 4월 25일

상명 부속 유치원 가람반 드림

5. 농장에 설치할 지렁이 집 계획하기

전체모임에서 오두막에 지렁이 전시장 만드는 것을 허락받은 후, 본격적으로 농장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지렁이를 키울 집과 그에 필요한 환경들을 계획·구성하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렁이 집 모형과 그 모형을 만들며 가졌던 생각들을 근간으로 지렁이 집을 계획하였다.

유아들은 오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지렁이 집을 만들기로 하였다.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만들기로 하였다.).

첫째, 투명한 통이어야 함

둘째, 아래에 다리가 있어 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함

셋째, 흙과 지렁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고 막혀있는 집이어야 함

그 외 지렁이 집에 만들어주어야 할 것들을 결정하였다.

첫째, 햇빛가리개 만들기

둘째, 흙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물뿌리개

셋째, 흙의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줄 덮개

지렁이 집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아저씨에게 전달하고 지렁이 집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다.







<지렁이 집 만들 재료 고르기>

6. 햇빛을 막아줘야 해요!

지렁이 집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유아들과 햇빛가리개를 만들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유아들이 막연하게 오두막에 커튼을 쳐 햇빛을 가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교사는 작은 우산의 천을 뜯어내고 우산살만 남아있는 우산을 소개하였다.

토의과정을 거쳐 각 재료로 구성된 지붕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결정하여 4가지 종류의 지붕을 만들기로 하였고, 각각의 지붕은 매일의 날씨에 따라 바꿔주기로 하였다.

지붕의 종류		지붕의 특징
조각천 지붕		천에는 구멍이 뚫려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해줘요 □□바람이 시원한 날
종이와 비닐 지붕		종이는 햇빛을 막아주고 비닐은 비를 막아주어요 □□햇빛과 비가 함께 있는 날
우유곽과 달력 지붕		우유곽과 달력종이는 두꺼워서 햇빛을 잘 막아줄 수 있어요 □□햇빛이 아주 강한 날
비닐과 아크릴물감 지붕		알록달록한 아크릴물감이 예뻐요 □□비가오거나 기분이 우울한 날

<지렁이 집 지붕 만들기 계획>

7. 지렁이 집에 넣어줄 지렁이 숫자는?

완성된 지렁이 집이 교실로 배달된 후, 유아들은 틈만 나면 지렁이 집 아래에 들어가 위를 쳐다보며, 이 안에 만들어질 지렁이 집을 무척이나 기대하는 모습이였다. 약 45x75cm의 투명한 통 안에 몇 마리의 지렁이를 넣어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적절한 수의 지렁이를 넣어주기 위해 모루 지렁이를 이용해 그 수를 파악해 보았다. 유아들은 모루 지렁이를 통에 붙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춰 모루 지렁이를 붙여 보았다. 지렁이 집에 넣어줄 적절한 수의 지렁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지키기로 하였다.

첫째, 지렁이의 몸이 겹쳐지지 않도록 붙여요.

둘째, 일정한 간격으로 지렁이를 붙여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두 104마리의 지렁이를 집에 넣어주기로 하였고, 이 지렁이는 견학에 정지인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분양받기로 하였다.

8. 지렁이 집에 넣어줄 흙을 모아요.

지렁이 집에 104마리의 지렁이를 넣어주기로 결정 한 후,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충분한 양의 지렁이를 분양받아 왔다. 다음날, 한 유아가 『흙(스티븐 타머, YBM SISA)』 책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 책 속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종류의 흙과 그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 식물이 잘 자라는 흙,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그 책을 읽으며, 유아들은 지렁이가 살기 좋은 흙은 썩은 식물, 작은 낙엽이나 식물의 뿌리가 많이 들어있는 『유기토』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지렁이를 발견했던 곳의 지도를 회상해보며 지렁이가 발견된 곳과 발견되지 않은 곳은 흙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돋보기와 모종삽을 이용해 바깥놀이터에서 지렁이 집에 넣어줄 흙을 담아보기로 하였다.



(지렁이 집에 넣기)

9. 지렁이 집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요

1) 물뿌리개 만들기

지렁이 집의 모양이 잡혀가면서 지렁이 집을 위한 물건들을 제작하느라 바빠지게 되었다. 지렁이 집을 위해 처음 계획하였던 햇빛가리개와 흙을 촉촉하게 적셔줄 물뿌리개, 물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줄 덮개 등 이 모든 것의 필요성이 유아들에게서 제기되었다.

유아: (지렁이 집 흙을 만지며) 선생님, 물 안 뿌려줘요? 지렁이 흙이 마르면 어떻게요?

교사: 그러게. 물뿌리개를 만들어야 겠구나

아: 빨리 만들어야죠. 이 속에 10리나 있는데..

교사: 물뿌리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유아: 시간이 딱 되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게 만들면 좋겠다.

교사: 그건 우리의 힘으로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유아: 그럼 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물을 뿌리면 되잖아요.

처음에 유아들은 플라스틱용기의 아래의 옆에도 구멍을 모두 뚫어야 물이 더 멀리 뿌려질 것이라 생각했었다. 유아들의 생각대로 밑과 옆에 많은 구멍을 뚫어 실험을 해보니 물줄기가 합쳐지며 한곳에만 많은 물이 모여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용기의 밑바닥에만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물뿌리개를 완성한 후 오두막 지붕에 달게 되었다.



<물뿌리개 만들기>

2) 덮개 만들기

물뿌리개를 이용해 지렁이 집에 물을 주고 간 다음날 지렁이 집을 관찰하던 한 유아가 “어제 물을 많이 주고 갔는데,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며 궁금증을 나타내었다. 이에 교사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흙 속의 물이 빨리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잠시 생각하던 유아가, “그럼 우리가 없는 동안 흙이 다 말라버려서 지렁이가 죽으면 어찌죠?”라며 걱정하게 되었고, 이에 불의 증발을 막아줄 덮개를 만들게 되었다. 유아들은 줄자를 이용해 지렁이 집의 크기를 측정하고, 시트지와 나뭇잎, 꽃잎 등을 이용해 지렁이 집에 맞는 덮개를 만들어 지렁이 집 위에 덮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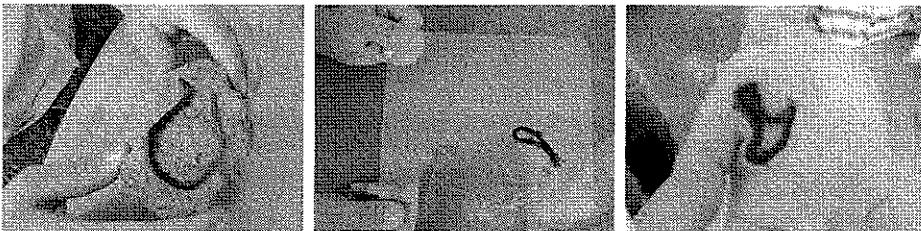
<지렁이 집 덮개 만들기>

10. 지렁이는 어떤 곳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듬별로 조사한 지렁이에 대한 책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지던 중, 『지렁이 몸』 조사팀이 자신들의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렁이는 발이 없지만 강모라는 짧은 털을 이용해 몸을 움직이고 이곳저곳에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지렁이 몸』 조사팀의 발표가 끝나자, 유아들은 “그럼 지렁이는 스파이더맨처럼 아무데나 다 붙을 수 있는거야?”라며 흥미로 위하였고 조사팀은 “우리가 내일 실험해보고 알려줄게”라고 대답하였다.

유아들은 다양한 질감의 대상에 지렁이를 붙여보고, 결과를 예상한 후, 확인해보았다. 처음에 코팅지나 플라스틱 같이 미끄러운 곳에서 떨어질 것 같다고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돌맹이, 천, 손바닥, 종이 등 울퉁불퉁하거나 밀착할 수 없는 곳에 붙어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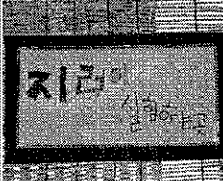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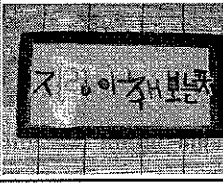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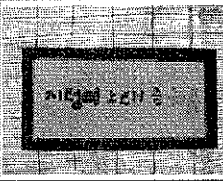

유아들은 지렁이의 강모가 붙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예측-확인해 보는 실험과정에 흥미를 가졌으며, 이 실험은 지렁이 농장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해볼 수 있게 준비하기로 하였다.



<지렁이 붙여보기>

11. 지렁이 농장 구성하기

지렁이 집도 완성되고, 지렁이를 알리기 위한 자료들도 마무리 되면서 그동안 준비하였던 모든 자료들을 모아 농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획해 보았다. 오두막에 어떤 영역을 구성할지 계획하고 직접 오두막을 방문하여 각 영역의 자리를 배치하였다.

지렁이 집		<p>지렁이를 관찰하는 곳</p> <p>- 지렁이가 잘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곳이에요.</p>
지렁이 실험하는 곳		<p>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직접 지렁이를 만지고 볼 수 있는 곳</p> <p>- 지렁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지렁이에 대해 알아보는 곳이에요</p>
지렁이 책 보는 곳		<p>각 팀에서 만든 지렁이 책과 우리가 만든 지렁이 동화책 읽는 곳</p> <p>- 우리가 만든 지렁이 책, 우리가 만든 지렁이 동화책, 지렁이 책 등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p>
지렁이 노래 듣는 곳		<p>우리가 개사한 「지렁이는 꼬불꼬불」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곳</p> <p>- 우리들이 만든 지렁이 노래를 들으며 지렁이에 대해 알아보는 곳이에요</p>
지렁이를 나눠주는 곳		<p>원하는 사람에게 지렁이를 나눠주는 곳</p> <p>- 지렁이를 키워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렁이를 공짜로 나눠주는 곳이에요</p>

<지렁이 농장 구성>

1. 지렁이를 알리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지렁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한 활동들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농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지렁이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 되었다. 이미 완성된 지렁이 책자(각 팀에서 완성한 소책자)외에 지렁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구상하던 중, 유아들이 『지렁이는 꼬불꼬불』 노래를 개사한 것을 녹음, 전시하기로 하였다.

『지렁이는 꼬불꼬불』 노래를 개사한 것은 미리 계획된 활동이었다기보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조금씩, 또는 전이시간에 조금씩 바꾸어 보았던 것인데, 유아들이 바꾸는 노랫말 속에 그동안 지렁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이에 유아들에게 우리가 개사한 『지렁이는 꼬불꼬불』 노래를 녹음하여 농장에 놓아둘 것을 제안하였고, 유아들은 실례고 흥분된 마음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 바깥놀이터에서는 유아들이 개사한 『지렁이는 꼬불꼬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거의 모든 유치원의 가족들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었다.

2. 지렁이에 대한 재미있는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교사는 농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지렁이에 대해 알려줄 자료를 준비하는 유아들에게 지렁이가 등장하는 동화를 지어 동화책을 전시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렁이에 대해 알려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유아들이 지렁이에 대해 알게 된 정보와 지식, 경험들을 표현해보고 정리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화가 <야기 지렁이 또미>와 <지렁이 삼형제>이다. 이야기를 지은 후, 각 장면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 동화책을 완성하였다.

<아기 지렁이 토미>

글, 그림: 가람반

작은 양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우와~ 여기가 바깥세상이구나"라며 아기 지렁이 토미가 알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마침 토미의 엄마는 토미에게 줄 맛있는 먹이를 찾으러 가고 있었지요. 토미는 엄마가 보이지 않자 무서워 울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에 있는거야? 엄마 찾으러 갈래!"

아기 지렁이 토미는 엄마를 찾아 먼 여행을 시작했어요.

토미가 상추밭을 지나고 있을 때었어요. 어디선가 "후썩후썩"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토미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가 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키가 작은 상추가 하나 있었어요. "넌 왜 울고 있니?" 토미가 상추에게 물어보았어요. "내 친구들은 모두 키가 큰데 나만 이렇게 키가 작아. 거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친구들처럼 커지고 싶어" 상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마,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거름을 줄게. 그건 바로 내 똥이란다"라고 말하며 토미는 상추 옆에 똥은 "뿌지직"씩 주었어요. "고마워 지렁이야! 이제 나도 쑥쑥 클 수 있겠다!"

토미가 상추와 인사하고 길을 가려고 할 때었어요. "고놈 참 맛있겠군. 오늘 점심으로는 맛있는 지렁이 요리를 먹어야겠다" 토미 앞에 사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토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상추가 몸을 쩍 펴며 이야기 했어요. "빨리 내 뒤에 숨어" 상추는 토미를 숨겨주기 위해 몸을 있는 힘껏 넓게 펼쳤어요. "오잉~ 오 지렁이가 어디로 갔지?" 사마귀는 앞발을 들어 상추밭을 찾기 시작했어요. "에잇~ 오늘은 그냥 가야겠군! 오늘 두고 보자!"라며 사마귀는 상추밭을 떠났어요. 사마귀가 사라지자 토미는 상추에서 나와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인사하고 엄마를 찾아 계속 길을 걸었어요

토미가 꽃밭을 지나고 있을 때었어요. 어디선가 또 "후썩후썩"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토미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가 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키가 작은 도라지꽃이 하나 있었어요. "넌 왜 울고 있니?" 토미가 도라지꽃에게 물어보았어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물이 내 뿌리까지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 도라지꽃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마, 내가 뿌리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줄게"라며 머리를 부풀려 땅 속으로 들어간 토미는 흙을 파 먹으며 도라지꽃 뿌리 옆까지 구멍을 만들어 주었어요. "고마워 지렁이야! 이제 나도 물을 마실 수 있겠다!"

토미가 도라지꽃과 인사하고 길을 가려고 할 때었어요. "고놈 참 맛있겠군. 오늘 점심으로는 맛있는 지렁이 요리를 먹어야겠다" 토미 앞에 지네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토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라지꽃이 몸을 쩍 펴며 이야기 했어요. "빨리 내 뒤에 숨어" 도라지꽃은 토미를 숨겨주기 위해 몸을 있는 힘껏 넓게 펼쳤어요. "오잉~ 오 지렁이가 어디로 갔지?" 지네는 여러 개의 벌레 꽃밭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에잇~ 오늘은 그냥 가야겠군! 오늘 두고 보자!" 지네는 상추밭을 떠났어요. 지네가 사라지자 토미는 도라지꽃에서 나와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인사하고 엄마를 찾아 계속 길을 걸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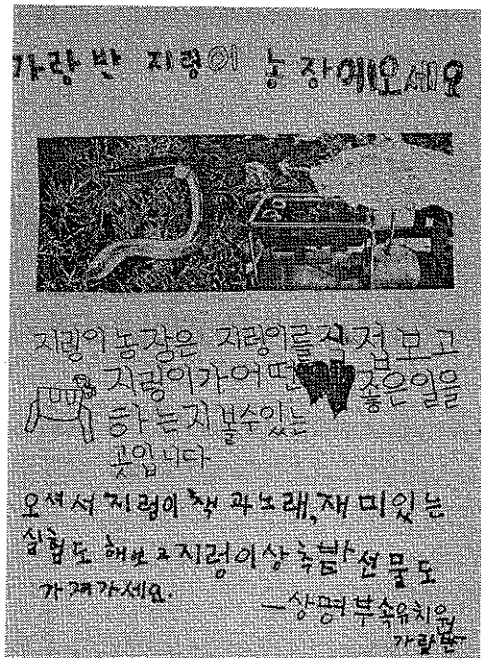
길을 걷던 토미는 먹이를 모으고 있는 엄마와 만났어요. "엄마!" "토미야" 엄마는 먼 곳까지 엄마를 찾아온 토미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 빨리 집으로 들어가요" 엄마와 토미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지렁이 전시장 간판 만들기

지렁이 전시장의 영역과 공간이 구성되면서, 전시장을 알리고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한 마무리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만든 지렁이 전시장의 이름을 정하여 간판을 만들고, 각 영역 간판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동안 편의상 <지렁이 전시장>이라고 불려왔던 전시장의 이름은 <가람반 지렁이 농장>으로 결정되었으며, 각 영역은 『지렁이 집』, 『지렁이 실현하는 곳』, 『지렁이 책 읽는 곳』, 『지렁이 노래 듣는 곳』, 『지렁이 나눠 주는 곳』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간판을 만들고, 각 영역에서 주의해야 할 안내문을 만들어 붙였다.

4. 지렁이 전시장 안내문과 포스터 만들기

사람들에게 지렁이 농장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과 포스터를 만들고, 유치원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다.



<지렁이 전시회 포스터>

5. 가람반 지렁이 농장 홍보 및 초대하기

안내문이 만들어진 후, 모든 유아들이 그룹으로 나뉘어 지렁이 농장을 알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을 구성할 때 안내문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유아들과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아들을 적절히 섞어 팀을 구성하였으나, 오히려 안내문을 읽을 수 있는 유아들은 안내문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소리로 빠르게 글을 읽어 안내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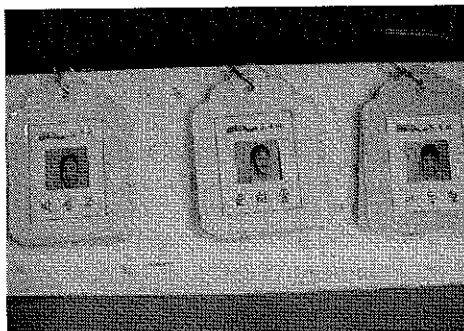
이후에 안내문의 내용을 읽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렁이의 특징에 대해 한 가지씩 소개해주고 지렁이 농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자, “지렁이는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야” “야채가 잘 자라게 도와주는 고마운 동물이야” “가람반 지렁이 농장에 오면 지렁이 상추밭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도 할 수 있어요.”라며 자신들이 오랫동안 탐구한 지렁이와 지렁이 농장을 즐겁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알리고 초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6. 지렁이 도우미하기

지렁이 농장을 오픈하기 전, 유아들과 지렁이 도우미의 순서를 정하고 도우미의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다. 또한 도우미 일지를 만들어, 그날그날 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을 체크하여 빠짐없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접 농장에서 예행연습을 해 보기도 하였다. 지렁이 상추밭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에 지렁이 농장을 홍보한 바로 다음날부터 동생들, 친구들이 지렁이 농장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농장을 꼭 채우는 손님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도와주어야 할지 당황해하던 도우미들이 곧 지렁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노래도 들려주고 책도 소개해주면서 그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였다. 또한 50개도 넘게 준비한 지렁이 상추밭은 하루 만에 다 분양되어 그 이후로도 가람반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렁이 상추밭을 만들어야 했다.

며칠동안이나 반복하여 킵라면 용기를 꾸미고, 상추를 옮겨 심고, 지렁이를 넣고 물을 주는 과정이 교사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자신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바깥놀이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상추밭을 만들고 관리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연친화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렁이 관리 도우미 안내판>

참 고 문 헌

- 교육부(2000).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2003). 유치원교육 관련 자료. 서울: 교육부
- Chawla, L. & Hart, R. A. (1995). The Roots of Environmental Concern. *NAMTA Journal*, 20(1), 148-157.
- Cobb, E. (1977). *The ecology of imagination in childhoo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umphryes, J. (2000). Exploring Nature with Children. *Young Children*, 55(2), 16-20.
- Palmer, J. (1995). How Research is Informing Practi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50, 33-34.
- Raglon, R. (1993). "Reading the World: Overt and Covert Learning in Environmental Writing for Childre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4(4), 4-7.
- Tanner, T. (1980). Significant Life Experiences: A New Research Area in Environmental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1(4), 20-24.
- Wilson, R. A. Kilmer, S. , & Knauerhase, V. (1996). Developing an environmental outdoor playspace. *Young Children*, 51(6), 56-61.

연구진

연구 책임자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자 김선월 (상명대 부속유치원 원장)
 홍은주 (송호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주 (대림대 유아교육과 교수)

협력 연구진 진형미 (상명대 부속유치원 교사)
 이찬주 (상명대 부속유치원 교사)
 윤현구 (상명대 부속유치원 교사)
 박자영 (상명대 부속유치원 교사)
 김소희 (상명대 부속유치원 교사)
 현화동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김정윤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이은형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허정윤 (중앙대학교 석사과정)